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3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359 호



법석 조대 **운하 스님** 통도사 한주



"도를 닦는 다고 생각을 하면 진리의 세계로 확실하게 나를 이끌어 스승에게 생사를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순서가 정연한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연꽃시니어 봉사단'의 회향

지난해 11월 통계청 인구 추계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령인구 339만 명.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 '부담만 주는 세대'이길 당당히 거부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세대'로 거듭나기를 선언한 노인자원봉사단체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23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발족한 '연꽃시니어봉사단



(단장 김상인 71, 이하 봉사단)'. 64세부터 80세까지 33명의 노인들이 모인 봉사단은 올해를 '환경자원봉사의 해'로 정하고, 2월초부터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33명 단원들은 아예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4개조로 나눠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4시간 동안 '만든 이의 공덕을 생각하며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란 캣맘을 들고 봉은사 식당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가득 나오던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자, 봉사단은 자신감을 얻어 앞으로 사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겠다"며 의욕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보시 큰 자비운동'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푸른 하늘 보여주기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봉사단이 본격적인 자원봉사를 나서게 된 것은 2000년 11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웃기대항' '노래자랑' 등을 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부터다.

하지만 봉사단의 실질적인 출발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단장을 비롯해 단원들은 봉은연화대학 동문들로 사찰 내 환경봉사를 물론, 매주 일요일 4시간씩 무료진료소인 '봉은선재마을 의료회'의 안내, 차 대접, 청소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이러다보니 봉은사 신도들이 이들에게 '자원봉사 골수매니아'라는 짓궂은 별명까지 붙여줬다. 봉사 시간이 200시간 넘게 쌓여, 작년 12월 '2001 송파구 자원봉사자 연말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

봉사단 단장 김상인 할머니는 "발기만 하다가 베풀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자, 환희심까지 들더군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철우(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염주 착용**

1. 불자님은 항상 염주를 지니고 다니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2. 지닌다면 그 이유는?
   ①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기 위해 ②장식용으로
   ③불자라는 자부심으로 ④포교에 도움이 되므로
3. 지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귀찮아서 ②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③남들에게 거부감을 줄까봐

설문 참여: 3월 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0호 9면에 싣습니다.

불교 자원봉사자 다시 급증

IMF여파 회복, '연꽃마을' 개인 4배, 단체 5배나

노력봉사 많아… 프로그램 다양화 시급

"통합관리시스템 · 상시 재교육 필요"

97년 IMF 이후 지난 3년간 불교자원봉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분야는 여전히 단순 노력 봉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2월 25일 내놓은 '2001년도 연꽃마을 자원봉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99년 1,040명에서 2001년 3,86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단체봉사팀의 경우 99년 21개 팀에서 2001년 115개 팀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불교계 사회복지 전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99년 18,522명에서 3만 여명으로 60% 늘어났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4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200% 증가했다. 또 전국 40여개 지역복지관들도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150%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자원봉사자의 가파른 증가세는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일부 복지단체가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도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봉사단체의 급증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직장직능단체들의 참여가 높아졌고, 개별 사찰별 자원봉사팀이 많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등 단순 노력봉사가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밖에 가정봉사원(9%), 음식조리(2%), 목욕(1%) 등의 봉사 참여자는 크게 부족했다.

이밖에 자원봉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377명(90%)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841명(3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남성불자와 20~30대 젊은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꽃마을 법인사무국 김종필 과장은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상시적인 봉사자 재교육 실시, 불교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3·1절 83돌…원각사지 10층석탑 1년만에 재공개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석탑을 1년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3.1절 83주년을 기념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3.1운동발상지인 탑골공원을 1일 재개장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으로 특별안전진단을 마친 원각사탑이 공개됐다. 사진=고영배기자

종교 ·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상속 ·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종교단체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3월부터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월 24일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면제를 골자로 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관련 상속증여세법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되지 않아 기업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 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범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 발족

대회후 사찰수호 공동대책위 체제로

5일 개최되는 '자연환경보존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회가 공식 결성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장에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집행위원장에 현고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을 선출하고 결의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타 스님 인터뷰 3면

조계사에서 5일 오후 2시 개최되는 '범불교도결의대회'에는 전국 25000여 사찰에서 1만여 불자들이 참가, 자연환경과 사찰수행환경을 수호하겠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천명한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격려사,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의 각종 환경침해에 대한 대정부 요구, 중앙종회부의장 청화 스님의 결의문 채택, 사부대중 30명의 연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추진위는 곧바로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공동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사찰수행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범불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 또한 사찰수행환경을 체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책사업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문화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i@buddhapia.com

조계종, 18~22일 임시종회

조계종 제153회 임시중앙종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불교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2월 28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545년도 결산 감사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원로회의법 개정 △사면복권 종헌 종법 개정 △분담금납부법 개정 △중앙종회운영규칙 개정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현황보고 등 13개 안건을 상정했다.

김원우 기자

새연재 '임제록 강의' 8면 | 3·1절 친일불교 관련 혜봉 스님 특별기고 22면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 대만 불광산사

참관 순례단 모집



현대불교는 대만 불광산사에서 열리는 중국최고의 국보 법문사 석가모니 불지사리(사진) 전시회 참관 순례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 불지사리는 '세계 9대 기적'으로 불릴 만큼 진귀한 성보입니다. 또 대만 불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친견 법회도 열립니다.

■일 정: 3월28일(목)~4월1일(월) (4박5일)
■참가비: 97만원(포함내역: 공항세 /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 및 문의처: 이스턴관광 (02)779-4747(담당:엄호일 실장)
■접수기간: 3월20일(수)까지
■입금계좌: 서울은행 39908-0725204(예금주: 계명세계여행)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서울 불광산사,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주 관 : 계명세계여행사, 이스턴 관광

불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 및 산사음악회



기 공 식

법왕사에서는 연건평 3천평의 불교종합복지관 기공식을 교계 큰스님들과 내외귀빈들을 모시고 오는 3월 11일 봉행합니다. 10여년간 준비한 대작불사의 첫삽을 뜨는 이날 기공식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빠짐 없이 동참하시어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 정무 큰스님 주지 실상 합장

일시 : 3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 법왕사 광장 옆 기공식 현장

산사음악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11일 봉행하는 불교종합복지회관 건립 기공식을 기념하는 불자 연예인 초청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따뜻한 봄날 저녁, 흥겨운 음악과 함께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 법왕사 광장
일시 : 3월 10일(일) 오후 7시
출연 : 김범조(사회), 설운도, 김하정, 이유진, 임주리, 김성녀, 김태곤, 시명스님, 정룡스님

주최 법왕사 / 후원 MBC, 불교 TV, 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운불련

대한불교 조계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 766-3747)

한가족 한평불사 동참안내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처님의 도량을 어법하게 꾸며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도량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한가족 한평의 기도공간을 마련합시다. 법왕사가 5천평 대지 위에 연건평 3천평 규모의 불교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 3월 11일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이번 대작불사는 대구의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이 신심을 갖고 참배하는 도량이자 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화강암에 그 이름을 새겨 드리며 무량한 인연공덕은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 동참금 : 1평 100 만원

• 동참하신 분들은 가족 2명의 이름을 화강석에 새겨 영원히 보존합니다.
• 동참금은 3년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우 체 국 704056-01-000383 법왕사
농 협 150101-51-004981 법왕사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사 설

문화재 복원 신중 기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재를 보수 또는 복원하고 있다. 경주시는 2000년 12월부터 15개월에 걸쳐 6억4천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경주 남산에 있는 4개의 폐탑을 복원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석계곡 부흥사 서남쪽 늠비봉 5층석탑은 1억 5천여만원이나 들여 복원했는데도 탑신의 조화가 안맞아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비파골 3층석탑은 축대가 지나치게 높아 탑의 조망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복원된 탑은 기단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새로 만든 것이고 옛 탑재는 그 주변에 나뒹굴고 있어 뜻있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경주시 예술과는 논란이 일자 "폐탑의 복원사업은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현장지도를 거쳐 진행되어 기술적 예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며 또 복원에 앞서 실시한 발굴결과 원래의 부재가 많이 깨지고 없어져 완전한 원형복원이 어려웠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았다면 발굴을 마친 뒤 수습된 부재를 살펴 복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부실복원은 이번뿐이 아니다. 국보인 유명한 감은사지 동탑도 5년 전에 해체복원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 몸체가 내려앉았다고 한다.

문화재의 보수나 복원을 실시함에 있어 그 문화재가 지닌 원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신라인들이 세운 탑은 세찬 비바람에 견디면서도 천이백여 년을 굳건하게 서 있어 왔는데 우리 시대에 고쳐 쌓은 탑은 5년도 못돼 몸체가 내려앉는다면 우리는 선조들에게도 후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어쩌나

2월 28일 중앙승가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다. 추가모집까지 하였지만 전체 120명 정원에 겨우 70여 명만이 입학했으며, 역경학과는 단 2명이 지원했는데 타종단 비구니라고 한다.

역경학은 종단의 교육 · 역경 · 포교의 3대 사업 중의 하나로서 그 중대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자가 극소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역경학과 개설 당시부터 계속 4~5년을 30명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치유방안이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경학과의 이번 졸업생 11명 중 1명도 역경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이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역경이란 쉬운 영역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분야임이 틀림없다. 불교경론의 번역에 필수적인 언어, 즉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티베트어, 한문은 물론 국문학에도 밝은 식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차원에서 역경사를 양성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역경이 불교학의 근간이자, 불교발전의 요체임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0여년간 조계종단은 역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차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역경에 소질있는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전문기관과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임을 조계종단은 명심하기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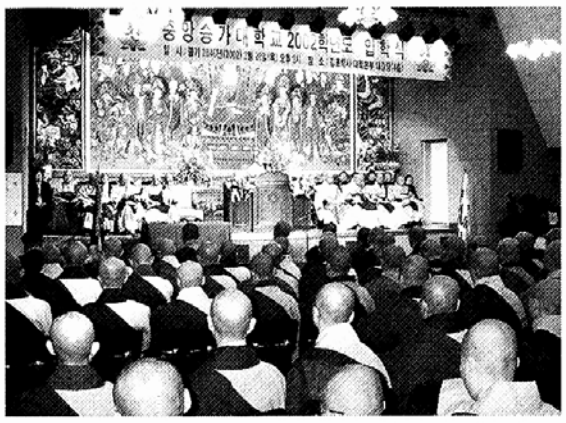
역경인력 종단차원 양성 시급

중앙승가대 역경과 신입생 2명…폐과 위기

올 졸업생 11명 전공관련 진로선택 못해

불교사학·유아교육·종무행정으로 대체 거론

중앙승가대 역경학과가 폐과위기에 놓이면서 학과 재편 및 역경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계종단이 도제양성, 포교, 역경을 3대 지표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분야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승가대학교 2002학년도 입학식이 2월28일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은 불교학과 28명, 사회복지학과 28명, 포교사회학과 9명, 역경학과 2명, 편입생 9명 등 모두 76명이다.

중앙승가대는 역경학과 올해 신입생이 2명에 그쳐 교육부 규정상 학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정원(5명)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학과 재편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부과정으로는 다소 어렵고, 이같은 이유로 신입생이 해마다 5~10명 수준을 넘지 못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승가대 안팎에서는 학부과정으로는 역경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어렵고, 따라서 졸업을 해도 전공을 살린 진로를 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다른 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1명의 올해 역경학과 졸업생중 역경과 관련한 진로를 택한 학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역경학과를 대신할만한 학부과정으로는 불교사학, 불교문화재, 유아교육, 종무행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가교육 관계자들은 역경학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역경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외에 현재 역경과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곳은 은해사 승가대학원과 화엄 · 능엄학림 정도. 그러나 이 세 곳은 전문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역경 전문인력 배출과는 거리가 있고, 역경을 연구하는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도 지난해 문을 닫아 사실상 역경인력을 양성하는 종단의 교육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역경학과 존폐문제는 사실상 종단의 역경교육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학과장 혜남스님(조계종 역경위원장)은 "불전국역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조계종 교육원 고명석 과장은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구소를 설립해 체계적인 연구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주지연수 교육미필 재임용자격 박탈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지오)는 2월2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를 열고 본말사 주지 연수 이수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본말사 주지는 4년 임기동안 매년 1회씩 모두 네 차례 교육원이 마련한 주지연수를 받아야 하며, 3번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잘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2번 이하 이수자는 재임용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스님은 주요 소임자의 대리 참석이 인정된다.

한명우 기자

직능직 종회의원 전문성 강화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비구로

선관위 시행규칙 공포

5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비구에 한해 직능직 종회의원 자격이 부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기준 및 선출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기준을 해당 직능직 분야에서 5년 이상('선원' 분야는 15하안거 이상) 전문적으로 종사한 비구로 한정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기준 및 선출기간, 선출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고,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3일전에 해당 분야 입후보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하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조계종 직능직 종회의원은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행정, 법제분야에서 각 1명씩 선출된다.

김원우 기자

템플스테이 사찰 6곳 추가

태고·천태 · 진각종…문광부에 예산신청

지난 2월 6일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25개 조계종 사찰 외에 태고종과 천태종 등 4개 종단의 6개 사찰이 템플스테이 사찰로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찰은 태고종의 신촌 봉원사와 제주 광명사, 천태종의 서울 관문사와 부산 삼광사, 진각종의 하월곡동 탑주심인당, 관음종의 서울 묘각사 등이다.

조계종은 2월 28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 사찰에 대한 예산 지원 협조를 문화관광부에 의뢰하면서, 이들 31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외국관광객들이 사찰에 체류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화장실과 샤워실 등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쌍계 · 범어사 8개 강원 졸업생 55명 배출

쌍계사 범어사 해인사 강원 등 8개 사미 강원이 2월24~26일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으로 배출된 학인은 통도사 15명, 쌍계사 12명, 송광사 9명, 범어사 6명, 해인사 5명, 불국사 5명, 수덕사 2명, 백양사 1명 등 모두 55명이다. 한편 직지사 강원은 3월14일 졸업식을 갖는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자원봉사로 꽃피는 '불심'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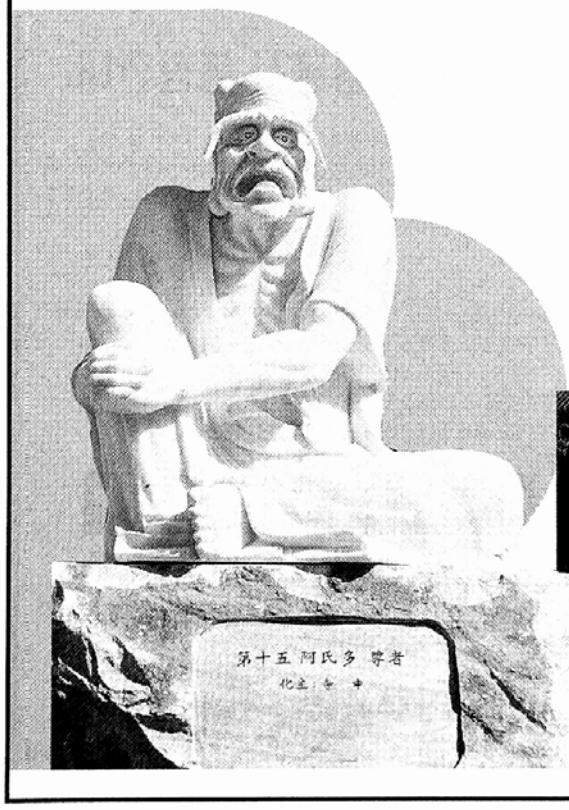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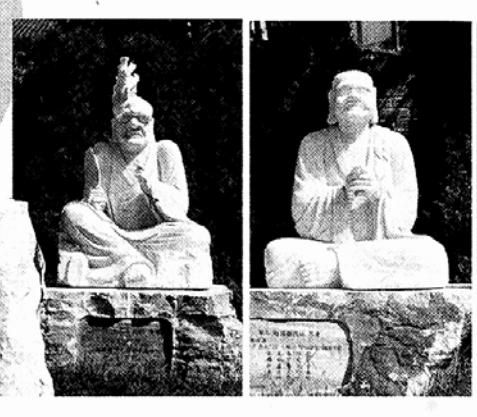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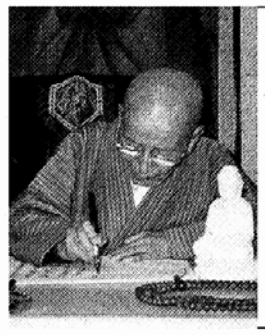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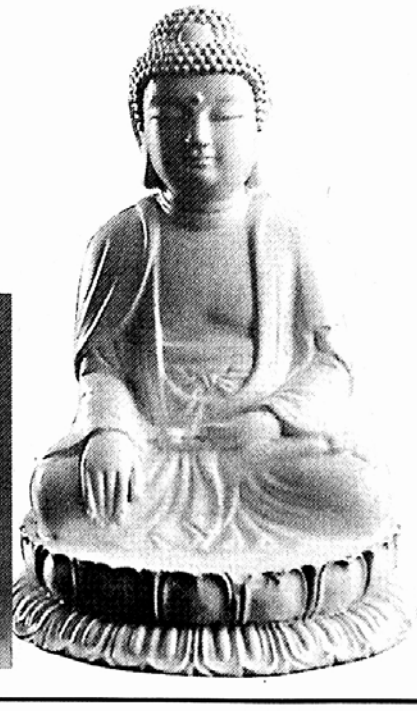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像
慈悲하심과 遠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圖像聖像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癡 西翁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신사년 동안거 해제 법어

신사년(2001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이 2월 26일 해인 조계 덕숭 고불 영축 태고총림 등 6대 총림과 전국 90개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신사년 동안거에는 90개 선원에서 2천 1백여 수행납자들이 참여했다. 조계종 5대 총림 방장스님과 태고종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스님은 해제 법요식에서 납자들에게 "결제 · 해제를 구분치 말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라"는 법어를 내렸다.

"큰 자라 몸돌리니 바다가 비좁아"



법전 스님 (해인총림 방장)

九旬禁足(구순금족)은 網禽宿巢(망금숙소)요
三月安居(삼월안거)는 驅狐守塚(구호수총)이라.
90일 동안 꼼짝않으니 그물 속 둥지의 잠든 새요,
석달동안의 안거는 무덤을 지킨 여우로다. (중략)
一年三百六十日(일년삼백육십일)에
日日安居(일일안거)하고 時時自恣(시시자자)하니
圓者自圓(원자자원)하고 方者自方(방자자방)하며
長者自長(장자자장)하고 短者自短(단자자단)이로다.
일년 365일을 날마다 안거하고 수시로 자자를 하니,
둥근 것은 둥글고 네모난 것은 네모나며
긴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짧구나. (중략)
大鵬展翅天路遙(대붕전시천로요)하고,
巨鼈轉身海水搏(거별전신해수착)이로다.
대붕이 나래를 펴니 하늘이 아득하고
큰 자라가 몸을 돌리니 바다가 비좁도다.

"봄 광명에 온갖 꽃 만발했네"



원담 스님 (덕숭총림 방장)

경에 이르기를 "心不在內(심부재내)하며 不在外(부재외)하며 不在中間及內(부재중간급내)라."
마음은 안에 있지 않으며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과 안팎에 있지 않는다 하니 말해보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萬像之中獨露身(만상지중독로신)
巍巍堂堂雲上中(외외당당운상중)
明潔若百玉之色(명결약백옥지색) 芳香如雪中之梅(방향여설중지매)
만상 가운데 홀로 몸을 드러냄이여, 우뚝 솟아 당당하여 구름 위에 있네.
밝고 조촐함은 白玉의 빛과 같고, 향기는 눈속의 매화와 같네.
心月(심월)이 홀로 둥그니 광채가 萬像(만상)을 머금도다. (중략)
默坐一念無一塵(묵좌일념무일진) 月照鐵門開飛蔵(월조철문개비장)
德崇山下無二路(덕숭산하무이로) 春來春光萬花發(춘래춘광만화발)
고요히 앉아 한 생각 한 티끌도 없음에, 달빛 아래 무쇠 철문 빗장을 여네.
덕숭산 아래 한 길에, 봄 光明(광명)에 온갖 꽃이 만발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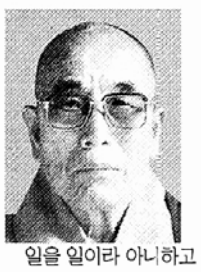
"높이 부는 바람 산위 불도다"



서옹 스님 (고불총림 방장)

雙收雙放若爲宗(쌍수쌍방약위종)
騎虎由來要絶功(기호유래요절공)
笑罷不知何處去(소파부지하처거)
只應千古動悲風(지응천고동비풍)
쌍으로 거두고 쌍으로 놓아주기도 하니 어떻게 종이 되는고?
호랑이를 타는 것은 원래로 뛰어난 공을 요함이로다.
웃어버린 뒤에는 어느 곳에 가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다못 마땅히 천고에 비풍을 움직임이로다.
參禪絶能所(참선절능소) 獨行無伴侶(독행무반려)
古月照林端(고월조림단) 高風吹嶺外(고풍취령외)
참선은 능소가 끊어짐이라. 홀로 행하여 짝이되는 동무가 없도다.
옛 달은 숲의 꽃을 비춤이라. 높이 부는 바람은 산위를 불도다.
이—악—

"해제를 반납하고 용맹정진할 뿐"



월하 스님 (영축총림 방장)

(중략)
當一不一(당일불일) 當二不二(당이불이)
旣非定慧(기비정혜) 約何定慧(약하정혜)
若問向我(약문향아) 何者定慧(하자정혜)
二三是六(이삼시육) 九九八二(구구팔이)
일을 일이라 아니하고 둘을 둘이라 않는다면, 이미 정도 혜도 아니니 무엇을 일러 정혜라 하리요.
만약 나에게 묻기를 무엇이 정혜인가 한다면 이삼은 육이요 구구는 팔십이다
둘인가 하나인가는 스스로 체득을 하고 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하나인가 둘인가를 논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다만 우리에겐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일뿐이다.
오늘 해제일이라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해제라 할 수 없는 것이니
해제를 반납하고 깨달음을 증득하는 날까지 용맹정진 할 뿐 다른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울물선 달모습 볼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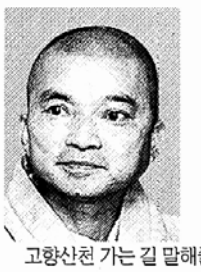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휴거헐거(休去歇去)하고
막반막연(莫攀莫緣)하라.
쉬고 또 쉬어라
모든 반연도 조금도 생각에 두지마라
좋은 반연 나쁜 반연도 맑은 거울에 티라.
우리가 다들 이렇게 모인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사대 생사사대 말하지만 쉬어야만 합니다.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면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
콸콸 흘러가는 여울물에는 달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법어 원문은 buddhanews.com 참조

"견성하면 한 티끌도 안보여"



지허 스님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座也善兮行也善(좌야선혜행야선)
寒時向火困時眠(한시향화곤시면)
家山有路無人薦(가산유로무인천)
月落松窓半夜天(월낙송창반야천)
앉아도 참선 다녀도 참선이니, 추우면 불쬐고 곤하면 자네
고향산천 가는 길 말해줄 사람조차 없으니,
달은 소나무 비치는 창문에 지는데 하늘은 한 밤중이네.
(중략)
獨坐獨行尙巍巍(독좌독행상외외) 百億化身無數量(백억화신무수량)
縱令逼塞滿虛空(종금핍색만허공) 看時不見微塵相(간시불견미진상)
혼자 앉고 혼자 가는 것이 외롭고 또 외롭더라도, 백억화신 부처가 수없이 있네
설혹 가득한 허공이 꽉 막혀도, 견성하고 나면 한 티끌도 보이지 않네.

"사찰환경 걱정않고 정진할수 있게 최선"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장 성타 스님



2월 27일 개최된 조계종 환경위원회의에서 '자연환경과 사찰수행 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장과 범불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해, 현재 조계종 환경위원장으로서 종단 환경대책을 주관하는 한편, 자연환경보전협회 이사장으로 대구 경북지역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월 28일 성타 스님을 만나 5일 열리는 범불교도결의대회 추진상황과 범불교 공동대책위의 향후계획을 들어 보았다.

◆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중책을 맡게 됐는데.

"2월 18일 발생한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과 금정산 범어사, 천성산 내원사, 북한산 회룡사 등의 사찰수행 환경 침해사건을 계기로 불자들의 열망이 모아져 사찰환경수호 범불교대책위가 결성됐다.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시기에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장과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스님들이 환경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계속 언론에 오르고 있는 사찰수행 환경파괴문제와 비구니 스님들이 폭행당한 사건의 심각함을 많은 불자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전국 2500여 사찰에 참가 권유공문을 보냈다. 1만여 불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정산 범어사, 천성산 내원사,미륵산 용화사등의 환경파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불교계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의대회도 이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28일 비구니 스님들이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를 폭행혐의로 고발했는데.

"한국불교계가 그동안 불교의 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은 물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불거져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폭행을 당했다. 불교적 가르침에 따라 참고 인내해야 하겠지만,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만큼은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대책위의 향후활동은.

"일단 범불교공동대책위는 금정산 범어사, 북한산 회룡사, 천성산 내원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될 것이다. 환경위원과 외부 환경전문가 5~6명이 참여해 금정산 범어사, 북한산 회룡사, 천성산 내원사의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사찰수행환경 파괴 예방을 위한 환경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모색하고 실천하며, 알리는 작업들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에 불교계 대표가 참여해 불교권익을 보호 · 대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조계종단에 제안하고, 이웃종단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2500여 사찰서 1만여명 참가 예상

'스님 폭행' 재발 막게 강력 대응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

남 · 북한 결식아동돕기 통일음악회

귀의 삼보하옵고,

평불협 창립 10돌을 맞아 2002 한 · 일월드컵 성공을 기원하고 남 · 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교계 최초의 통일음악회입니다.

그간 남북불교교류협력의 문을 열고 평화통일을 위해 진력해온 평불협은 97년에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 성불사(成佛寺) 인근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여 매일 7,700명분의 국수를 무상보시 해오고 있습니다.

이 통일음악회의 수입은 북녘 땅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어린이와 동포들에게 국수가 되고 남녘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밥이 됩니다.

민족이 하루 빨리 하나되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원의 마당입니다.

귀 불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따뜻한 동포애로 민족의 내일인 남북한 어린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시다.

나무통일보살마하살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정인악 / 회 장 신법타 합장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 장 김도현

통일음악회 진행 프로그램

사 회	김병조 · 김지현
제 1부	❶ 북울림 연주 - 김중자 무용단 ❷ 초대성악가 - 백소영(소프라노) 박성원(테너) [초혼 외] ❸ 법현스님 - 첼로 독주 ❹ 합 창 - Felice 합창단 ❺ 초대가수 - 이동원 · 최진호 [고향] ❻ 특별초대 - 법타스님 ▶특별 초대 연예인 – 홍보대사 위촉식
제 2부	❶ 설장고무 - 김중자 무용단 ❷ 초대가수 -송대관 [타향살이 외] ❸ 초대가수 - 최진희 [반갑습니다 외] ※ 즉석 자선 기금 전달 [연예인 대표] ❹ 초대가수 - 설운도 [평양아줌마 외] ❺ 초대가수 - 정수라 [아 대한민국 외] ❻ 합 창 - Felice 합창단 [여기는 대한민국] ❼ 합 창 - 전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외]

❋ 일 시 : 2002년 3월 17일(일) 오후 7시- 9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주 관 :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후원회
❋ 후 원 : 통일부 · 대한적십자사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민화협 · 통일연대 · 종단협 조계종 총무원 · 진각종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조계종 포교사단 불교TV · 불교방송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현대불교신문
❋ 티켓구입처
• 평불협사무국 (조계사 맞은편) ☎ 02-735-5558~9 · FAX 735-5564
http://www.bubtanet.or.kr · E-mail : bubta@orgio.net
• 명신당필방(인사동) ☎ 02-732-2800
• 불교TV 영업부(마포) ☎ 02-3270-3366~7
• 강남 구룡사(양재동) ☎ 02-575-7766
• 여시아문 서점(조계사옆) ☎ 02-732-1521
• 조계사 서점(봉향각) ☎ 02-731-2185
❋ 티켓금액
• 1층(S석) 5만원 · 2층(A석) 3만원 · 3층(B석) 2만원 · 단체 할인 20%
※ 교환권은 당일 공연 2시간 전부터 매표소 앞에서 티켓으로 바꿔드립니다.
❋ 후원계좌안내
예금주 :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한은행 324-01-106447
국민은행 006-01-0804-566

일주문



청정회합연대 사무실 개소

정각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월 27일 부산 데파트 3층 313호에서 사무실 개소식 겸 법회를 봉행했다.



'바른선거…' 서울총聯 회장

자용 수국사 주지는 2월 15일 열린 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시 총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참나 찾기…' 백일기도 회향

회정 진천 도솔암 주지는 2일 '참나찾기를 위한 삼동결제 백일기도' 회향식을 가졌다.



부산불교교육대 명예졸업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2월 22일 부산불교교육대학 4층 교육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명예졸업패를 받았다.



불교방송 다보법회 법문

권기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빙돼 법문을 한다.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2월 26일 부경대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케이블PD협 이사 선임

이수덕 불교TV 사장은 2월 27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케이블 PD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후원의 밤 행사

함종한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

법공 스님 입적 도안사 조실



서울 도안사 조실 법공스님이 2월27일 세수 85세, 법랍 68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다비식은 1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운경스님 문도회장으로 치러졌다

법공스님은 1918년 서울에서 태어나, 35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동국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64년부터 82년까지 법주사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에서 강사를 역임하며 한영 스님의 강맥을 이었다.

한명우 기자

인 사

위덕대 △일반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원장= 김무생 △경영대학원장 겸 교육대학원장= 배도순 △기획조정실장= 오영호 △교무처장= 홍욱헌 △입학학생처장=한신조 △행정처장= 홍정균 △회당학술정보원장= 김태수

"초발심 회복 역점둘 터"

부산불교실업인회 3대 회장 박수복 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침체위기를 맞은 실업인회를 활성화하고, 기업 운영, 대사회적 활동 등에서 수행을 근간으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실업인회를 만들 것입니다."

2월 25일 열린 제12차 정기총회에서 부산불교실업인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수복(57 · 대륙금속 대표) 회장은 창립 당시의 초발심 회복을 취임 역점 과제로 삼고 있다. 11주년을 맞은 실업인회의 창립회원인 박회장은 그동안 분과위원장, 감사, 부회장, 상임부회장을 거친 실무와 조직에서 인정받아 온 일꾼이다.

다른 단체와 연계 활동강화

"11년의 경륜을 토대로 10년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실업인회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박회장은 '회원 스스로의 수행'을 조직 활성화의 기본으로 꼽는다. 이를 위해 삼사순례 법회로 정례화된 월례법회에 108배 참회, 법문, 참선 등 수행 프로그램을 가미시켜 회원들의 신심 증장에 힘쓸 계획이다.

"수행하는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박회장은 수행을 통한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족한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박회장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대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46명 회원 전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불교실업인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천미희 기자

"'고층빌딩' 저지 · 중창불사 주력"

조계사 신도회 새 회장 이연숙 보살



이 회장은 신도조직 강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신도회 조직을 지역조직 · 수행조직 · 사업조직으로 특성화하고, 신도회의 보살행 강화하고, 각급 법회간의 벽을 허물어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 생각이다.

이 회장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교구본사 신도회장들 간의 모임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여력이 되면 이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구본사 신도회장들 모임 필요

"조계사 인근 고층빌딩 건립 저지를 비롯해 중창불사 등 조계사 대중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2월 22일 조계사 제16대 신도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연숙씨(64)는 무엇보다도 고층빌딩 건립 저지와 중창불사는 조계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20년 넘게 조계사를 다닌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조계사 자원봉사 신행단체인 관음회 회장을 맡아 왔다. 1962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울산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태연 초 · 중 ·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회장의 남편은 불자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태호 의원이다.

한명우 기자

"아름다운 인연 감사해요"

지담 스님의 숨은 보살행 3년



공부하며 소년가장 6명 보살펴

"나누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소년 · 소녀 가장 6명을 남모르게 돕고 있는 한 스님의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 포교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지담 스님(43)이 바로 그 주인공. 2월 21일 스님은 대학에 진학하는 정남(19)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푼푼이 모아뒀던 돈을 선뜻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어린 손자 둘을 키우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보태주려고, 절집을 돌며 탁발도 했다. 그러나 정작 지담 스님의 형편은 부전생활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공부를 한다는 것. 이처럼 스님이 학생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안암동 중앙승가대 시절부터.

"94년부터 5년간 서울불교청년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인연의 끈이 작용을 했나 봅니다. 출가직후인 99년 마침 개운사 신도님이 소년 · 소녀 가장 아이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더군요. 평생 포교의 원을 세우고 출가한 제가 '할 일이란 바로 이거구나'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3년째. '나누는 기쁨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

"본래 스님들은 '탁발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곳저곳을 돌며 시주받은 쌀을 아이들 집에 나눠주면 무척 기뻐들해요. 지난번에는 형과 단둘이 사는 중학생 영일이가 우등상을 받아왔다며 자랑을 늘어놓을 땐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뿌듯했답니다"며 스님은 즐거워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추진 감사"

티베트 링 린포체 스님 '방준위' 방문



◇링 린포체 스님(왼쪽)이 달라이라마 방준위에 칼라차크라 탕카를 전달하고 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링 린포체 스님이 2월25일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를 방문,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링 린포체 스님은 달라이 라마의 어릴적 스승이자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대 링 린포체 스님(83년 열반)이 환생한 현신(現身)으로, 87년 달라이라마와 고승들로 구성된 추대위원회에서 왕사로 추대됐다.

링 린포체 스님은 이날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달라이라마의 '한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친서와 티베트 최고의 관정의식을 담은 탱화인 '칼라차크라 탕카'를 방준위에 전달했다

2월22일 입국한 링 린포체 스님은 구룡사(2월24~26일)에서 법회를 가졌으며, 27일에는 통도사를 방문, 방장 월하스님을 친견했다. 링 린포체 스님은 6일 출국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상 받은 생도 8명중 4명 불자"

海士 졸업식 화제 … 대통령상 · 국방부장관상 등



◇사진 왼쪽부터 박경원, 권준문, 오동식, 이영구 생도.

2월27일 열린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해병대사령관상을 받은 주인공들이 모두 불자여서 관심을 모았다.

전교생 중 8명에게만 주어지는 포상에 전교 수석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영구(전산과학과) 생도를 비롯 국방부장관상 박경원(전자공학과) 생도, 합동참모의장상 권준문(경영과학과) 생도, 해병대사령관상 오동식(해양학과) 생도 등 법우회 소속 생도가 4명이나 포함된 것. 대통령상을 받은 이영구 생도는 "힘든 고비마다 법당을 찾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대통령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임관지에 가서도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경원 생도 또한 "부처님 법을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진해=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장학금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2월 23일 광주지원 법당에서 미취학아동 및 초 · 중 · 고교생 소년소녀가장 58명에게 2천2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1월 27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최로 5 · 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회 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 합창제에서 모금된 성금이다.



평불협 창립 10돌 기념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대표 법타)는 2월 22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창립 10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법의 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타 스님은 "10년이라는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 10년에는 남북불교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엄불교대학 13기 졸업식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2월 1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제13기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전주 포교사회 김해수 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장 평상 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웃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불자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불교합창단聯 회장 서정화 씨 종단협서 임명패 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월 27일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불교합창단연합회 전 · 현직 임원들에 대한 임명패 및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정화 화계사 불교합창단장이 신임회장에 임명됐다.



한국불교법사대 법사 품수법회

서울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월 2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0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개최했다. 대승종 종정 도암 스님, 임제종 종정 용화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철 법사대학장은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욕해 능히 자기 자신을 이기는 보살이 될 것"을 당부했다.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설치 2~3주전에 미리 각 지역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

불자가수회 김활선 회장 취임



대한불자가수회는 2월 27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김활선(사진) 제8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불자가수회 지도위원 일봉,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정호스님, 한국연예협회 김광진 가수분과위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김활선 신임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들의 수행정진과 자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불자 가수회의 특성을 살려 군법당,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위문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불교와 불법을 홍포하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인교사불자회 정초기도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2월 23~24일 천은사, 선암사, 향일암 등지에서 정초 기도법회 및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이호영 회장 등 회원 및 회원 가족 1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에서는 예불과 용맹정진, 성보 참배, 관음기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법회에서 서울경인교사불자회 회원들은 "불교 신행을 통한 교사의 길을 가고자 자리이타의 삶과 청소년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자"고 서원했다.



한나라당신도회 신년 대법회

한나라당불교신도회는 2월 22일 여의도당사 대강당에서 2002년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회창 총재는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부부, 불교신도회 함종한 회장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직장 직능 신행단체들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어 직장내 신행 및 포교활동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충남경찰청과 관내 14개 경찰서의 불교회가 동시 결성됐고, 제주도내 최초로 시청 불자회가 결성한데 이어 평택시청 불자회가 6일 창립된다.

충남경찰청 불교회 창립

3일 상무관서, 관내 14개 경찰서 불자회도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충남 관내 14개 경찰서가 일제히 경찰불교회를 창립해 충남지역 경찰 포교 활성화는 물론 직장 직능 신행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대전중부, 서산, 아산경찰서 등 14개 경찰서 소속 5백여명의 경찰불자들은 3일 충남지방경찰청 내 상무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경찰불자들의 화합을 다짐했다. 이로써 대전둔산, 천안, 공주경찰서 등 기존의 불교회가 조직돼 있던 5개 경찰서를 포함해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경찰불교회가 구성됐다.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이 지난해 10월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창립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 충남지방경찰청

전국경찰불교회와 연대

단체별 교리강좌·포교부 구성

불자들은 친목모임에 머물렀던 기존의 불자모임을 발전시켜 경찰불교회를 발족하게 됐다.

충남지방경찰청과 19개 경찰서 경찰불교회는 향후 미진한 조직 구성을 완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찰내 포교활동 강화와 회원 확대, 회원 자질 향상, 충남지역 연대활동 강화 등 내실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 단위의 교리강좌 개설, 포교부 구성, 성지순례는 물론 연합법회, 수계정진법회 등 대전·충남지역 불교단체 및 전국 경찰불교회와의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회원들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 및 대민지원 등을 전개한다.

한편 충남지역 경찰불교회는 전국경찰불교회의 충남지부와 지회로 공식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찰불교회는 인천, 울산, 강원, 전북을 제외한 전지역에 지부와 지회를 거느리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시·군경찰서 법당마련 총력"

충남경찰청 불교회 유한동 초대회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찰불교회는 3일 충남지방경찰청 내 상무관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에 유한동(48) 정보4계장을 추대했다.

유한동 초대회장은 "충남지역 경찰불자들의 화합과 자아 성취는 경찰불교회를 구성한 회원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모범 경찰불자로 거듭나자"고 소감을 피력했다.

유 회장은 불심이 깊은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접했으며, 현재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매월 1회 이상 인근의 둔산 세등선원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심이 돈독한 불자다.

경찰불교회 창립 이전부터 친목 불자모임을 이끌어왔던 유 회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 경찰서의 불교회를 동시에 창립하기 위해 시·군 경찰서에서 불자들을 찾는데 가장 애로가 많았다"면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활동하는 적극적인 불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시·군 경찰서에는 법당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는 유 회장은 "임기동안 관내 시·군 경찰서에도 종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첫 '시청불자회' 결성

2월23일 제석사서, 회장에 박용현 외도동장

2월 23일 제주시청불자회가 창립한데 이어 6일 경기도 평택시청공무원불자회가 창립한다. 올해들어 광양시청, 창원시청, 함양군청에 이은 공무원불자회 창립이다.

평택시청불자회(창립준비위원장 안성현)는 6일 평택시 문예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평택시청불자회는 두차례의 발기인모임을 통해 50여 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청불자회는 6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 선출과 지도법사 추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내에서는 최초로 제주시청불자회가 2월 23일 제석사에서 창립했다. 지

"제주도청 등 단체구성 지원"

평택시청불자회 6일 창립

난해 3월 창립을 추진했다가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기된 바 있는 제주시청불자회는 외도동 박용현 동장 등 뜻있는 불자들이 합심해 50여 회원을 모집했다.

제주시청불자회는 교리 학습과 봉사활동 등 회원들의 불자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회원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새롭게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서귀포시청, 남·북제주군청의 불자회 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박용현 외도동 동장은 "불교적인 소양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 불자상을 세우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에 근거한 구도적인 자세와 회원 상호간의 신행활동을 돕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과천 5개정부부처 연합법회

"유대강화·정보공유 가능"

건설교통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천청사 5개 정부부처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들은 이번 연합법회를 계기로 이달부터 매월 둘째주 월요일 구룡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회는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불자회가 공동으로 청계사, 보광사 등지에서 연합법회를 열어왔으며,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법회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불자회 강인준 총무는 "5개 부처가 함께 법회를 진행함으로써 상호간 유대감을 키울 수 있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법회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수계법회 등 일반 사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여 불자회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인설립·교수불자대회

교불련 올 사업 확정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2월 28일 대불청 만해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 예산 및 사업을 확정했다.

교불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춘·추계 학술발표대회와 세미나 형식으로 각 불교현안을 다룰 교수불자대회 등의 사업을 벌이는 한편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모임에선

복지부 보련회 운영위원 선임

보건복지부 보련회(회장 김덕중)는 2월 23일 회의를 열고 안소영 여성보건복지과장, 김유겸 한방제도담당관 등 7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했다.

1월 26일 김덕중(정신보건과장) 신임 회장을 선출한 직후 조직 정비에 나선 보련회는 이로써 제2대 임원단 및 운영위 구성을 완비하고 정부기관내 신행모임으로써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덕중 회장은 "정부부처 불자회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불자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창립8주 법회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9일 오후 1시 대구 달성 최정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최정사 주지 금봉스님의 법어와 다과회 등 회원들의 우의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임갑수 회장은 "창립 8주년을 맞으면서 봉사활동, 수련회, 환경보전 등 석불회 활동의 폭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발심하여 건전한 신행활동을 펼 수 있도록 활동을 다양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빛은 불자회 창립 3주 기념법회

한빛은행불자회(회장 소병식)는 16일 오후 4시 30분 본점 5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축하떡 절단, 다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빛은행 불자회는 창립3돌을 맞아 모임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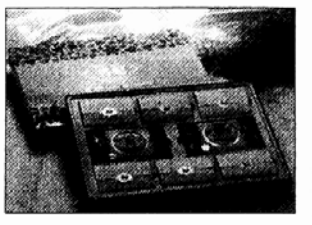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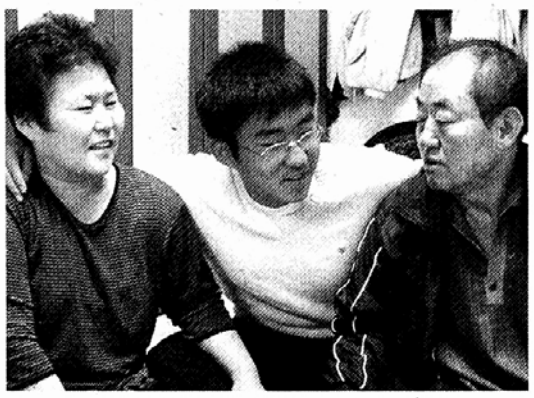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담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선규가 부모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웃고 있다.

17세 가장 선규의 소박한 꿈

"부모 병세만 호전된다면"

3평짜리 지하 단칸방. 온종일 햇빛조차 들지 않는 이 곳에서 6년 째 17살 선규네 가족이 살고 있다. 양쪽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힘든 아버지 양종식(59) 씨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곽만희(50)씨는 자신들 대신 가장노릇을 하는 선규에게 늘 미안할 뿐이다.

아빠 고혈압 엄마 당뇨

이번에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선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한다. 밀렸던 설거지는 보통 저녁을 준비하면서 한다. 아침에는 등교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방청소와 빨래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약을 챙긴다. 요즘엔 아버지의 관절염이 심해져 근심이 많다.

아버지 양씨는 집안일과 부모 돌보는 일로 제대로 자기 시간도 못 갖는 선규의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 어떤 때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을 청한다.

"아버지는 막노동에 행상, 잡부 안 해본 것 없이 열심히 사셨지만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고혈압과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조차 불편하게 됐습니다. 약이 없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죠."

선규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방바닥만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머니 곽씨는 갑자기 방구석에 쌓인 인형을 앞에 놓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곽씨는 손발이 붓고 곪아 터져 얼핏 보기에도 병세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곽씨는 그런 손으로 선규 간식비라도 마련해볼 요량으로 얼마 전부터 인형 수선을 하고 있다.

선규네 가족은 지난 96년 상계동 판자촌이 재개발되면서 쫓겨나온 뒤, 지금의 지하 단칸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 이후 그나마 양씨의 막노동으로 버텨오던 선규네 살림은 3년 전 양씨가 고혈압이 심해져 아예 일을 놓게 되면서부터 수입이 전혀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지금은 월 28만원 받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내고, 말 그대로 입에 풀칠만 하고 있는 정도다. 이번 겨울에는 연료비가 없어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뎠다.

지원금 28만원으로 풀칠

"아버지 어머니 병세만 호전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저야 젊으니까 몇 끼 굶어도 괜찮은데,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선규는 아버지가 쓸 찜질 고무팩에 온수를 넣어야 한다며 부엌으로 나갔다.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68-48 신아빌라지 지층 207호

후원방법: 전화 (02)938-8421 계좌 기업은행 282-030444-02-010(예금주 양선규)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신행 캘린더

3월 8일 (금)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 = 전통타악연구소 예술단이 벌이는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

스님들은 자기 개성에 맞는 악기를 골라 연주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규칙이 없고 박자도 맞지 않지만 점차…

공연은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은 오후 4시, 7시 연강홀. (02)708-5002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강좌' = 문화재 전문위원 안귀숙 씨, 동국대 정우택 교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이주형 교수가 강의하는, 가람배치, 탑, 부도, 불상, 불화 등 불교 예술에 관한 강좌가 열린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불교미술의 심오한 세계에 흠뻑 빠져들 것이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봉광산사 3층 강의실.(02)587-6613

■은평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금연특강' = 올 정초에 세운 금연 결심. 해로운 줄 알면서도 정작 끊기 어려운 담배를 끊는 방법을 알려준다.

강의는 오전 10시 30분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02)385-1351

3월 9일 (토)

■터사랑 '성지순례' = 초봄을 맞아 지리산 화엄사와 연곡사로 떠나는 성지순례.

화엄사는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펼친 화엄10찰 중 하나. 봄내음도 맡으며 광양 매화마을, 구례 산수유마을을 함께 둘러본다.



◇도자기를 빚고 있는 불자들.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후 9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02)725-1284

■마야문화원 '도자기교실' = 어린 시절 흙장난의 추억을 되살려 취미생활을 하며, 쓸모있는 일상생활 용품도 직접 제작해보자.

이번 강좌는 도예가 이경미 씨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인사동 문화원에서 열린다.(02)722-1050

3월 11일 (월)

■참나찾기교육원 '무료참선교육' = 도심 속에서 참선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참선수련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보자.

일상생활에 바쁜 도시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박민수 원장의 지도로 오후 7시 수색동 교육원에서 진행된다.(02)3152-4420

3월 12일 (화)

■법장사 시민불교교양대학 '불교기초강좌' = 불교예절, 불교상식, 불교문화, 부처님의 일생….

불교에 관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자. 퇴휴스님, 신공스님이 의심을 확실히 풀어줄 것이다.

참가비 4만 5천원.(02)971-0303

3월 13일 (수)

■보리수선원 '남방불교 근본사상강좌' = 위빠사나 수행으로 유명한 보리수선원은 오후 7시 30분 김재성 법사를 초청, 남방불교의 근본사상에 대한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남방불교의 교리와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자료는 스리랑카 아나틸루카 스님이 쓴 '붓다의 말씀'. 수강료는 무료. (02)517-2841

"이승 떠나는 날까지 따주기봉사할 터"

우리 절 우리 신도

수효사 '짜가엄마' 서금순 보살



◇수효사에 법회 보러 온 신도가 팔이 아프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따주기 봉사를 하고 있는 서금순 보살(왼쪽).

침주머니 들고 전국 군부대 누벼

108성지순례 단장…답사 준비·진행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짜가 엄마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수효사 신도들은 신경통, 두통, 요통 등이 도지면 약손인 '짜가 엄마'를 찾는다. '짜가엄마?' 무슨 뜻일까.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 하지만, '진짜같은 가짜엄마'란 뜻이라고 설명 들으면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고개를 끄덕인다. '짜가엄마'는, 아프거나 고민이 생기면 속시원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정도로 엄마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고 신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 별명의 주인공은 바로 서금순 보살(66). 그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수효사의 모든 행사는 서 보살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수효사가 펼치는 많은 행사중에서도 서 보살은 특히 성훈따주기 봉사를 7년째 계속하고 있다. 성훈따주기는 손바닥에서 아픈 부위와 관련된 위치를 찾아 뾰족한 침으로 나쁜 피를 빼내는 민간요법. 큰 병만 아니면 즉석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서보살은 아픈 이들에게 따주기 시술'로 의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물론 성훈따주기 봉사를 오래전부터 펼쳐왔던 수효사에는 서보살 말고도 1백여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내 병처럼 아파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에 성심성의껏 치료해 그의 손만 거치면 웬만한 통증은 씻은 듯 사라진다고 시술을 받아본 신도들은 말한다.

"아픈 이들에게 제 조그만 재주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가는 군부대 따주기 봉사때는 하루전부터 내 손이 약손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서 보살은 파주, 문산, 철원, 화천 등 전방 부대라면 7년동안 안가본데가 없을 정도로 침주머니를 들고 전국을 누볐다. 비록 한달에 한 번이지만 아들같은 군장병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하루종일 전력을 다한다. 하루에 7~8명 정도를 시술하다보면 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옷에 땀이 흥건히 배일 정도로 몸이 축 늘어진다. 하지만 서 보살은 침 봉사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천직으로 알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서 보살의 봉사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효사에서 한달에 한번씩 펼치는 인근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에서도 신경통이나 두통이 있는 노인들에게 정성껏 따주기 봉사를 한다.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종교를 초월해 아픈이가 있으면 따주기와 부황치료를 마다하지 않는다.

"불자들이 따주기법을 배워 봉사하기 위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다보니까 몇 년 못가서 봉사를 그만두는 이들이 더 많지요. 나는 이 봉사를 하면서 보살행을 펼치며 살라는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새롭게 가슴에 새기게 됐습니다."

서 보살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효사가 지난해부터 신도들의 기도 순례를 위해 시작한 '108 성지순례' 행사에서도 단장을 맡아 답사 코스와 준비, 진행까지 1인3역을 도맡고 있다. 순례에 동참한 신도들에게는 팔을 걷어부치고 직접 떡과 과일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회향을 다하는 날까지 따주기 봉사를 비롯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일이든지 몸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헌신하는 봉사를 인정받아 수효사에서는 서 보살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추천의 말

무구 스님 서울 수효사 주지



수효사는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따주기 요법을 체계화해 치료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의 군부대나 교도소 같은 일반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 아픈이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백여명 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 서금순 보살은 봉사자 중에서도 여여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환자들에게는 치료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포교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어린 신도들에게는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해주는 상담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훌륭한 점은 보살행을 펼치고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작은일에서부터 몸소 실천하려고 애쓰는 불자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란다심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율·논·선·밀교·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영어·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 **모집과정**

사미과 (沙彌科) : 사미율의·초발심자경문·치문경훈·천수경·반야심경·아함경·예불의식·법회의식
사집과 (四集科) : 서장·도서·선문촬요·방등경·계율해설·비교종교학·구사론·장례의식·방생의식
사교과 (四敎科) : 능엄경·금강경·원각경·반야경·기신론·유식론 교단사·불공의식·기도의식
대교과 (大敎科) : 법화경·화엄경·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선문염송·전등록·삼론·교리발달사·제사의식
특별과정(외국어학과) : 영어·일어·중국어(회화중심)

▣ **교육기간** : 2년(과정별 선택, 통신반 가능)

▣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 **교 수 진** : 한정섭 박사, 김호암(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종안 교수(중앙승가대학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혜인 스님(신흥사 주지) 외

▣ **강의시간** :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7~9시

▣ **접수문의** : 나란다심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나 란 다 삼 장 불 학 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 9호(작법무 기능보유자)이신 **三歸 金海崗** 큰 스님의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를 전수코저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과정 : 기초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교육기간 :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 **모집기간 : 3월20일 ~ 4월20일까지**
▣ **강의내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천수바라 작법무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중등과정	천수바라, 다게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고등과정	사다라니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연구과정	대학과정	운심게, 상커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 **강 사 진 : 한정섭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제 제9호 작법무 준보유자)**
▣ **강의시간 : 매월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 의 처 :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법기회 수행법

1. 중생의 속성을 여래의 속성으로
2. 관법-염법-의심법
3. 수행의 단계

단계에 알맞는 수행을 강조

법기회는 공부의 정진결과에 따른 수행의 단계를 수다원과(공부의 어묵동정일여)-사다함과(숙면일여 단계)-아나함과(세번뇌의 평정)-유여열반(有餘涅槃)의 아라한과-무여열반의 아라한과 등으로 구분한다.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는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여러 곳에 수행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단계에 알맞는 수행이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다원과

어묵동정 · 꿈속서도 일여 중생의 흐름 거슬러 '역류'

입류(入流) 또는 역류(逆流)라고 번역하는 수다원과는 어묵동정간이나 몽중에도 삼매와 삼매관성이 이어지는 수행단계를 말한다. 이 수행단계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입류'라 하며 중생의 흐름을 거스른다고 하여 '역류'라고도 한다. 수다원과는 의식이 있는 때는 공부가 거의 완벽하게 이어지는 수행과위(果位)이다. 이러한 수행자가 삼매에서 경계를 접하게 되면 삼매관성 상태에서 경계에 대응하다가 그 경계가 끝나면 순간적으로 무기에 빠졌다가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즉, 삼매관성이 끝나는 즉시 삼매에 들지 못하고 삼매관성이 끝날 때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삼매에 들게되는 수행단계이다.

사다함과

깊은 잠속 삼매상태 지속 도달하기 가장어려운 단계

숙면시에도 수행이 한결같아지는 수행단계인 사다함과는 일왕래(一往來)라고 번역한다. 수행자가 수행방편의 삼매와 삼매관성이 어묵동정간에 일여하고 몽중에도 일여하게 되면 드디어 깊은 잠 속에서까지 삼매가 한결같이 이어지는데 이를 숙면일여(熟眠一如)라고 한다. 사다함과위는 수행자가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고비인데 이는 호흡으로써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다원과의 수행자가 호흡에 수행방편을 결부시켜 항상 정신차림을 유지하게 되면 삼매관성이 끝날 때 무기에 빠지지 않고 바로 삼매에 들게 되어 사다함과에 이르게 된다.

사다함과는 삼매상태에서 갑작스런 경계(갑자기 벼락이 치는 때 등)를 접하게 되면 삼매가 순간적으로 깨어져 무기에 빠진 다음에 그 경계가 번뇌로 생주이멸을 거친 후에 삼매관성이 붙어주게 된다. 즉, 사다함과에 이른 수행자는 갑작스런 경계를 접하게되면 삼매관성이 시작되기 전에 삼매관성이 붙어주지 않는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다함과는 갑작스런 경계에 접하면 삼매관성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경계가 순간적으로 번뇌가 되는데 이를 세번뇌라 한다. 사다함과 이전의 수행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와같이 찰라간에 경계가 번뇌가 되지만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 세번뇌는 찰라간에 무기에 한번 빠졌다가 한 번뇌만 일어나는 수행단계이므로 이를 일왕래라고 한다.

"금강경은 무여열반 이끄는 법문"

법기회 강정진법사



"〈금강경〉은 유여열반 아라한을 무여열반 아라한으로 이기 위한 법문입니다."

현재 〈금강경〉 해설서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법기회 강정진(69) 지도법사는 "〈금강경〉의 수지독송이란 다름 아닌 부처의 일상사인 무념과 반야의 구사"라며,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구절들에 대한 논리정연하고도 명쾌한 설명을 붙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 법사에 따르면 유여열반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이끌어온 자신의 주체인 가아는, 성품이 드러난 후에도 여전히 4상(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형태로 남아 주체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소멸하는 이치와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성품이 주체가 되어 법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금강경〉 법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은 중생의 속성인 무기와 번뇌가 모두 평정된 상태의 가아로서 중생의 가아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금강경〉의 유명한 4구게중 한 구절인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서 '其心'은 유여열반 아라한이 돈오견성했을 때 나타난 성품을 가리키며, 결국 이 구절은 수행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진아인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당혹스러워할 때 그 성품을 잘 쓰는 법을 일러준 말이다.

13세때부터 수행… '영원한 大自由人' 저술

강정진 법사는 일찌기 13세에 수행을 시작해 33세에 수행이 자나깨나 한결같은 경지(寤寐一如)에 이르고, 그 후 12년간 하루에 18시간, 나중에는 20시간 이상 좌선하는 대수행력을 보여 주었으며 마침내 45세 되던 1978년 화두를 타파하고 표충사 내원암 해산(海山)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 〈영원한 大自由人〉(경서원 刊)을 펴내면서 법기회와 서울대 불교수행모임을 지도하고 있다.

아나함과

무기·번뇌 불망·불매로 평정 세번뇌 극복…불퇴전의 경지

불환(不還)이라고 번역하는 아나함과위에 이르면 모든 무기와 번뇌는 수행방편의 불망과 불매로 평정되어 다시는 중생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환이라고 한다. 즉 아나함이야말로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이다.

사다함과의 세번뇌는 염념상속하는 삼매로는 막아낼 수 없다. 오직 의심법(話頭法)으로 삼매를 고밀도화시키면 삼매관성도 고밀도화되어 갑작스런 경계에 접하더라도 무기에 빠질 틈이 없게 되고, 삼매관성도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세번뇌를 평정하고 아나함과에 도달하게 된다. 아나함과는 비록 중생의 속성인 무기와 번뇌가 모두 수행방편의 불망과 불매로 평정되었지만 불망과 불매의 대상이 수행방편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 진아인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므로 수행방편을 밀어 낼 수 있는 극적인 경계가 등장해야만 아나함을 벗어나게 된다.

유여열반

돈오견성…수행자 眞我드러나 정진 완료, 假我 소멸시켜야

유여열반 아라한은, 아나함이 극적인 경계의 등장으로 수행방편이 문득 밀려나면서 진아가 드러나게된 수행자를 말한다.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극적인 경계가 들어오는 순간인 찰라간이므로 돈오(頓悟,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말하며, 성품이 드러난 것을 성품을 본다고 하여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중생은 진아(眞我)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아(假我)가 주체역할을 하게 되고, 수행도 역시 가아가 주체가 된다. 따라서 유여열반의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이끌어오는 주체는 가아였으며 견성하는 순간에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성품을 인식하는 주체도 역시 가아이다. 유여열반 아라한은 드러난 성품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품은 드러났지만 그 이전과 같이 가아가 주체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아의 주체역할은 성품이 드러났으므로 인하여 자신이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게 된다.

유여열반에 이르면 수행자가 노력으로서 수행정진하는 것은 끝났으며 가아가 소멸되어야 하는 이치와 방법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때에 법안(法眼)을 갖고 있는 선지식의 한 마디만 들으면 그 말이 허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가아를 소멸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수행자 자신의 노력으로는 쉽게 알 수 없어 그것을 알아내는데 대통지승불과 같이 십겁(十劫)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때 유여열반 아라한 법문이 바로 〈금강경〉이다. 돈오견성한 수행자가 비록 성품은 드러났지만 그 이전과 같이 가아가 남아있으므로 유여열반 아라한이라고 명명하고, 가아가 주체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法)이 있으며 윤회를 하게 된다.

무여열반

무념 · 반야 구사하는 경지 부처속성으로 바뀌며 성불

유여열반 아라한이 가아가 소멸되어야 할 이치와 방법을 깨닫고 가아가 소멸되면 불망(不忘)되고 불매(不昧)하는 성품이 주체역할을 하게 된다. 성품이 주체역할을 하게 되면 성품은 불망과 불매로써 부처의 법(佛法)인 무념(無念)과 반야(般若)를 구사하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성품을 성품으로 부르지 않고 '법신'이라고 부른다. 불망과 불매를 속성으로 하는 법신은 중생의 속성이 완전히 부처의 속성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성불이라고 하며 무상정등정각심(無上正等正覺心)을 얻었으므로 '득(得)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라고 말한다.

즉 부처님의 법신이 속성을 대응시키지 않으면 무념이며 경계에 대응시키면 반야가 된다. 따라서 부처님의 모든 일상사는 무념 아니면 반야인 것이다. 결국 '부처'는 법신을 불망되게 하고 불매하게 하는 속성과 그 속성으로써 무념과 반야라는 일상사를 구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발보리심(發菩提心)

3월-바라밀의 달
- 발보리심
- 발보리심의 단계
- 창조적 자기변화
- 바라밀의 완성



◇무료투약 봉사를 하고 있는 물자약사보리회 회원들.

바라밀행의 선행요소

"보리심은 우리 본마음이며 주인공"

욕심버리고 남위해 살기 서원해야

보리심(菩提心)을 발한다는 것은 부처를 이루려는 모든 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이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수행과정인 바라밀(波羅蜜)행의 선행 요소다. 계 · 정 · 혜 삼학의 닦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리심 없이 다른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참선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하면서도 보리심을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보리심을 내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 〈화엄경〉에서도 "보리심을 내면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물론 보리심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리심은 세간의 재물이나 명예 등 다른 것들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출발점은 모든 욕망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리심을 내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남을 위해 살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어쩌면 보리심을 내는 일은 현대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세간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 보리심을 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 따위와는 영 멀어보이는 길이니까.

불자약사보리회 유효순 총무(40)의 경우를 보자. 보리심이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출세간적인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 총무는 지난해 12월부터 생업을 제쳐두고 매일같이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40명의 불자 약사들과 함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을 해오고 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리심이라는 것이 있으며, 보리심은 우리의 주인공이자 우리의 본 마음이다. 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리심은 하나의 향을 피우더라도 백 명의 중생을 생각하며 피우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보리심 없이는 아무리 수행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깨달음으로 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명우 기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극락장엄경) · (화 엄 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 (1)(2) · 법화경(1)(2)(3) · 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통현장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 (1)(2) · 화엄경 약찬게, 법성게 · 화엄십지품 (1)(2)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사제법 · 12 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태소지관	송찬우 교수	천태소지관 · 금강경 · 대승기신론 · 능엄경(A반)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팔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강독, 잡아함강독, 보리도차제론강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2년 2월 1일~ 2002년 3월 2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3월 4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인도티벳어학과 : 2002년 3월 8일(금)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불교대중 교육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2002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일반의식 ◇장례의식(2)……임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 (1년) • 연구반 30명 (1년) • 시다림반 30명(1학기)	• 한글불교 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2002년 3월 9일 (토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1:00~3:00 • 매주 수요일 오후7시(시다림반)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 함)

3. 입 학 금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732-1207

5.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 의식 교육도량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봄반)
2.교육장소	동산 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2년 3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 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불교대중 교육도량 동산반야회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⑱

별과 생명

인간 우주문명체의 하나

새벽별보고 깨우친 불법 세간 어디에나 적용되며 우주 곳곳에 부처 존재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까지 화성관측에서 화성표면에 긴 줄무늬가 존재하며 특히 나란한 줄무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물이 귀한 화성에서 화상인이 극 쪽으로부터 적도 쪽으로 물을 끌어 들여 농사를 짓는 관개수로로 보고 '카날'이라 불렀다. 이러한 주장에는 길이가 수천km나 되는 운하를 많이 건설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지적 생명체가 화성에 있다는 믿음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898년에 영국의 H.G. 웰스는 '우주전쟁'이란 소설을 썼고, 1938년 미국에서는 이것을 극화해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해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대형 망원경에 의한 관측에서 '카날의 존재'는 부정됐지만, 화성 생명체의 존재여부는 계속 큰 관심이 되어오고 있다.

기원전 3세기 회람의 에피쿠로스는 "우주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들만이 아니다"라고 했고, 2천년 전 로마의 루크레티우스는 "외계에도 다른 인간과 동물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구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다. 1862년 파스퇴르는 생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오파린은 유기물의 합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자연발생설을 주장했다. 1953년 밀러와 유레이는 암모니아, 메탄, 수소, 수증기 등을 혼합한 상태에서 강한 전기 방전을 일으킴으로써 생명 합성에 중요한 유기화합물인 아미노산 등을 만들어 냄으로써 오파린의 이론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먼 과거에 지구 대기는 암모니아, 메탄, 수소, 수증기 등을 포함한 환원대기였고, 여기에 강한 번개가 치면서 대기 중에 유기화합물을 생성시켰고, 이것이 비와 함께 땅에 떨어져 내린 후 따뜻한 물가에서 다른 무기물과 화합하여 중합체를 이루면서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환원대기설이다. 그러나 초기 지구형성 시기에 일어난 수많은 운석과 혜성 충돌을 고려할 때 지상에 환원대기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1972년 호주 머치슨 지방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한 결과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됐고 이 중 5개는 지상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성간물질의 전파관측에서 60종 이상의 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들은 생명현상은 우주에서 보편적 현상임을 보이는 증거들이다.

그러면 지상의 생명의 씨앗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희랍시대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물, 불, 흙, 바람으로 보았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 이어오면서 지상계의 생명현상도 이런 4대 요소로 이뤄졌다고 믿어 왔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구성 성분은 지구 전체의 구성성분이나 또는 지구 대기의 구성성분과 같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는 인간의 구성성분은 태양이나 별, 성간 물질의 성분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지상 생명의 씨앗은 지구가 형성된 후 40억 년 전부터 미행성에 속하는 수많은 혜성이나 운석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물과 유기화합물을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전달돼 지상에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것이며, 이 이론을 외계 유입설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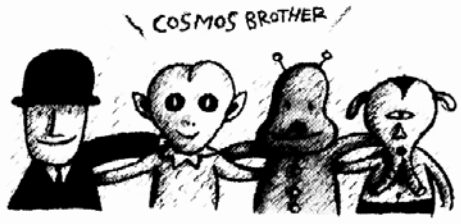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주 내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중에는 우리 인간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는 행성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며, 또 고도로 진화된 지적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1975년에는 미항공우주국 주관으로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계획을 수립했고, 1995년부터는 세계적인 민간단체가 '불사조 프로젝트'라 부르는 외계 생명체 탐사계획을 세워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중반부터는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관측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 이들 중에는 진화된 지적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왜 중요한가? 첫째 우리 이웃인 형제 자매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생명현상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둘째 폴 데이비스의 말처럼 과학이 물질문명의 발전이란 미명 아래 인간에게서 약탈해간 존엄성을 인간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국한된 우주론적 인간원리는 우주론적 문명체 원리로 확장될 것이며, 또한 세존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친 것처럼 불법은 우주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그리고 부처도 이상 더 지구인만의 부처가 아니라 우주적 부처로서 우주 곳곳에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깨우치게 될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외모 치중 병든 소비문화

청소년들의 명품중독증

'명품바람'이 청소년들의 세계에서도 거세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추세는 거의 '광풍'에 가깝다. 과거 같으면 일부 부유계층이 주고객층이었으나 이제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명품만을 선호하고 집착하는 풍토도 문제지만, 고급 브랜드 구입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증폭된다. 방학내내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 명품을 꼭 사고 마는 '자립적 열성파'에서부터, 뜻맞는 친구들과 '명품계'까지 만들어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의기투합형', 이런 방법조차 여의치 않으면 가짜라도 걸치고 보는 '눈속임형'에까지 그야말로 가지각색으로 명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명품 구입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저급한 자기 현시욕에 있다. 여기에다 유행만을 추구하는 소비문화,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대중매체가 가세함으로써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적인 치장에 혈안이 되고 있는 요즘 사회의 삐뚤어진 단면이다.

▨탐욕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육바라밀의 큰 장애여서, 능히 보리심을 태워 없앤다. <육바라밀경>

▨재물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아껴 지켜 보호하고 감추어 둔다. 그러나 그들은 곧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번민하니, 마음에는 곧 어리석음이 생긴다. <중아함 고원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그것을 알고 족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욕망의 그물이 씌워지고, 애욕의 덮개가 덮이고, 어리석음이 마음을 결박한다면,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법집요송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①

불법에 특별한 것은 없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마음으로 체험 · 확인 · 밝히는 것

앞으로 1년간 50회에 걸쳐 <임제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선공부에로 이끄는 가르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 당(唐) 나라 시대의 임제의현(臨濟義玄; ?~867)과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임제록(臨濟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들을 소개하는 구차한 이야기를 되풀이 하지는 않는다. 다만 <임제록>이 선공부(禪功夫)의 가장 뛰어난 지침서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 받아왔다는 사실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임제는 황벽회운(黃檗希運)의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황벽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 임제가 깨달음에 이르는 이야기는 선공부하는 이들에게 여러 면으로 좋은 암시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한다.

임제는 황벽의 문하에서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정진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어느날 수좌의 권유로 방장스님인 황벽을 찾아 법을 묻게 된다. 임제는 황벽에게 '불법(佛法)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임제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벽은 몽둥이를 들어 임제를 때렸다. 세 번을 이렇게 물어서 세 번 모두 두들겨 맞은 임제는, '왜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때리기만 하는가'하고 의아히 여기고 불만스러워 한다. 결국 임제는 때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황벽과는 인연이 없다고 여기며 황벽을 떠난다. 그리하여 고안(高安)의 대우(大愚)를 만나 황벽이 몽둥이로 때린 것이 바로 임제의 질문에 대한 가장 친절한 대답이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서야 비로소 임제는 황벽의 뜻을 알아차린다. 황벽이 몽둥이를 휘두른 뜻을 알아차린 임제의 첫마디는, '원래 황벽의 불법에 특별한 것은 없군!'이라는 감탄이었다.

불법의 분명한 뜻을 물었는데, 왜 황벽은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몽둥이를 휘둘러서 임제의 말을 막았을까? 황벽의 이러한 행동이 선문(禪門)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황벽의 몽둥이가 임제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불법의 분명한 뜻은 말이나 생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오직 마음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여 밝힐 수 있을 뿐이다. 말이나 생각은 이미 이름과 뜻으로 고정된 상(相)이니 살아 있는 마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것은 살아 움직이는 마음 그대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마음에서 보면 말이나 생각도 살아 움직이는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익혀온 습관적인 의식에 따르면 말과 생각과 마음은 각각 다른 이름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진 다른 물건이다. 의식은 말과 생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 사물은 말과 생각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 마음도 말과 생각 속에서 마음이라는 이름과 뜻으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실제 살아 있는 마음 그대로는 오히려 말과 생각에 가리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범부의 상황이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우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말과 생각을 치워야 한다. 선에 입문하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말과 생각을 중단시켜서 내려놓게 만드는 수단으로 휘두른 방망이가 또 다른 역할도 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마음을 직접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티끌만큼의 차이도 없다. 몽둥이를 휘두른 것이 마음을 바로 나타낸다는 이 말에 즉각 계합되어서 달리 의심이 없어야 비로소 선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원래 불법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는 임제의 말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The main statue and attendant Buddhas 본존불과 협시불

관세음보살 Avalokitesvara(compassion Bodhisattva) 지장보살 Ksitigarbha(Bodhisattva of suffering) 대세지보살 Mahāsthāmaprāpta(Bodhisattva of power)

The main hall generally enshrines three Buddhas. The main statues is in the center. Left and right of the main statue, there are attendant Buddhas. The main hall is called 'Daeung-jeon' or 'Daeungbo-jeon', the central figure is Sākyamuni, the historical Buddha and attendant Buddhas are Manjusri and Samantabhadra. Manjusri Bodhisattva is the symbol of wisdom, Samantabhadra Bodhisattva is the symbol of action(or practice).

Sakyamuni is usually flanked by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If Amitābha Buddha is main statue, the attendant Buddhas are Avalokitesvara and Mahāsthāmaprāpta.

대웅전에는 보통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양 옆에 협시불이 있다.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의 주불은 보통 석가모니부처이고 협시불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한다. 석가모니 옆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진다. 주불이 아미타부처일 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진다.

제4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4th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주 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응용분야 포함)
진각종 교학 (진각종학과 회당사상 관련)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2년 4월 15일(월)
당선작 발표 – 5월 6일 발표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11월 22일(금)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3편 · 밀교분야 3편, 진각종 교학 2편, 각 200만원
▶ 접 수 처 : 우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 jingak. or. kr
e-mail : jaemi17@freechal.com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최 :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참선교육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2권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법도, 사빈주, 동념즉과 정념즉과,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1, 2, 3권이 3월에 출판됩니다. 먼저 인쇄해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교재이기 때문에 꼭필요한 분에게만 보급하기 위하여 300질 한정판으로 제작하오니 구입에 뜻이 있는 분은 미리 송금한 후 전화주시면 3월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대량 제작 후 불교서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 1질(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736-4339

※ 56기 참선교육 : 2002년 3월 12일(화) ~ 4월 9일 (화) – 5회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중앙승가대 18회(96학번)동문모임

귀의 삼보하옵고
어느 듯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동문수학하던 많은 도반스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방에서 수행정진과 교단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지만 졸업 후 첫 모임을 개최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 건
▶ 모교 후원에 관한 건
▶ 차기 임원진 선출에 관한 건
▶ 기타

◇ 일 시 : 불기 2546년 (2002) 3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강릉 경포산장콘도 ☎033-644-7123
◇ 문 의 : 033)661-5878, 011)320-5070

중앙승가대학교 18회 96학번
회장 현종 합장

목어 사형제도의 찬반논란



최근 우리사회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그 논리는 사형제도 자체가 사회라는 집단을 앞세운 또하나의 살인이라는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수들이 격리된 공간에서 참회와 징역을 통해 사회에 진 빚을 갚고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혹자는 이런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필자는 동감한다. 인간의 생명, 아니 미생물의 생명까지도 존귀한 것이며, 생명의 존엄성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생명체를 위해하는 직업, 즉 무기매매, 독약매매, 인신매매 등을 불교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심지어는 인간의 자율과 존엄성을 규제할 수 있는 재판관이나 사형집행인 등의 직업도 좋지 않다고 하셨다.

필자는 불교도들이 앞장서서 사형제도에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생명에 대한 찬양은 그들이 평화와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설사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통감하고 범죄자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어야 공업중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닌가.

가리왕은 옛날 자신의 품속으로 날아든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독수리에게 자신의 몸을 대신 주었다. 부처님 전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불교도들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얘기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사형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 역시 소중한 만큼 참회와 반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업의 윤회를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란 점에서도 이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기를 바란다.

차차석(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불자의 생각

합장인사



100명이 참여한 붓다뉴스 설문에서 합장 인사를 꼭 한다고 답한 불자는 21명인데 비해 가끔 한다고 답한 불자는 70명이었다. 합장인사를 하는 경우도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서 한다는 답(49명)이 앞섰고 누구에게나 한다는 답은 24명, 스님에게만 한다는 답에는 22명이 클릭했다. 합장인사를 잘 하는 불자들도 분위기를 가린다는 얘기다.

"꼭한다" 21% "어색하다" 20%

합장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2%). 상대방이 당황할까봐 합장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답도 적지 않았고(37%) 어색해서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였다. 임연태 기자

사회·언론 '자비교육학교' 돼야



구승회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뉴스와 신문의 1면 기사는 청소년들에게 '군인은 폭력집단이다' '권력은 나쁜 것이다' '어른의 언행은 일단 의심해 보라!' 한마디로 '누구도 믿지 말라!' 고 가르쳤다. 청소년들은 인과응보라고 반박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군인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며, 권력은 정당한 권위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어른은 전통을 연결하는 헤르메스(hermes)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와 언론이 '자비를 가르치는 거대한 학교'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중고생 1,700명과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지표에 대한 의식과 실천수준을 조사해 2월 21일 발표한 결과 청소년들의 도덕성 인식과 그 실천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수를 보여주는 아주 사실적인 지표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도덕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후기-기술사회의 문화현상에서 몇 가지 거시적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주의를 확대하는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세계를 찬양하는 이들은 컴퓨터가 '가상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화 분절화시킵 따름이다. 첨단 네트워크 기술이 가상 '공동체'를 마치 면직물처럼 조밀하게, 거미줄처럼 질기게 엮어낸다 하더라도, '부재자들의 연대와 결속'이 면대면(face to face)의 의사소통이 주는 비언어적 소통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둘째,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가 즉각적이고 몰가치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도덕은 적절한 물리적 강제와 부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작동한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착종을 불러오는 디지털 문화는 현실의 강제와 부자유로부터 '원초적 욕망'을 배설할 수 있는 무도덕적 공간을 확장한다. 디지털 문화는 이번 조사에서 선택된 18개 항목들 중에서 특히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 환경보호, 성윤리 의식에 치명적이다.

도덕지수 크게 떨어져

"권위 사회통합의 확실한 끈"

"붕괴된 도덕·가치 복구해야"

셋째, 국가 권위의 붕괴이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의 붕괴는 십 수년 전에 이른바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한 권위마저 '보수', '반개혁'으로 폄훼했던 군사정권부터인 듯 싶다. 권위는 전통에 뿌리내려 있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든든한 끈이다. 경찰, 소방수, 선생님의 권위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너그러운 양심의 처벌만 따르는 도덕적 강제가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넷째, 가족가치의 급속한 해체다. 지난 50~60여 년 동안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줄기차게 주장되어 왔다. 그것이 모든 인간 해방, 여성해방, 심지어는 자연해방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은 가족을 해체하였다. 가정 이외의 사회적 친화 공간이 없는 문화에서 가부장적 권위의 타도는 청소년들을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는 무도덕의 공백상태로 내몰았으며, 그들은 거기서 도덕 부재의 '도착적 쾌락'을 얻는다.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은 지난 수 십 년간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9시

열린마당 군불교 발전방향

조계종 군불교위원회는 군불교 진흥회 해를 맞이 1일 대전 호국자운사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와 군불교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발표문을 요약 게재한다.

전인구(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2000년 2월 25일, 기존의 군불교 신도조직을 연합한 전군차원의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교신도회)가 창립 이후 각 부대별 신도회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신도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불교신도회 활동에 대한 군불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각 제대별 신도회장 등 소임을 맡은 간부불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군불교신도회 본부와 예하 신도회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군불교신도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당 중심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병과 군법사를 연결하는 군불교 전문가 육성, 군종병의 불교소양교육 강화, 신도조직과 관리의 전산화, 예비역 법사 활동 지원 등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과 교무금 보시와 운영 등의 기본적인 여건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전출입이 잦은 간부불자들에 대한 신도관리의 체계화와 불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교무금 보시 및 관리는 군불교신도회의 역점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개선노력과 함께 군불자들의 신행자세 변화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불자들이 지금까지의 개인신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대승적 차원의 신행활동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법사와 간부불자, 군종병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군불교 발전을 위한 절대명제가 될 것이다.

군법사·간부·군종병 긴밀

강대남(3사관학교 군법사)



2년 3개월에 걸쳐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통해 입대한 장병 7천여명을 조사한 종교현황과 국방부 군종감실에서 조사한 종교현황에 따르면 군불교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

입대자들의 종교는 불교 20%, 개신교 33%, 천주교 9%, 무종교 38%로 나타났다. 종교인만을 분석했을 경우 개신교가 절반이 넘는 53%, 불교가 33%, 천주교가 14%로 개신교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대 당시의 종교인 분포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개신교의 압도적인 증가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같은 부대 장병들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불교 26%, 개신교 62%, 천주교 12%로 나타났다.

수계운동 대대적으로 펼쳐야

개신교는 2020년 75%의 국민이 개신교를 갖게 하자는 '비전 2020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대를 중점적인 선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1천여 군교회에 대해 년1회 이상 군부대 교회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편지·책자 선물을 우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선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불교는 속수무책이다. 군법당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자체적으로 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원사단급 이하 부대에는 군법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 만으로 군불교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 범불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인은 대대적인 군불자 수계운동을 제안한다. 수계는 불자로 살겠다는 서원이며 발원이다. 현재 군불자들의 수계현황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계비율이 높아질때 불자들의 신념화, 내면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김대현(25사단 군법사)



1999년 군승으로 임관해 연대법당의 법사로 보직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내무반을 방문해보니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성경과 찬송가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불교서적이나 책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때 생각한 방법이 주보이다. 매주 주보를 만들때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종교방에 들어가보니 4백여 편의 종교칼럼이 올라 있었다. 주로 목사와 신부의 글이 대부분이었고, 불교 칼럼은 겨우 6~7편에 불과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에 '젊은 법사의 불교이야기'라는 칼럼을 만들어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독자들이 한두명씩 늘어 두달이 지나자 50여명의 회원이 생겨났다. 그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낯선 절에 찾아가지 못하는 젊은층이었다. 마침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자, 그들을 군법당에 초청했다. 군법당과 인연을 맺은 회원들은 이후 3주마다 군법당을 찾아와 병사들과 시간을 나누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이제는 이들의 발원으로 사이버 도량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홈페이지 회원은 벌써 2천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지금도 군법당의 여름·겨울불교학교와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전역 후에도 불교를 버리지 않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젊은 불자들을 군포교와 연결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자와 군법당, 현역병과 전역병을 연결하는 방편포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젊은층에 친숙해있는 인터넷포교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이 21세기 정보화사회, 군포교의 중요한 현장이 되리라 본다.

젊은층 포교프로그램 개발 시급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멸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 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 에 쓰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 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꽃입 제코특허(특허 제122168호) / 칼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5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불교도 마하보디寺院 싸고 분쟁 재연 힌두교도

강제퇴거 4스님 단식투쟁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둘러싼 불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해묵은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다. 마하보디 사원에서 성직을 수행하던 4명의 스님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사원에서 밀려나게 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어서 이들 스님들은 '죽음에 이르는 단식'을 선언했다.

비하르 주정부는 단식중인 스님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료진의 보고에 따라 입원명령을 내리고 경찰을 투입했으나, 스님들은 입원을 거부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스님들은 자신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이외에도 '마하보디 사원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장 깔리짜란 야다브(Kalicharan Yadav)씨의 전횡과 성지 내에서의 음주행위 등에도 저항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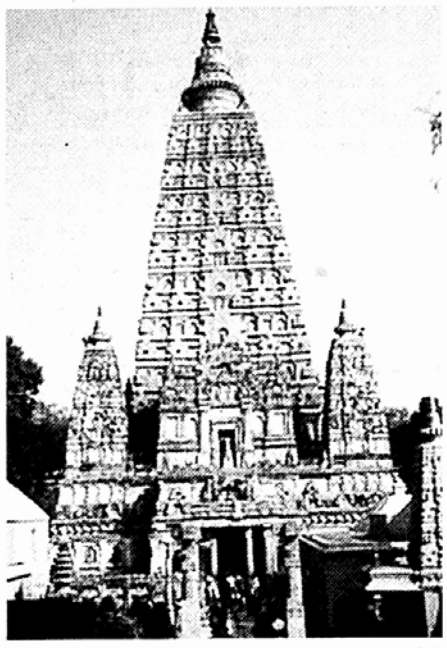
마하보디 사원 경내의 요사채에 기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사무국장 야다브 씨는 이들 스님들의 해직과 퇴거는 이미 지난 11월에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해직시킨데 대한 합당한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11월에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2개월 이상이 지난 올해 1월 중순에야 집행하려고 했던 점 등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결국 12일 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결과, 운영 위원회는 스님들 중 2명을 복직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서로 자주 싸운다'는 이유로 몇 개월 간의 감시 기간을 거쳐 정식 복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스님들의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표면적인 미봉책일 뿐이고, 마하보디 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불교인들의 의견이다.

이번 스님들에 대한 야다브씨의 '실력행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그 근본적 이유를 사원의 운영권을 놓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교도와 힌두교도 사이의 불협화음에서 찾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원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사원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8명의 운영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불교도 중에서, 4명은 힌두교도 중에서 임명되며, 위원장은 가야(Gaya)군 군수가 맡되, 군수가 힌두교도가 아닌 경우에는 비하르 주 정부가 힌두교도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운영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힌두교도들이 마하보디 사원에 대해 갖는 종교적 의미는 불교도들이 갖는 의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힌두교에서 가야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힌두교의 주요 경전 어디에도 마하보디 사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힌두교는 세계종교로 성장하여 힌두교와는 무관한 별개의 종교이며, 세계 불교도의 성지에 자리잡고 있는 불교 사원이 힌두교도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도 부다가야= 이지은 통신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의 전경.

불교도 "불교성지 … 타종교 관리는 어불성설"

힌두교도 교리 내세워 "운영권 확보 문제없다"



전일본불교회 새회장단 구성

전일본불교회는 지난 1월 31일 이사평의원회를 열고 이사장에 모리 와끼유(森和久 · 사진 왼쪽) 조동종 의회의장, 회장에 오오야이 코우신(大谷光眞 · 오른쪽) 정토진종 본원사파 문주(門主)를 선출했다. 모리 신임 이사장은 1월 31일 취임회견에서 네팔 룸비니의 마야당 복원과 종파간의 화합을 역설했다. 오오야이 회장은 일본불교가 세계적인 문제와 일본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평화 기원의 종 타종법회

日 고려사, 내달 7일 월드컵 성공 기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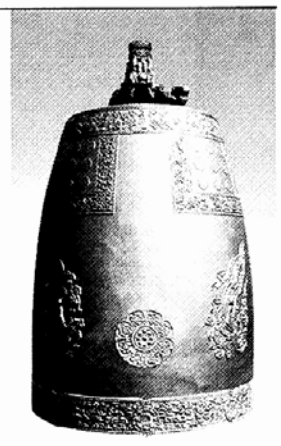


◇태연 스님

일본 교토(京都) 고려사가 4월 7일 세계평화기원의 종 타종법회를 봉행한다. 종각 낙성법회를 겸해 봉행되는 이 타종식에서는 한일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영산대재와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20여년만에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한국의 종장 원광식씨가 제작한 이 종은 새천년의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중량이 2001관이다.

고려사 관장 태연 스님은 "이번 평화기원의 종 타종식은 세계 평화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염원을 공고히 하고 전쟁(제2차대전) 희생자 추모 및 유골의 인도적인 송환에 관한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476-7301 임연태 기자



◇'세계평화 기원의 종' 모델.

만문대장경 200년만에 인경

북경 고궁박물관, 20질 인쇄

중국 북경고궁박물원이 청대 조판인쇄기술을 대표하는 〈만문대장경(滿文大藏經)〉을 오는 8월부터 인경한다. 중국 국가문물국의 비준을 얻어 시행되는 이번 인경작업은 200년만에 전통기법 그대로 재현되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0질의 대장경을 인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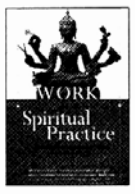
〈국어(國語)대장경〉으로도 불리우는 〈만문대장경〉은 699종의 불교경전, 24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0년(건륭 55년) 판각되었으며, 청대 〈사고전서(四庫全書)〉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문화적 걸작으로 평가된다.

북경고궁박물원은 200여년동안 정리, 복원되지 않은 원본 경판을 전면 보수, 보전처리한다.

해외불서



• 21세기는 지혜의 시대: 인류 최고의 유산인 철학의 지혜와 고타마 붓다의 지혜를 비교해 지혜를 닦는 방법을 말한다. 제1부 '지혜의 학문 철학'에서는 지혜를 테마로 한 학문과 종교, 필로소피아의 의미, 기원전 6세기 철학의 시대, 철학의 시조 탈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 등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아함(阿含)불교-지혜의 종교'를 다루었다. 모리야마(桐山靖雄) 지음, 일본 평하(平河)출판사 펴냄.



• 수행하듯 일하라(Work as a Spiritual Practice): 경영인이자 선불교 마스터였던 루이스 리치몬드(Lewis Richmond)가 일에서 내적인 성장과 만족을 추구하는 불자들의 생활수행법을 소개했다. 저자는 어떻게 일상에서의 정신적, 정서적인 경험을 갈등, 영감, 성취, 침체 등으로 분류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미국 Booadway Books 펴냄.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4. 연화왕생이란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혼탁한 진흙과 오수 속에서도 청정무구한 꽃을 피우는 연꽃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지혜의 꽃을 피우는 보살의 깨달음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연꽃은 단지 미려한 자태를 가진 꽃으로 만이 아니라 번뇌와 고난을 극복하고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는 불교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꽃이다. 또한 연꽃은 〈묘법연화경〉의 연화가 의미하듯이 대승적 이념의 상징이며 인도와 서역, 중국과 한국과 같은 불교문화권에서는 미(美)의 정점을 의미하는 예술적 주제로 사용되어 왔다.

정토불교에서는 보다 종교적인 의미로 연화왕생(蓮華往生)을 설한다. 즉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서는 중생이 정토에 왕생할 때 연꽃을 통해서 왕생한다고 설한다.

그렇다면 연화왕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연화왕생은 정토왕생의 방식이다. 연화왕생이라는 주제는 정토 경전뿐만 아니라 여러 대승경전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묘법화경의 제바달품을 듣고서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혹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나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듣고 만약 인간과 신으로 태어난다면 미묘한 즐거움을 받아 부처님 앞에서 연화왕생한 것과 같다"라고 적고 있다. 같은 연화왕생이지만 〈무량수경〉에서는 "칠보(七寶)로 된 연화 속에 자연히 화생하여"라고 더욱 화려한 문구로 정리한다. 더욱이 범본 〈관무량수경〉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연화의 내오(內奧, 안쪽)에 있는 주소(住所)에 결가부좌를 하고 아미타불국계변(阿彌陀佛國界邊)의 칠보성(七寶城) 가운데 있는 칠보지(七寶池)의 연화 속에 화생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연화의 내오에 있는 주소는 범어 파드메수 그라브하바삼(padmaesu garbhāvāsam, 紅蓮內의 胎藏)이다. 이 말은 연화의 내오(內奧)에서 복업이 성숙해야 정토에 화생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러나 한역 〈무량수경〉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과감히 생략하면서 '자연화생(自然化生)'이라는 즉득왕생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자비와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연화의 순진무구한 청정을 정토에 왕생하는 중생의 청정한 행업과 일치시키는 표현이다.

연화왕생에도 즉각적인 자연화생과 합화왕생(含華往生)이 있다. 〈무량수경〉에서는 태생과 화생에 의한 연화왕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설한다. 즉 "만약 어떤 중생이 밝은 믿음으로 불지(佛智)와 승지(勝智)를 얻고 여러 공덕을 지어 신심으로 회향하면 모든 중생은 칠보화중에 가부좌하여 잠깐 사이에 진실보토(眞實報土)에 자연화생한다. 모든 공덕을 닦아 정토에 왕생했으나 의혹심이 있으면 정토의 변지궁전(邊地宮殿)에 핀 연화 속에 태생으로 왕생하여 합화(含華)된 채, 오백세 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경법을 들지 못하며 보살과 성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멀리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조선시대에 그려진 구품탱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연꽃이나 반쯤 핀 연꽃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왕생자의 모습은 바로 합화왕생를 표현하고 있다.

불교 상징하는 연꽃
정토왕생 해탈 희구투영

연꽃에서의 화생이라는 주제는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니다.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헌에서도 이 주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회화가 발견되고 있으며 인도의 힌두이즘과 중국 도교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불교적 전생관(轉生觀)을 반영하는 연꽃 연화왕생도 예불도 비천 승려도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화왕생이라는 불교적 주제는 수없이 그려낸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꽃인식은 태양, 여래, 정토, 불교적 해탈이라는 신성한 주제를 상징하고 있어서 한민족의 원초적인 불교이해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천5백년도 전에 축조된 고분에 진홍색의 눈부신 연꽃을 방안 가득 벽화로 그려 넣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담긴 인생과 불교는 무엇이었을까.

▩경학회 회주

시찰에서 지내실 분

노후의 삶을 산세좋고 물좋은 사찰에서 불사하시는 공덕지으시고 스님들과 함께 기도 정진하면서 부처님품에서 보람되고 가치있는 노후를 회향하실 분은 연락하십시오.

아울러 정신적 질환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소외된 삶에 지치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소생하시어 참 불자 되실 분들은 연락 하십시오.

02)998-1818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이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펌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리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펌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펌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회주시면 〈뇌파인간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디로그를 무상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소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병원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완료 현미, 메주콩, 참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계칠, 팜프리, 감알, 통알,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효박력가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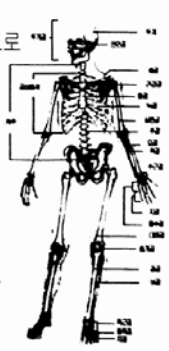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拂,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특별선원 지정 20주년 봉암사 조계종풍 형성 뿌리

동안거 죽비 내려놓던 날

백두대간의 단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높이 998m의 거대한 바위산으로, 서출동류(西出東流)하는 30리 계곡을 끼고 있는 천하의 명산 경북 문경 희양산. 범상치 않은 우뚝한 모습이 한눈에 영봉임을 알 수 있는 희양산은 날으는 봉황의 형상을 한 바위산에 용과 같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 예로부터 봉암용곡(鳳巖龍谷)이라 불리운다.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는 봉황과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동방제일의 길지(吉地)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증대사 도헌스님이 879년 구산선문 중 하나인 희양산문을 이곳에 개창하면서부터 시작된 봉암사는 고려 태조때 정진대사가 주석할 당시 3천여 대중이 정진했을 정도로 수행가풍이 이어져, "동방의 출가승도는 절을 참배하고 도를 물을 때 반드시 이곳 봉암사를 찾았다"고 할 정도로 한국 선종을 대표하는 참선도량이다.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는 동 · 하안거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도 반결제를 한다. 한철도 쉬지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봉암사의 태고선원 큰방 전경.



◇태고선원은 해제 3일전부터 일제히 빨래 울력을 한다. 선방 주변에 가지런히 널려있는 깨끗한 이불들은 망상을 씻어내린 수좌들의 청정심을 대변하는 듯 하다.

동안거 결제중 80스님 용맹정진

월암스님, 기간중 '중국선종사' 특강 이례적
사시사철 안거 가풍…모든 살림 '대중공의'로

2월 26일(음 1.15) 전국 6대 총림 선원을 비롯한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일제히 동안거 해제식을 갖고 석달간의 안거 정진을 회향하기 사흘전인 2월 23일, 본 기자가 조계종 특별수도원 지정(1982년) 20주년을 맞는 봉암사를 참배한 날은 태고선원(선원장 정광)에서 '죽비를 내려놓고' 대중울력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23일은 대중 빨래, 24일은 개인 빨래, 25일은 바랑을 꾸리며 휴식을 취한 후 26일 만행 떠나는 일정이었다. 백장청규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좌선과 포행, 울력이 둘이 아닌 정진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풍광이었다. 태고선원 큰방 주변에 가지런히 널려있는 깨끗한 흰 이불들이 망상을 내려놓은 수좌들의 청정심을 응변하는 것만 같았다.

봉암사의 이번 동안거 결제에는 관음전에서 5명의 수좌가 하루 16시간 용맹정진을, 성적당에서 15명이 14시간 가행정진을, 태고선원 큰방에서 38명이 10시간 원력정진을, 후원에서 22명이 8시간 외호대중정진에 동참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결제에 든 80명의 스님중에는 60대의 고령에도 불구 20~30대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한 선원장 정광스님과 선덕 소임을 맡은 설정스님이 수좌들의 사표가 되었다. 특히 조계종 종회의장을 역임한 중진 설정스님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 허약한 몸으로 지난 하안거부터 하루 10시간의 원력정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스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암사에서 계속 안거를 나고 싶다"고 밝혀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봉암사의 이번 결제기간중에는 한국 선종사상 특기할만한 기록이 하나 수립됐다. 지난해 중국 북경대 철학과에서 '중국 돈오선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봉암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월암스님이 선방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결제기간중에, 더구나 수좌들의 기가 세기로 유명한 종립선원에서 '중국 선종사'를 강연해 대중들도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월암스님의 특강은 당초 울력으로 예정된 시간에 비가 내리자 설정스님이 월암스님의 강의를 들어보자고 제안, 대중공의를 거쳐 2월 21일 저녁 6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다. 월암스님이 10년간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실감나는 강의를 펼치자 수좌들은 '선의 현장성'에 공감, 하루 더 강의를 듣자는 의견을 냈고 다음날은 저녁 6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역시 열강이 펼쳐졌다. 목이 쉴 정도로 강연삼매에 빠졌던 월암스님은 "중국에서의 선종사 연구를 봉암사 선방에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수좌들이 선의 현장성을 느낀 계기가 되어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암사는 종립선원답게 봄, 가을 반결제까지 한 철도 쉬지 않는 사시사철 안거의 가풍을 이어오고 있다. 동안거가 끝난뒤 보름간의 해제기간을 보낸 후 3월 14일(음력 2월1일)부터 한달간 14시간 가행정진하는 봄 안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빠듯한 사시사철 안거를 운영하다 보니, 봉암사 선원은 도량전체가 철저하게 선방 살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주지, 원주를 비롯한 모든 소임이 선방 수좌들의 정진을 보조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모든 면에서 '참선제일'을 표방하는 탓에 아침 예불도 목탁 대신 죽비로, 예불문도 부처님께 3배하는 것으로 대신할 정도로 치열한 정진이 계속되고 있다.

봉암사의 이러한 가풍은 원융살림의 전통을 확립한데 따른 것이다. 사중 수입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새로운 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대중공의를 통해 추진한다. 또한 일체의 문중 파벌의식을 배제해 '객이 주인처럼, 주인이 객처럼 사는 곳'이 바로 봉암사이다.

그동안 봉암사는 정부의 국립공원 지정 계획도 강력히 반대하며 오로지 청정 수행도량의 면모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는 최근 고란초 등 각종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봉암사 사찰림을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봉암사 경내지에서 벌채, 채취,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돼 청정수행도량으로서 영구히 보전될 전망이다.

문경 봉암사=글 · 사진 김재경 기자

봉암사 역사

희양산문 개창(879년)이 효시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인 봉암사는 선문구산의 하나로 879년(헌강왕 5) 지증(智證)국사가 창건, 희양산문(曦陽山門)의 본거지가 되었다. 고려에 들어와 935년(태조 18) 정진(靜眞)국사가 재건했다. 조선시대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674년(현종 17) 신화(信和)스님이 중건했다. 이렇게 유서깊은 선도량 봉암사에 근대 선원이 개원된 것은 1947년, 해방직후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봉암사에서는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새로운 흐름을 창출한 '봉암사 결사'가 조직됐다.

봉암사 결사는 1947년 성철스님을 필두로 청담, 자운, 우봉 스님 등 네 스님이 "모든 이익관계를 떠나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원을 세우고 결사에 들어간 것이 효시다. 먼저 성철(제7대 종정), 자운, 보문, 우봉 스님이 '공주규약(共住規約)'을 제정하고 정진을 시작한 후 청담(제2대 종정), 향곡, 월산, 종수, 보경, 법전, 성수, 혜암(제10대 종정), 도우 스님 등 20인이 결사에 동참했다.



◇청담스님



◇성철스님



◇서암스님



◇혜암스님

"새 한국불교 창출" 47년 '봉암사 결사' 조직
동참자 20명중 종정 4명 총무원장 6명 배출

당시 결사대중은 법당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만 모시고 가사, 장삼, 발우도 새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때 제정된 가사, 장삼, 발우는 현 조계종 의제의 바탕이 되었다. 포살 역시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백장청규 정신을 되살려 부목과 공양주까지 내보낸 채 대중이 손수 밥하고 하루 두 짐씩 나무하는 것이 기본 일과에 들어있었다.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3배의 예를 처음으로 갖추게 하는 등 승가 생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3천배와 능엄주력 수행이 강조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처럼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정신은 1947년 항곡스님의 화쟁대오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당시 결사에 참여했던 20인 대중 가운데 총무원장이 6인, 종정이 4인이 배출될 정도로 현대 조계종 종풍 형성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는 1950년 6.25전쟁으로 3년만에 중단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봉암사는 현 조실 서암스님(제8대 종정)이 원적사와 봉암사를 오가며 정비한 결과, 1970년부터 수좌들이 봉암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1972년 봉암사 희양선원은 향곡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5명의 납자가 정진했다. 이후 1974년 서옹스님이 조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향곡스님이 줄곧 조실을 맡아 납자를 제접했다.

1980년 현 조실인 서암스님이 조실로 추대되었으며, 1982년 6월 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7월 경북 문경군이 봉암사 경내지를 확정 고시했으며, 이어 84년 6월 제13차 비상종단상임위원회에서 선풍진작과 종단 발전을 위해 봉암사를 종립선원으로 결정했다.

인터뷰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스님

"열심히 살아봐야 참 결제·해제 뜻 알아"



"원래 결제(결속해서 묶는다는 뜻)와 해제가 따로 없지만, 열심히 살아봐야 참 결제와 해제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화두로 단단히 묶어 일상생활에서 화두와 씨름한 '결제'를 풀고, 자신의 화두참구로 얻은 성과를 세상에 풀어놓고 역량을 시험하는 수행이 '해제'입니다."

20~30대의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한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스님(사진)은 2월 23일 봉암사 동암에서 "해제를 통해 성취하면 다음에 다시 묶을 때는 물샐 틈없이 제대로 묶을 수 있다"며 해제의 본뜻을 말했다.

정광스님에 따르면 해제기간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지혜와 실천이 상응하는 기간이며 평상심(平常心)을 구현하는 수행기간이다.

"진실(眞心)과 진법(眞法)은 우주법계에 현존합니다. 자리이타, 각행원만(覺行圓滿)이 현실에서 구족돼야 해요. 임제스님은 '어떤 경계에서도 평상심이 사라지지 않고 연속되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객진번뇌가 있다면 평상심이 아닙니다. 평상심은 상주불변심이요, 불성을 의미합니다."

정광스님은 "진심이 드러나는 顯露眞心 것이 평상심이요 무심"이라며, "처음 발심하는 것과 구경각을 이룬 것과는 등차(等差)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초발심속에 공능(功能)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이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고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지자대사는 '견성'을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구경각을 성취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참선은 진정한 주인공을 찾는 공부다. 그러나 그 공부는 형식적인 공안이 아닌 저절로 발현되는 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광스님의 선관이다. 이에 대해 정광스님은 "공안이 타파되었다고 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완전히 타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화두는 상주불멸하는 영원한 의문, 살아있는 의문이 돼야 해요. 공안이 타파되고 안되고는 방편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정광스님이 봉암사를 오가며 정진한 것은 30여년전, 본격적으로 주석하게 된 것은 20년전부터다. 그동안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보물 제138호) 등 선종사관련 비문들을 번역하며, 한국 선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남모르게 진행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선을 좋아했다는 정광스님은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출가를 결심, 금생에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리라는 원을 세웠다. 해병대 제대이후 3년동안 잠 안자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임제록〉의 활발발한 무위진인의 경계에 대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확연히 그 경지를 알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평상심 상주불변심…불성 의미
'살아있는 의문'돼야 참된 화두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⑯ 5백자 수기품

샤리푸트라(舍利弗)가 대승 사상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 대해 기뻐하는 말을 들은 석존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다.

"샤리푸트라여, 그대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제자였다. 그대는 그러한 사실을 잊고 자기 혼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대로 하여금 본래의 서원(本願)에 의해 행했던 바를 생각해 내도록 하겠다."

이것을 〈묘법연화경〉의 번역자 쿠마라지바(鳩摩羅什)는 다음과 같이 격조 높이 기술하고 있다.

샤리푸트라여,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최고의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이 세상에 와서는 그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내가 손쉽게 설한 가르침만을 그대로 믿고) 이미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니, 나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운 본래의 서원(本願)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한 갖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신다.

석존께서는 샤리푸트라에게 "그대는 자기 몸에 불성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힘이 아니라 그대의 몸과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는 불성이 그대를 깨치도록 한 것이다"라며 다시 석존은 "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운) 본래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한 갖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신다.

내면에 간직돼 있는 불성
깨달음통해 드러 내는 것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한 갖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해 그대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에게 대승의 가르침인 묘법연화 · 교보살법 · 불소호념을 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석존의 말씀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졌다"는 말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의미 심장한 말씀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法 · 敎 · 道)'에 의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성(佛性), 다시 말해 부처님의 성품(性品)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미 부처가 된다는 수기(授記)는 받고 태어난 셈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으므로 새삼 부처님께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의식(儀式)이 바로 수기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믿는 것이며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도록 가르쳤는데"라고 하는 부분은, 범문(梵文)에서는 "그대는 오랫동안 나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먼 옛날부터 샤리푸트라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샤리푸트라는 그 사실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자기는 이미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니"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 석존께서는 훈계한다.

이 잊고 있는 불성의 진실을 기억해 내는 것이 곧 제도되는 것이며 기억해 내고 눈뜨는 것이 깨침인 것이다. 이렇듯 '제도(濟度)됨'과 '깨치는 것'은 동의어(同義語)의 관계이다.

다음에 석존께서는 샤리푸트라가 본원(本願)에 의해서 얻은 바의 길을 잊어버리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憶念)하련다"고 말한다. 즉 기억해 내도록 하려는 것이지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釋尊)가 말하는 가르침이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여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어떤 비유도 모두 이 '억념(憶念)'을 위한 것이었음이 여기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의리(衣裏) 계주(繫珠)의 비유'를 음미하면 진리는 가르치려 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생각해 내도록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에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본다.

▩무설정사 조실

목숨 던질 간절한 신심있어야



가까이서 뵌 큰스님

운 하 스 님 (통도사 한주)

부처님의 설법은 그 내용의 방대함과 비유의 다양함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부처님의 설법이 이렇게 방대해진 것은 부처님께서 대기설법 즉, 응병여약(應病與藥)의 법문을 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문은 자칫 부처님의 법이 듣는 이에 따라 달라졌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일음(一音)이다. 듣는 중생이 자신의 능력, 신심에 따라 부처님의 법을 이해한 것일 뿐 부처님 법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의 그릇, 나의 신심, 나의 능력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부처님의 법은 성도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왔음에도 우리가 그 가르침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한계요, 허물이다.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 진리 가운데서 나의 병에 맞는 약방문을 발견하는 지름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붉은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통도사 시탑전. ㄱ자로 꺾어진 시탑전 심우당(尋牛堂)에서 만나 뵌 운하(79) 스님은 이런 생각을 더욱 골똘히 하게 만든다. 툇마루 앞에서 바람결을 따라 흘러온 꽃향기에 취해 심우당으로 들어서자 소박하고 정갈한 방안에 꽃향기보다 더한 수행의 향기가 스며있는 듯하다.

"나도 배우는 증이라 할 말이 없다"는 스님께 재차 법문을 청하자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다.

"먹고사는 일은 도를 닦는 사람에겐 중요하지도 않고, 또 도를 닦는 것에 정성을 다하면 먹는 것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깊은 바위틈에 앉았어도 먹는 것이 생기는 게 부처님 법이예요."

이것저것 세상일들을 다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세상일을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불호령으로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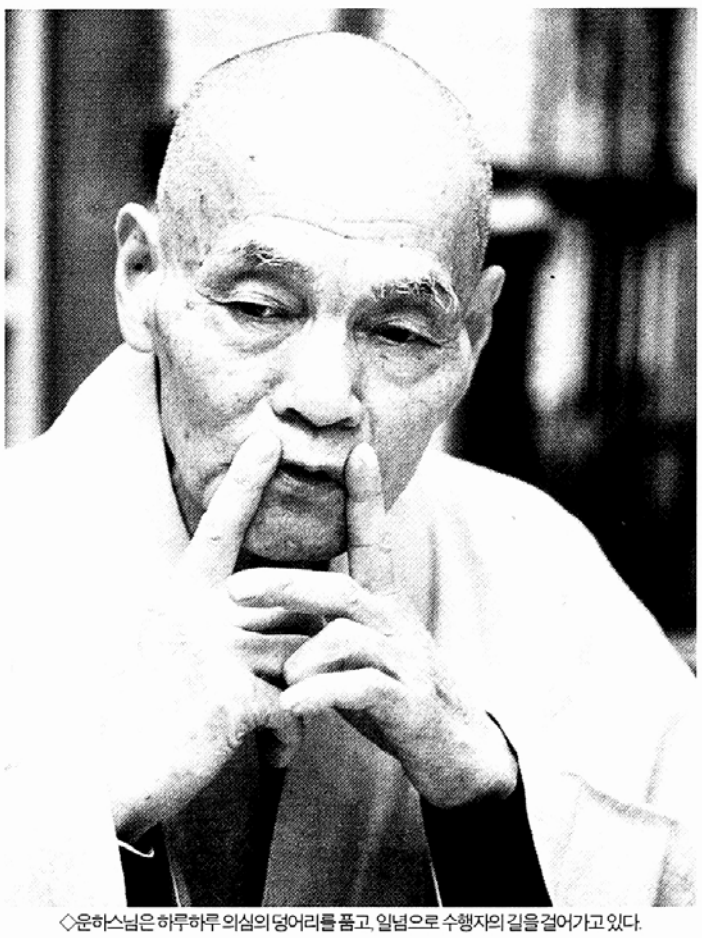
화두는 본래 경전엔 없는 말
끝없는 의심통해 수행점검

"공부만 일념으로 하는 사람과 세상 일 다 참견하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출가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뜻을 세워 공부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살면 돼요. 또 하나, 도를 닦는 사람이 적당하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목적지와는 거리가 멀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를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 진리의 세계로 확실하게 나를 이끌어 스승에게 생사를 바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해.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간절한 신심이라야 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달마 스님과 혜가 대사의 얘기를 연상해 봐요.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 법이라는 게 뭐길래, 밤새도록 눈 맞고 얼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법을 들으려고 애를 쓴 혜가 스님에게 그런 신심으로는 안된다고 한 것인지 골똘히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팔을 끊어 바치는 신심을 보인 후에야 비로소 법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법은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런 것을 살펴보면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끝은 어디로 가든지 편안하기는 할 터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골치가 아파. 과연 이 길로 가서 목적지에 가는 건지, 도를 깨쳤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깨쳤는지, 자기가 깨달아 보지 않고는 모두가 모르는 것 투성이야. 누가 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도인이 아닌 이상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 불교는 고민이 없어. 불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법이라 했는데 어째서 뜻이 같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라는 게송이 남겨져 있는지, 경전에는 견성을 하면 왜 감추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 통 알려고 하지를 않아. 알음으로 안 것으로 다 안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예요."

스님은 의심의 덩어리를 품고 하루를 보낸다. '감기에 들까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등 말하기 쉬운 핑계로 바깥출입을 삼가는 스님은 도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심우당 좁은 공간을 우주인 듯 여기며 지내고 있다. 3년 전 생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양을 위해 큰 절로 걸음을 했으나 가루 생식으로 공양을 대신하고부터는 거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뭐든지 버릇해야 하고 싶은 법이야. 바깥출입 하지 않으니 방안에 있는 게 좋아."

가섭 존자에게 전해졌던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이어받기 위한 정진으로 스님의 일상은 지극히 고요하고 한가해 보이지만 결전을 앞둔 무사의 칼날이 숨어 있다.



◇운하스님은 하루하루 의심의 덩어리를 품고, 일념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스님은 3년 전 죽을 고비를 거짓말처럼 넘기며 살아난 이후 생식을 시작했다. 그때 얘기는 통도사 내에서도 아는 스님이 많다. 스님의 상좌와 주지 그리고 방장 스님 모두 스님의 장례식 절차까지 의논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무슨 인과였던지 틀니를 해 넣었던 게 잘못되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지. 병원에서 내 방으로 와보니 이미 비워져 있더군. 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집을 치워버린 거지. 허허허!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보니 죽음이란 게 참 괴로운 현상이란 걸 알게 되었지. 완전히 기진맥진해지니까 시야가 희미해져, 정신을 차려서 보려고 해도 구름이 낀 것처럼 시야가 희미해지더라고, 죽음이라는 고통은 아픈 데가 없어도 몹시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어쨌든 가는 날까지 후회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늘 다지고 있지. 자유를 얻어야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끌려가면 안 되잖아."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성모암 대중일동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2년 3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02년 3월 26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2기 학인 모집

Ⅰ. 승려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 나이 제한 없음, 중졸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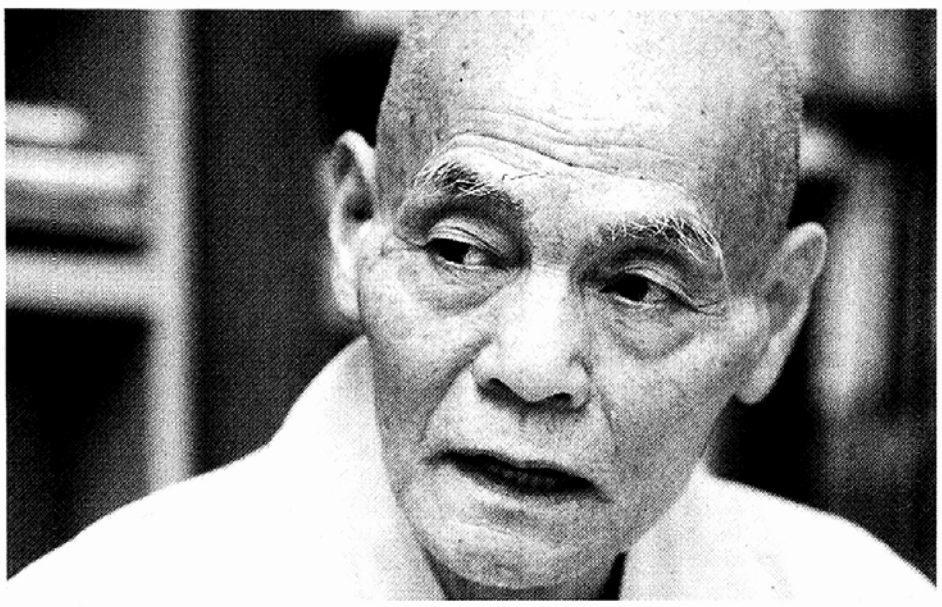
Ⅱ. 포교사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환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교육방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 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종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수업료 일체 무료. 단,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371-7751~3 팩스 : 033)671-7754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종립 근본불교 승가대학

부처님 법 구할 수 있어



◇자신의 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순간 순간 살피고 점검하라고 당부하시는 운하스님.

당장 공부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 스님에게서 또 한 가지 색다른 안목을 발견한다. 그것은 현재 성행되고 있고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화두법에 대한 대의심을 일으키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의 불교는 화두 수행 일변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화두법이고 지금 나도 화두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부처님의 법과 같은 것인지 가만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스님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의심을 하면서 바른 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현재 하고 있는 화두법의 화두는 부처님 경전에는 안 나오거든. 화두법이 부처님 법하고 일치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부처님 법하고 그 내용이 틀린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의심 · 대신심 일으켜 정진

죄 · 업보 · 생사 뛰어넘어야

평생을 한결같이 화두를 챙겨온 스님. 그 스님이 화두 공부에 대한 대의심을 당부하신다. 그것은 화두법을 부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의심을 통해 좀더 자신의 공부에 대한 확철한 신념을 세워가며 공부하라는 간곡한 당부로 여겨진다.

"부처님 일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도 진리를 구하기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을 스승을 찾아 헤매고 다녔거든.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6년이 아니라 6일도 스승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참스승을 찾아다닌 6년 동안 부처님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무리들을 찾아다니며 이 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한 셈이야. 그것 속에 진리가 과연 있는가 파악하고 직접 실행해 본 것이지.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화두를 집어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 과연 부처님이 경전에 설해놓으신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순간순간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가 성행했듯이 지금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 그러니 바른 길을 제시한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나의 수행을 점검하려는 끊임없는 의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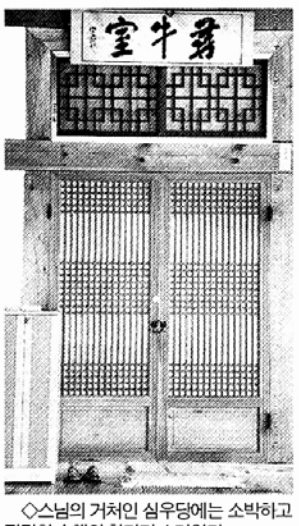
화두 수행 일변도의 수행풍토에 대해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도 화두로 평생을 살아온 스님이 내비치는 의견이고 보니, 겨울 새벽 찬바람 속에 나선 듯 얼얼한 기분이 된다.

"깨쳤다고 게송 짓고 책도 내는 이들이 있어. 그런데 깨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밥 먹다 깨쳤다, 도랑 건너다 깨쳤다 등 별 말이 다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깨쳤다는 이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본 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이나 씨앗을 심어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과정과 순서가 명확한 것이거든. 그렇게 진리는 순서가 정연한 거야. 씨앗을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

자신의 공부에 대한 대의심을 일으키라는 스님의 간곡한 당부는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정법안장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 더욱 분발하라는 경책이다. 이어 스님은 "가야 될 길은 부처님 법을 따라 가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해 놓는다. 간절한 구도심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 수행을 경전의 말씀을 토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평생의 공부를 이어갈 때 불교의 핵심인 생사를 뛰어넘은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 법대로 깨닫기 전에는 생사도 업도 뛰어 넘을 수 없어.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 내 사는 것 자체가 만 생명의 은혜로 가능한데, 어찌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가 있겠어. 은혜 갚는 길은 먼데 있지 않아. 대의심, 대신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정진해서 뛰어 넘어야 해. 죄도 업보도 생사마저도 말이야."

글=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스님의 거처인 심우당에는 소박하고 정갈한 수행의 향기가 스며있다.

운하 스님은?

평생을 참선수행…심우당서 두문불출

운하 스님은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참선 수행을 했다. 1924년 창녕에서 태어난 스님은 55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평생을 참선 수행에만 매진해 오고 있다. 각처의 선방과 토굴에서 수행을 이어오던 스님은 예순 다섯이 되던 해, 일체의 소임을 마다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리라는 뜻을 세우고 본사인 통도사로 돌아왔다. 적당한 토굴 수행처를 찾을 때까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통도사 선방에 입방하여 8년 동안 보광선원 선원장을 맡으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수행처로 이름을 떨쳤다.

지금도 통도사 시탑전 심우당에서 두문불출하며 수행인의 참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벽산스님



(전호에 이어)

이 말씀은 다른 분에게서 들은 어떤 법문보다 내 가슴에 오랜 여운으로 남아 있다. 스님은 일제 말기, 당시 상황에 따라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셨고 조계종에서 활동했다. 조계종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대처를 했다는 것은 큰 결점이 아닐 수 없었다. 시대적 상황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그렇게 하였겠지만 "중노릇하려면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천가지, 만가지 법문보다 나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도 남았다. 젊은 시절, 내게도 이성에 대한 갈등이 없지 않았다. 이성에 대한 갈등과 그리움은 언제나 강한 숙제였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한숨어린 이 말씀이 욕망을 자제하게 했고, 나를 이 외길로 걷게해준 힘이 되었다.

그러나 스님의 신앙심이나 수행력은 어떤 스님보다 뒤지지 않았다. 조석 예불을 거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기도를 올릴 때나 불자들의 불공을 올릴 때는 그 염불소리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듣는 이들의 가슴으로부터 신심을 일어나게 했다.



스님은 자주 용맹정진 기도를 하셨다. 그럴 때면 소금 탄 물을 들고 법당에 들어가셔서 이를, 삼일을 꼬박 새워가면서 염불을 하셨다. 어쩌다 목탁소리가 끊어져 조용하여 법당을 들여다보면 목탁은 저만치 굴러가 있고 스님은 졸고 계셨다.

"스님, 이제 주무시고 하십시오. 몸을 돌보셔야지요"하면 스님은 한숨을 길게 내시면서,

"내가 또 졸았느냐? 기도를 하려 하면 잠이 오니 어떻게 하면 수마를 이길 수 있겠느냐? 대답 좀 해보아라" 탄식을 하셨다. 그런 탄식을 보며 수행자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고, 나의 게으름을 돌이켜 보곤 했다.

한때 강화 보문사 주지를 하신 적이 있다. 인사차 찾아갔더니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무를 심고 계셨다. "왜 붕대를 감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도량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업장이 이다지도 두터운지 잠이 이렇게 오겠느냐. 잠 깨라고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깨졌구나." 일주일간 잠을 주무시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니 당연히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참선곡에 '예전 사람 참선할 제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어이 방일한가' 했는데 스님께서는 잠오는 것 성화해서 목탁자루로 머리를 너무 세게 쳐버린 것이다. 스님의 기도 정진은 이와 같았다.

오랜 세월 외국생활을 하면서 기도다운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며 살아온 나는 스님의 용맹정진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가끔 신심이 해이해 질 때는 스님의 깨진 머리를 회상하며 나의 머리를 쳐보기도 하지만 깨어지도록 때려 본 적은 한번도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가를 선택해 태어날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다소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행자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수도자에 있어서 그 죽음을 보면 그의 평생 수행을 점수매길 수 있을 것 같다. 앉아서 입적한 스님은 무수히 많고, 서서 돌아가신 분도 많다. 거룩한 수행을 하신 분들은 가고옴에 걸림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주변을 떠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죽음이 두려워진다. 명성을 얻었던 이름있는 분들께서 보여주신 임종마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젠 살아온 날에 비하여 남은 날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용맹정진 기도

임종 세번 예언…좌탈입망

두려움이 이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에 입적하신 탄성 큰스님의 경우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제자 문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고 했을 때, "이제는 갈 때가 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수도자의 마지막을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대로 가려하니 그리 알아라" 하시고는 입적하셨다 하니 참으로 대단한 어른이다.

지난 87년 봄 입적하신 벽산스님은 당신의 임종을 세 번 예언하셨다. 임종 3년 전에 '3년밖에 못산다' 하셨고, 3달 전에 한번 더 말씀하셨고, 3일 전에 '3일 뒤에 간다' 고 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입적하시기 3일 전까지도 화단을 정리하실 만큼 건강하셨으나 일을 하시다가 나무를 붙들고 갑자기 쓰러지셨다. 놀란 문도들이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식을 회복하시자 "너희가 나를 시중의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는구나. 어서 절로 돌아가자!"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절에 오셔서 목욕하시고 장삼을 수하고 앉아서 입적하셨으니 좌탈입망(坐脫入亡)하신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수행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모든 세속적 욕망을 산밖에 던져버리고 좌복에 앉아 욜곧게 살아온 수행자로서는 갈 때도 곧게 앉아 가는 것이 소원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허덕거리지는 않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래가 이 세상 떠나시는 것을 '선서(善逝)'라 하는가 보다.

■ 구미 영명사 주지

北韓 金剛염주
국내시판
북한의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 금강염주 셋트 한정분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친다는 금강염주

金剛염주의 신비

神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안거 하시던 평안남도 온천군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금강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신비한 영험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의 최고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부 스님만이 사용하는것으로서 일반인은 구경조차 못하는 신비의 희귀 광석으로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광석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금강염주

신청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 1127-02-175765

국내독점보급
K3 金剛 닥터KOREA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탐구 수행법을 제창한
20세기의 대(大)선지식 라마나 마하르쉬
불자들의 시야를 넓혀 줄 그 가르침의 진수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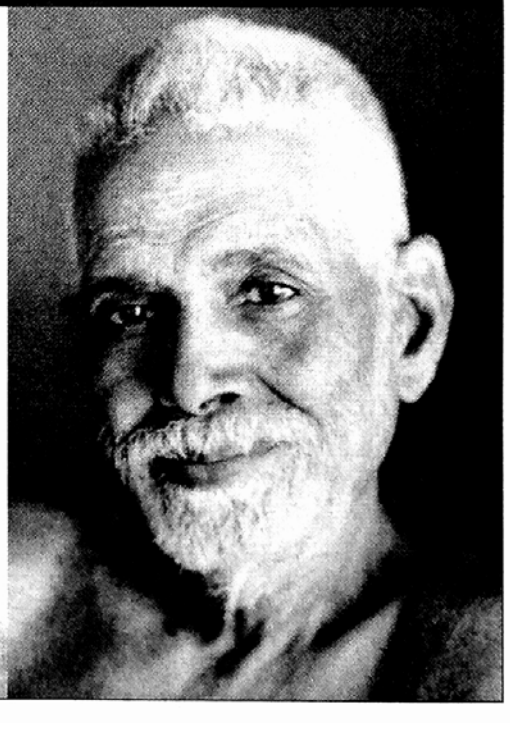
「참선요지」「방편개시」의 번역자 대성 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아루나찰라 총서! (전9권)

이 시대의 수행자들을 위한 실천 수행 지침서

본서 마하르쉬의 생애와 가르침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지의 길 아서 오즈번 지음 | 320쪽 | 10,000원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전집 아서 오즈번 엮음 | 376쪽 | 12,000원
바가반이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 아서 오즈번 엮음 | 280쪽 | 9,000원

별서 마하르쉬의 법제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바가반의 말씀을 따른 삶 데이비드 가드먼 지음 | 530쪽 | 15,000원
마음은 없다 - 안나말라이 스와미의 마지막 말씀 (근간)
무심(無心) - 나는 진아다 데이비드 가드먼 지음 | 360쪽 | 10,000원
빠빠지 면담록 데이비드 가드먼 엮음 | 360쪽 | 10,000원

신서 마하르쉬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회상록
마하르쉬의 복음 슈리 라마나스라맘 엮음 | 160쪽 | 8,000원
추억의 마하르쉬 발라라마 레디 지음 | 163쪽 | 6,000원
구루 라마나 S. S. 코헨 지음 | 304쪽 | 9,000원



도서출판 탐구사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82-9 전화 02-766-4270

활기찬 봄 화랑가

佛畵展 등 다양

주제 · 개성 뚜렷 … 가볼만한 곳

봄을 맞은 화랑가에 생기가 돈다. 우리 전통미술의 한 분야인 풍속화를 비롯해 불화, 조각, 구상작품 등 다양한 전시들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저마다 주제와 개성이 뚜렷한 전시회들 가운데 가볼만한 곳을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전'** :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을 비롯한 조선시대 풍속화가들의 작품 12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한 · 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시대 풍속화전'이 바로 그것. 이번 특별전은 이전에는 풍속화로 분류되지 않았던 궁중의 행사나 선비 관리들의 공식 모임을 그린 기록화, 감로탱화 등을 풍속화에 포함시켰다. 풍속화를 공의로 해석, 그림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이 반영된 점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선정과 태평', '아취(雅趣)와 풍류', '생업과 휴식', '신앙과 기복' 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 가운데 볼자들이 눈여겨 볼만 부분은 신앙과 기복이다. '보석사 감로탱화' '무화기(無畵記) 감로탱화' 등 전시 작품은 2점밖에 안 되지만, 불화인 감로탱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물 527호 '단원풍속화첩' 에 담긴 '씨름' 등 눈에 익은 풍속화는 물론 소나무 아래서 두 승려가 답소하는 모습을 그린 '사미승' (마군후 작), 승려가 길거리에서 점괘를 벌려놓고 탁발하는 장면을 담은 '점 보세요' (작자미상)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02)398-5138

▪**불화가 고영을 '삼라만상전'** : 화려한 채색과 섬세한 선묘. 거기에 기존 불화와 차별되는 현대적 회화미를 추구해 온 불화가 고영을씨의 '삼라만상전' 이 20일-26일 조계사내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불교신문 기획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고씨는 전통탱화기법에 현대적 감성을 표출한 금니 선화로 자신만의 독특한 불화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바람소리' '세상 속으로' 등 50여점의 작품들은 자아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해와 달, 별과 바람, 우주와 자연에 이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염망을 그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작품도 눈여겨 볼만하다.(02)730-4488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전'에서 선보이는 '보석사 감로탱화(18세기)'의 하단부분. 다양한 인물상들이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고 있다.

▪**이대박물관 '여성성의 재현전'** : 이화여대 박물관이 5일-6월 29일 여는 특별전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전' 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20세기 한국미술을 되돌아보는 대형 기획전이다.

43명 작가의 작품이 선보이는 1부 '여성의 이미지와 공간' 에는 전통적 여성상을 그린 그림들을 비롯해 장우성의 '승무', 최영림의 '불심', 박생광의 '무당' 처럼 종교적인 몽환의 공간에 여성을 배치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20여명의 여성작가가 동참한 2부 '여성적 소재와 기법' 에는 기존의 남성적 시각과 작가 자신의 여성적 체험 사이를 오가는 양성적 기호를 나타내는 작품들이 다수 선보인다.

(02)3277-3152

▪**유리지 조각전 '아름다운 삶의 한 형식'** : 갤러리 현대에서 12일까지 열리는 조각가 유리지씨(서울대 미대교수)의 '아름다운 삶의 한 형식' 은 장례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독특한 전시다.

향로, 촛대 등의 제사용품과 골호, 사리함, 상청, 상여 등의 장례 용품이 그 기능과 미적 장식적 효과에 비중을 두어 제작됐다. '골호-삼족오(태양속에 산다는 봄멸의 새)', '유물함-기시(旣視)' 등의 작품들은 마치 인간의 삶과 사후의 세계가 영원의 세계에서 윤회하고 회귀하듯, 그 기능과 예술성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02)734-6111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한소리 풍물단은 대구지역 불자가정과 기업 등 20여곳을 돌며 행복을 기원하는 풍물공연을 가졌다. 사진제공= 손법천 대구지사장

"풍물패 공연 통해 불교 포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소리 풍물단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스님) 법형제회 '한소리 풍물단' 은 2월 7일-3일까지 6회에 걸쳐 지역 불자가정과 불자기업 등 20여 곳을 돌며 올 한해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물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해 3월 결성된 한소리 풍물단은 40대-60대 초반의 남성불자들로 구성된 순수 문화신행모임으로 그동안 부처님 오신날과 동지법회 등 각종 불교행사에서 우리 전통 국악인 풍물 공연 활동을 해왔다.

한소리 풍물단 김태오 단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해, 문화활동을 통한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500년 묵은 씨앗서 연꽃 피웠다

미 과학자들 배양성공

흙탕물에 살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의 상징이 된 연꽃. 또한 연꽃의 열매는 5백년이 지나도 꽃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됐다.(사진)

미 연구진은 중국 동북부 시파오지 지역의 말라붙은 연못 바닥에서 채취한 연꽃 종자를 캘리포니아 실험실로 옮겨 싹을 틔워 꽃피우는데 성공했으며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 500년 전 종자임을 밝혀냈다.



佛指사리 대만 전시 수십만 운집



중국의 국보이자 유네스코가 '세계 9대 기적' 으로 부른 부처님 손가락 진신 사리(眞身佛指舍利)가 중국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의 법문사(法門寺)에서 2월 23일 대만으로 옮겨져 이틀간 수십만명이 이를 보기위해 모여들었다. 대만당국은 타이베이(臺北)에서는 사찰 대신 넓은 국립대만대학 체육관에 사리를 봉행했으며, 31일 시안으로 돌아가기 전 타오위앤(桃園), 가오슝(高雄), 타이중(臺中) 등 대만 주요 도시들에서 전시된다. 사진은 2월 23일 이운법회 장면.

남북한 통일음악회

17일 세종문화회관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대표 법타, 이하 평불협)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남북한 통일 음악제' 를 17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다.

북한 기아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민간차원의 통일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이날 음악회는 법현스님의 범패연주, 김중자 무용단의 북을립 연주, 소프라노 백지영과 테너 박성원의 가곡,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가수 최진희, 정수라, 송대관, 설운도, 이동원 등도 출연, 남북한 대중가요와 민요를 열창한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황해도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가동 등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02)732-5558.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솔직히 그리고 엄밀히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은 잠깐 반짝하다 금방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고, 여운이 오래 가며 가슴이 흡족한 것은 예외 없이 진리를 접했을 때라는 결론에 이른다. 좋은 책을 읽을 때나, 법문을 들을 때 혹은 자연을 산책하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를 때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나는 그런 기쁨을 선시(禪詩)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느낀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선시를 읽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시원한 맛을 처음으로 느낀 것은 『벽암록』 제1장을 읽었을 때이다.

인도에서 건너와 동방 선종의 시조가 된 달마가 중국 땅에서 처음 터뜨린 사자후는 통쾌하기 그지없다. 불심천자(佛心天子)라 불릴 정도로 불사를 많이 벌인 양나라 무제가 묻는 대답을 모조리 부정해버린 것이었다. "수많은 불사의 공덕은?" "없소." "성스러운 진리란?" "넓고 텅 비어 성스러울 것도 없소.(廓然無聖)" "당신은 누구요?" "모르오."

동산공 선사의 '달마'

9년만에 가죽과 골수 모두 나누어 주고 외짝신, 빈 관으로 …

달마는 이로써 그가 오기 이전의 중국불교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의 말은 참 시원하다. 기복에 매달려 구질구질해진 정신을 단칼에 싹 베어버렸으니 속이 다 후련해진다. '더럽다' 는 '덜 없다' 이다. 완전히 없어야 깨끗해진다. 벽암록을 편집하고 해설한 원오극근 선사는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차별상을 초월하는 것(超斷衆流)' 이라 불렀다.

우리 동양인들은 '없다' 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들이 유난히 자연을 좋아하는 것도 자연 속에는 인간적인 구질구질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달마는 우리에게 이 점을 일깨워주었고, 그래서 동방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그의 가르침에 충실한 제자 동산공(東山空) 선사는 그가 남긴 자취마저도 다음과 같이 깨끗하게 청소하여 스승의 은혜를 멋지게 갚았다.

양위 산하 본시 태평하였는데
(梁魏山河本太平)
쓸데없이 늙은 여우 받아들였네
(無端容此老狐精)
구 년만에 가죽과 골수 모두 나누어주고
(九年皮髓分張盡)
외짝 신, 빈 관으로 사람을 속였어라
(隻履空棺更[丘人)

세 번째 연은 달마가 양무제를 떠나 위나라 땅의 소림사에서 구 년간 면벽 참선한 것과 임종시 제자들을 테스트하여 각기 달마 자신의 가죽, 살, 뼈, 골수를 얻은 것으로 인가해준 이야기를 빗댄 것이다. 깨달은 바를 말해보라는 스승의 질문에 혜가는 침묵으로 대답함으로써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고 인정받고, 달마의 법통을 이어 2조가 된다. 마지막 연은 '달마가 사후 외짝 신을 들고 서역으로 돌아갔으며, 관은 비어있다' 는 전설을 풍자한 것이다.

■문학평론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무관리가 공짜라니..!

상황 종무 관리 프로그램 무료 보급!

상황모바일버전 이래서 좋다!

- 문자메세지 발송 – 한번에 수천명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 E-mail 발송 – 법문 · 안내문 등 E-mail발송 가능
- 음성 · 음악 · 벨소리 전송 – 모닝콜 가능
- 기존 데이타 자동 변환
- 각종 인쇄물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실시간 불교뉴스, 각종단 게시판 열람
- 관리비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
- 사찰과 신도간의 인터넷 네트워크 형성



타 종무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

구 분	상황종무관리	G	D	K
가 격	무 료	320만원	150만원	무 료
관 리 비	무 료	2만원/월	3만원/월	2만원/교육월
업그레이드	무 료	유 료	유 료	
인터넷기능	불교뉴스 ,검색 등	없 음	없 음	없 음
문자메세지	30원/건당	기능없음	기능없음	기능없음

상황 종무관리 설치 방법

전화주문 : 02)722-4162(현대불교신문사)
↓
통신료 20만원 선납금 납입 : 국민은행 006-01-0773-240 (현대불교신문사)
↓
우편으로 CD받기
↓
안내문 따라 설치
↓
인증받기 02)365-5933(지우커뮤니케이션)
↓
기존의 D/B 자동 이전

■ 무료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 기술개발 : 지우커뮤니케이션 02)365-5933

'여래선' 홍씨우핑 · 쑤언이핑 공저

여래선은 조사선의 기초



◇선(禪)은 인류가 배양한 사유의 꽃이다. 사진은 한국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모습.



달마~혜능의 선종 창립까지 서술
중국불교 사상·문화 발전에 큰 영향

흔히 여래선은 조사선과 대립되는 낮은 단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여래선〉(운주사)은 그러한 시각이 편협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래선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그 특징 등의 고찰을 통하여 조사선이 여래선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할 수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지은이는 먼저 중국선의 초기형태부터 살핀다. 보리달마 이전에 이미 중국에 선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소승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선, 즉 여래선이 달마에 의해 중국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중국의 지식인 사회 및 일반 민중들에게 다가간다. 그리하여 다른 종파 즉 교학을 주창하는 화엄종이나 천태종 등을 압도하고 중국사회를 평정하게 된다. 이후 선은 혜능과 그 문하생들에 의해 절정에 이르고 중국 사회에 찬란한 정신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다. 물론 그것은 한국불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중국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종(宗)으로 선학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인 혜능 이전까지에 돋보기를 댄다. 결국 이 책의 서술범위는 보리달마의 전승에서 육조 혜능의 선종창립까지이며, 혜능 남종선과 신수 북종선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중국선종사의 초기에 속하는 능가사와 동산법문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논하고 있다. 즉 여래선의 중국적 전개 및 대표적 인물의 사상과 실천, 여래선이 중국불교 및 중국 전통사상과 문화발전에 미친 영향, 여래선과 능가선, 여래선과 조사선의 같은 점과 차이점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승선학과 대별되고 조사선과도 대별되는 중국선종의 초기단계를 고찰한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여래선은 일종의 방편설법에 지나지 않음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것은 중국선과 선종의 발전단계 및 그 특징을 반영하는 역사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선과 상대되는 어떠한 폄하적인 의미도 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승불교와 상대되는 의미로 소승불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서술한 여래선은 중국 선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여래선의 중요성은 혜능에 의해 정립된 남종선의 사상과 방법 및 그 근원에 광범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성으로 여래선은 초기선학이 선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인도선이 중국선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여래선이 100여 년 동안 힘겹게 창조한 선학이론이 없었더라면 조사선도 중국문화의 무대 위에서 1000여 년의 시원스러웠던 풍경은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

선학총서 시리즈로 출간된 이 책은, 중국 남경대 홍씨우핑 · 쑤언이핑 교수가 저술했다. 값 2만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佛書 한권 수천의 포교사"
10년동안 책 50권 펴내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최근 〈이야기 관세음보살〉(좋은인연)을 내놓았다. 이 책은 회정 스님과 보덕 각시의 완전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또 다른 의의는 스님의 50번 째 책이라는 점이다.

스님은 지난 92년 대구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를 개원하면서 곧바로 불교출판사 '좋은인연'을 설립하고 그 첫 권으로 〈새로운 불교공부〉를 출간했다. 그리고 꾸준히 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내놓은 〈이야기 관세음보살〉이 바로 50권 째이다. 10년 만으로 1년에 5권씩 펴낸 셈이다. 출판을 생업으로 하는 작가가 아닌 포교와 수행이 주된 활동인 수행자가 이렇게 많은 책을 내놓은 것은 문서포교에 대한 남다른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불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교를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 만든 불서 한권은 웬만한 포교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불교교양대학의 포교효과가 제한적이라면 불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포교의 수단입니다."

불서를 펴내는 것은 곧 포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란 게 스님의 지론이다. 스님이 지금까지 낸 책은 크게 불교교양대학 교재와 교리서 그리고 수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스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불교교양대학 교재를 펴내는 일이다.

"영남불교대학 개원 당시 시중 서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재로 사용할 만한 불서가 없었습니다. 초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리서가 없다는 것에 한국불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직접 교재를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스님이 내놓은 책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경시리즈와 수필집이다. 〈금강경〉, 〈발심수행장〉을 비롯해 16종 22권의 사경집이 불교계의 사경바람을 일으켰다면, 〈저거는 맨 날 고기묵고〉(전2권), 〈장가 안가길 잘했네〉(전2권) 등은 베스트셀러로 불법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새로운 불교공부〉 등 몇권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번역 출간을 의뢰할 정도다.

하지만 스님은 지금까지 50권의 불서를 내놓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때문이다. 스님은"올해에는 청소년 교리서와 부처님의 일대기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펴낼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책과 삶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부처님 일대기 등 일반 눈높이 저술"

초기불교 개론서 우리말 출간



'붓다의 가르침과…' 전재성 역저

스리랑카의 불교문헌학자 월폴라 라훌라(1907~1997) 스님의 초기불교 개론서 〈What the Buddha Taught〉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한국빠알리성전협회) 바로 그 책이다.

'불교의 정신', '연기와 무아', '오늘날의 실천'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2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3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4	생활 속의 금강경	우 룡	효 림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화엄경을 읽는다	기무라 키요타카	불교시대사
8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9	봐라 꽃이다	김 영 욱	호 미
10	행복한 달마	이 규 행	백 암

도서 안내:(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붓다' 유홍종 지음





흔히 부처님을 알면 불교가 보인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불교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출간된 것이 탄생에서부터 출가 그리고 성도와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그린 일대기다.

신간 〈붓다〉(유홍종 지음, 해누리)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저서들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뽑아 부처님의 생애를 한 눈에 읽을 수 있게 정리한 다큐멘터리 소설이다.

'탄생과 출가' '위대한 깨달음'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며, 부처님이 깨친 바가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부처님께서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설법 내용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도 돋보인다.

소설로 재구성한 부처님 일대기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에서 나왔으며, 모든 설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 깨달음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에 부제를 붙인다면 '초보자의 불교읽기'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숭산 스님은 추천의 글에서 "붓다의 생애를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붓다의 진리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계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계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며 "이 책을 통해 불교신자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진리에 눈뜨기 바란다"고 밝혔다. 값 1만5천원.

'영혼의 수레바퀴' 권세훈 옮김



방랑과 사색의 작가로 알려진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우리에게 친숙한 외국 작가들 중 한 사람이다. 특히 불자들에게는 〈싯타르타〉와 '고대인도의 종교 전집'인 〈바가바드기타〉, 〈법구경〉, 〈진리의 말씀〉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신간 〈영혼의 수레바퀴〉(이레)는 고대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중국의 종교와 철학 신화에 관련된 서적들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논평과 동양사상에 대한 단상을 담은 산문집이다.

헤세의 종교와 신화이야기

그는 먼저 〈고대 이집트 종교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민속적인 종류의 묘비와 주문에 가끔 공식적인 종교와 동떨어진 내용이 담겨 있음에 감동한다.

그리고 신화 시대의 고대 인도에서 한 왕이 고행 끝에 결국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사원과 왕국을 버린 채 맨몸으로 숲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는 전설을 통해 '찾는다'와 '발견한다'를 구별한다. 즉 찾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짐을 의미하고, 발견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상태에서 아무런 목적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배제된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소크라테스, 예수의 출현뿐만 아니라 인도인, 유대인, 중국인들의 성서와 예술의 세계에서 평화로운 인간 정신을 표현한 모든 경이로운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 중에서 관용, 평화, 아름다움에 대한 노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값 9천원.

기도 ·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한국불교미술 원류 간다라 유적 조사

한국미술사 연구소장 문명대 교수



한국 불교 미술의 원류로 주목받아온 간다라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장 문명대(동국대 · 사진) 교수는 최근 "지난 2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간다라 지역 유물 및 유적 조사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우선 1차로 8월 20일부터 파키스탄 박물관에 소장된 간다라 불상에 대한 현지 학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다라 불상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스와트 박물관과 탁실라 박물관, 라호르 박물관, 페샤와르 박물관이 조사 대상이다. 올해 스와트 박물관과 탁실라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들을 조사하고 내년 8월엔 나머지 박물관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지역 빠르면 내년말부터 발굴

문 교수는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말부터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곳은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지역이다. 서기 1~4세기 유적으로 그 동안 200여 개의 불상이 발견됐고, 높이 40m에 이르는 대탑이 유명하다. 그 동안 극히 일부만 발굴됐을 뿐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가장 안 된 곳 중 하나다. 특히 간다라 지역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북부 쪽이다 보니 우리 나라 불상과 유사한 불상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문 교수는 "스와트 지역은 경주 석굴암 조형의 뿌리로 보여지는 붓카라 제3사원지, 남산 칠불암 불상에 영향을 준 자하나바드 마애불 등이 있어 우리 나라 불교 미술의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며 "불상 양식이 어떻게 우리 나라로 전해져 왔는지를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고 말했다.

현재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에는 일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은 2000년에도 간다라 불상 50여 점을 발굴한 바 있다.

日 비조사 금당 백제양식

조원창 씨 '백제연구'서 '고구려식' 통설 뒤집어

일본 최초의 절인 비조사(596년 창건, 법흥사라고도 함) 금당은 고구려 양식일까, 백제 양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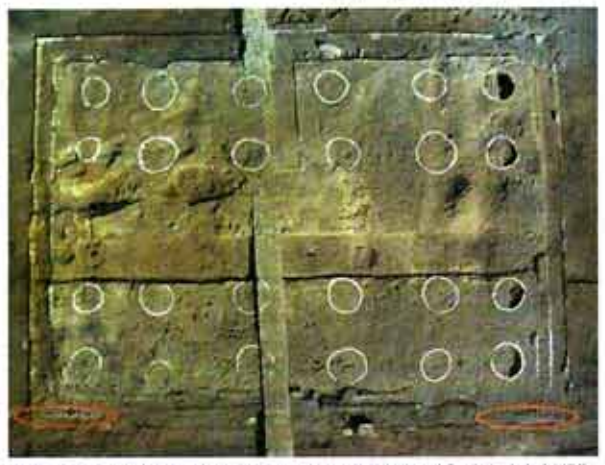
'비조사 금당=고구려 양식'이라는 학계의 통설을 뒤집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원창(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책임연구원) 씨는 최근 〈백제연구〉 33집에 기고한 논문 '백제 이층기단 축조술의 일본 비조사 전파'에서 "금당 조성에 쓰인 축조술인 '이층기단'의 외형에만 초점을 맞춰 그 기원을 고구려의 금강사터와 연결시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며 "비조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 건축가(造寺工, 조사공)들이 조성했으며 금당 역시 고구려 형식이 아닌 백제 형식"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건물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주변보다 높이 다지는 기단을 2층으로 쌓는 방식인 이층기단은 삼국 중 5세기 말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 때문에 비조사 동쪽 금당의 이층기단 역시 고구려 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층기단 축조술은 백제나 신라에도 전파됐고, 특히 백제는 고구려식을 발전시킨 나름의 축조술을 갖게 됐는데, 비조사 금당의 이층기단에 쓰인 축조술은 바로 백제 양식이라는 것이 조 씨 주장의 요지다.

조 씨의 이러한 주장은 비조사 동쪽 금당의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의 한가운데에 또 다른 석렬이 한 줄 지나간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이층기단은 고구려 정릉사터와 금강사터, 백제의 정림사터와 부여 능산리 절터, 신라의 황룡사터 최종가람(584년 장육존상을 안치하기 위해 중건된 사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사이에서 석렬이 확인된 곳은 비조사의 동쪽 금당터와 부여 능산리 절터의 금당터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씨는 "부여 능산리 절터 금당터의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사이에서 건립될 시점부터 동 · 서 금당이 완료될 때까지 고구려의 조사공이 일본에 파견되었거나 파견 요청을 받은 기록은 국내 · 외 어느 사서에서도 살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백제 조사공의 파견은 〈일본서기〉 등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백제 조사공들이 일본에 파견된 후 비조사가 창건되고 이층기단



◇부여 능산리 절터 금당터(타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 · 하층 기단 사이의 석렬).

이층기단 축조술 백제 전파·발전 법륭사·산전사 등 많은 절에 영향

도 길이 10cm 내외의 잔돌들이 열을 지으며 축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능산리 절터의 조사공(造寺工)이 비조사 동쪽 금당의 축조에 참여했거나 그 축조기술이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비조사 동쪽 금당의 이층기단이 고구려 식이 아니라 백제 식이라는 것은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조사가 축조술에 의해 동 · 서 금당이 조성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 씨는 말했다.

조 씨는 "이층기단은 고구려에서 백제로 전파되었고 이를 발전시킨 백제의 조사공들에 의해 일본에 전파됨으로써 비조사뿐 아니라 이후 법륭사나 산전사, 판전사, 고려사, 대봉사의 금당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학술 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故 김지견 박사 추도 논집 올 7월 日서 발간

한국 화엄학 연구의 선구자인 고 김지견 박사를 추도하는 논집이 일본에서 출간된다.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불교학 전공자들의 모임인 한국유학생인도학불교학연구회(회장 이연숙)는 고 김지견 박사 추도 기념 논집을 7월경 발간할 계획이다. 격년간으로 〈한국불교학 세미나〉라는 논문집을 펴내고 있는 한국유학생불교학연구회는 올해 발행되는 9집을 고 김지견 박사 추도 기념 논집 특집으로 꾸민다.

추도 논집에는 일본, 미국,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일본에서는 화엄학 전공인 기무라 기요타카 도쿄대 명예교수가 추도문을 기고할 예정이며, 도쿄 고마자와대학 이시이 고오세이 교수, 주우오대학 고지마 다이신 교수 등이 논문을 싣는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헨릭 소렌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모두 10여 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기고할 예정이다. 논집은 일어판으로 나온다.

이연숙 회장(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박사과정)은 "고 김지견 박사는 한국유학생불교학연구회의 전신인 신라불교연구회의 창립 회원 중 한 분이시다"며 "일본에 한국 불교의 특색을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 선 김지견 박사의 학문적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도 논집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유학생불교학연구회에는 현재 석 · 박사 과정, 단기 유학생 등 1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985년 첫 호가 나온 이래 한국어판과 일어판을 번갈아 가며 논문집을 펴내고 있으며, 재작년 나온 한국어판 특집호(8호)인 〈일본의 한국불교연구동향〉(장경각)은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돼 그 해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학회 소식

불교학硏 10차 학술발표회

불교학연구회는 10차 학술발표회를 9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전자계산소 교육공학1실에서 연다. 서울대 규장각 박해당 연구원과 고려대 장경연구소 김재성 선임연구원이 발표한다. (02)2260-3128

한국선학회 18차 학술발표회

한국선학회는 올 해 첫 월례 발표회를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씨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전달 구조'를,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가 '경허의 선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02)2260-3135

보조사상硏 44차 학술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하택신회의 선사상'을 주제로 44차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유진 스님이 '하택신회의 선사상'을, 김진무(남경대 박사) 씨가 '신회의 선사상이 조사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가제)'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02)733-5315

'원효학 연구' 6집 발간

원효학연구원은 〈원효학 연구〉 6집을 최근 발간했다. '원효 성사와 대승 불교의 일심사상'을 특집으로 꾸몄다. 지난 해 가을 열렸던 학술대회 발표문 · 논평문과 함께 '원효 성사의 사상 또는 각 종교, 철학의 일심사상'을 주제로 한 공모 논문 6편을 실었다. (054)742-9922

高僧 다시보기

지엄 스님과 한국불교 선풍

지엄(智嚴, 1464~1534)스님은 그의 제자 부용영관(芙蓉靈觀, 1485~1571)스님, 경성일선(慶聖一禪, 1488~1568)스님과 더불어 조선 중기불교계를 이끌었던 삼화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세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스님은 전라북도 부안 태생으로 아버지 송복생과 어머니 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호를 야로(冶老, 野老), 당호를 벽송당(碧松堂)이라 했다. 어려서 글공부는 물론 칼쓰기를 좋아해 성종 22년(1491) 북방에 침입한 여진족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 '대장부로 태어나 마음자리(心地)를 지키지 않고 헛된 명예를 좇아 밖으로만 치닫는가?'며 세상의 속절없음을 느끼고는 계룡산 조징(祖澄)스님에게 출가했다. 그후 연희(衍熙)스님에게 교학을 배운 뒤 벽계정심(碧溪正心)스님에게 선법을 배웠다. 중종 3년(1508) 금강산 묘길상암에서 선(禪)에 정진한 후 용문산 오대산 등지를 유력하고 중종 29년(1520)에 지리산 수국암에서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나이 71세, 법랍 44세로 입적했다.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이나 처음 선법을 익혔던 방법은 고려중기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선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 혜능 스님의 17대 적손인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스님과 임제선사의 제18대 적손인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스님의 법을 수용했다. 사실 조선 선

여진족 격퇴후 계룡산 출가 억불속 대승교의 종풍 다져

가의 법풍은 지엄 스님이 지눌 스님의 선법을 계승하면서도 대혜 스님과 고봉 스님의 선풍, 임제종풍을 선양하였고 스님의 법손인 청허당 휴정스님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스님이 초학자들을 지도하였던 〈선원집〉과 〈법집별행록〉이나 지혜의 병을 제거하고 활로를 열어주었던 〈선요〉와 〈대혜서장〉등의 불전은 지금까지 사찰 강원에서 사집과(四集科)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한국불교를 통불교 혹은 종합불교라 하는데, 한국불교사에 있어 선학을 숭상하고 교학를 선양하는 종풍은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의 법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신라말 선문으로부터 고려중기의 보조국사 지눌 스님 그리고 고려말 태고 보우스님과 나옹 혜근스님, 조선 중기 지엄 스님과 두 제자를 포함한 삼화상을 거쳐 서산대사 휴정스님에게서 확립된 것이다. 그래서 휴정 스님은 지엄 스님과 두 제자 영관 스님, 일선 스님을 삼화상이라는 의미의 '삼로(三老)'라 불렀고, 이들 스님의 행적을 적으면서 스님을 조부(祖父)라 하고 그 문도들을 각기 엄부(嚴父), 숙부(叔父)라 하여 숭앙하였다.

결국 스님은 조선중기 숭유억불시책이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도 조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조사선풍과 대승교의를 숭상하는 종풍을 다져서, 이를 제자 영관 스님과 일선 스님에게 전수하였고 스님의 법손인 청허당 휴정 스님에게 계승되어 한국불교의 독특한 전통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불교텔레비전이 새로워집니다.

감동 그리고 큰세상

케이블TV | 위성방송 | 인터넷 | 위성음악방송



TOP PROGRAM
- 정경스님의 참선요가(월~토) 생활속의 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난구 생활(월) 생활속의 난제 탈기법 ...
- 혜거스님의 유식 삼십송강의(토) 선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혜거스님의 강의.
- 디지털 동의보감(화) 전통의학인 한방을 통해 현대병을 다스리는 비방을 소개.
- 홍선스님의 사찰요리(수) 다양한 사찰요리를 통해 식생활을 개선.
-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목) 간다라 불교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조명.
- 구본일의 명상태교 명상육아(화) 사람의 근본 심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 붓다의 세계(금)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재현한 다큐멘터리.
- 성운스님 불경강좌(토) 대만 불광사 조실 성운스님의 경전강좌.
- 동국대 TV 불교아카데미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정토사상(수)
  여래장사상(목)
  한국 선사상 연구(금)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종합영상포교매체로 발전하는 불교TV가 2002년 3월4일부터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www.btn.co.kr
www.btni.co.kr

• 불교TV시청방법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시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 (02)3270-3498

모든 경계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

초하루 보름 기도의 의미

문 불가에서는 항상 초하루 보름을 큰 날로 쳐서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들이게 하고, 정월에는 또 대보름이라고 해서 며칠씩 기도를 하기도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 정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기복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마음의 불씨가 직접 통신이 되어야 대천세계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으로 굴려서 찾아라, 마음을 발견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 안으로 단추를 눌러서 찾는다면, 마음의 불씨가 바로 대천세계의 근본으로 올라서 그 불빛이 항상 밝아서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달을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이 정한 법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아나가는 데도 보름날은 우리 마음의 촛불을 켜서 대천국으로 통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도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든 안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그 마음이 전체 돌기 때문에 사왕천으로 하달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가게끔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법을 정하는 거하고 내가 상서를 올리는 거하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름날 또는 초하룻날 올리는 정성이 우주 어느 곳에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아서 어디에고 다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써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밝음을 찾음으로써 마음이 가난치 않게 되고, 아주 안정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고, 진득해지고 점잖아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모든 것이, 전자에 내가 지었던 것도 전부 녹아져 버리는 까닭에 현실에도 살기가 무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환이 있다, 병고가 있다해도 생각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부터 밝음을, 거기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과거의 업보나 가환을 녹여 버리게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생활이 곤궁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먹는 사람이 금방 밥을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죽을 먹더라도 밑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 죽이 진수성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뛰지도 않으면서 어디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면 안 되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후환이 없을 거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극락, 천국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마음이 천국이라면 세계 전체가 다 천국이고, 마음이 극락이라면 세계 전체가 다 극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지옥이라면, 가고 오든, 만나고 헤어지든 모두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끄달리고, 그럴수록 더 괴롭고, 이것이 한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밝음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할 때는 자유권을 찾기 위해서이지 밝은 것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컴컴한 것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는 항상 들어와 있는데 단지 내 씀씀이에 따라서 전구가 작고 큰 것처럼,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것입니다. 또 다양하게 쓰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누가 쓰라 해서 쓰는 거고, 쓰지 말라 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림들 해 보시지만 다양하고 슬기롭게 생활 속에서 참다운 우리 삶이 바로 우주 만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항상 초하루 보름 밝은 불을 켜들고 사는 것이나 같을 겁니다.

주인공 찾는 방법은

문 자기 주인공을 찾는 데는 항상 되뇌면서 그 자리에 일임하고 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경전을 읽는 것보다 주인공을 관하는 것이 더 빨리 근본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 생각되지만 알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여쭙니다.

답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뜻을 아신다면 보더라도 글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고 말하는 것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듯이 주인공도 아무리 불러 보세요. 내 뿌리를 믿지 않는데 나오나.

나무들도 봄에는 푸른 싹을 가지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내년 봄에 푸르게 이파리가 필 것을 생각하고, 비바람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다시 봄이 되면 그냥 잎이 피고 꽃이 피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 사람도 아등바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런 나무들은 해가 바뀌어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한 찰나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못 믿게 되기 때문에 나가 나를 지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자세히 아신다면, '일체 만법은 한 구멍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 한 구멍으로 되 맡겨놔야 되겠구나. 모든 경계가 바로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하고선 주인공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맡기게 됩니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입으로만 부르고 다니면서 '주인공 해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당신이다.' 하는 걸 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지, 딴 데서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한마음 속에서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밖엔 증명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고 관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한시 반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면에다가 자나깨나 그렇게 하고, 또 간절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플 때 관하는 법

문 저는 몸이 아플 때 주인공에 딱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 오면 빨리 고통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만 들고 관하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한생각을 잘하면, 생과 사도 없는데 한 번 생각을 잘 못하는 바람에 생과 사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공부만 하면 그 모습이 없어지느냐, 또는 모습이 항상 아프지도 않고 그러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프다 해도 아픈 거를 느끼지 않게 되고, 또 아픈 것에 끄달려서 고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깐 항상 편안해요.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린다 하더라도 진짜 자기는 절뚝거리지 않아요. 몸이 그런 것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거기에 닿고 해서 알아야 괴로운 거지 와서 닿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치가 참 묘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 생명체들, 의식들이 전체 들어 있는 거니까 몸뚱이는 그 생명체들의 집합소요, 집입니다. 몸뚱이가 그 생명들의 집입니다. 집이 고장났다고 해서 집이 집을 고칠 수는 없죠. 집 속에 살고있는 주인이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집을 지어 놓고 살다 보면 망가지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우리 주인들이 고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 몸도 모든 생명체들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망가졌을 땐 '네가 고쳐라' 이러는 겁니다. 집이 망가졌으니깐 네가 고쳐서 끌고 다녀라 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속에서 병이 나게 했으니 한마음 속에서 고쳐서 끌고 다녀야 하지 않아! 심부름꾼인데….' 하는 생각을 진짜로 믿고 하세요.

그런 거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관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관법과 믿음은 둘이 아니죠. 그러니 직코스로, 자기가 공했다는 이치만 안다면 모두가 한마음이어서 너 나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아픔을 느끼는 나 또한 공해서 없는 것이니까 공한 자리에 일체를 맡겨놓아 마음과 몸의 문제를 다 벗어나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둘 아닌 도리 확실히 알려면

문 스님께서는 내 앞에 나를 해하는 상대도 둘로 보지 말라고 하시고,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실천해 보려고 해도 자꾸 둘로 봐지고, 밉고, 두렵기만 한데, 둘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데, 마치 염주를 돌릴 때 처음 시작하는 염주 알을 한 번 뛰어넘어야 하는 게 말하자면 생사에 관한 건입니다. 물질의 자식이 되고, 짐승의 부모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이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주 알을 꿴 줄과 염주 알이 둘이 아니다,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化)해서 모습이 바뀌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거를,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하고 진실하게 알지, 직접적인 행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비로소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너 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만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어져 있는 겁니다. 염주 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 알게 되는 거지만, 그대로 실천해 가다보면 진짜로 뿌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영과 영이 만 개가 한데 합쳐도 영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해나가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녹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실천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죠.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항상 컴퓨터에 비유를 해서 얘기해 드렸죠. 한 찰나에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입력하는 것과 같다구요. 과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얘기해 드렸으니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불의 공덕은

문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시면서 마음으로 자성불에 예불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멀리 있는 선원까지 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예불에 참석하러 다니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불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 안으로 관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불의 의미와, 예불에 참석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예불을 올리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스님네들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올리고, 점심때는 사시마지를 올리고, 저녁 예불로써 마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침은 과거고, 점심은 현실이고, 저녁은 미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것을 한데 합쳐서 삼심을 일심으로 두고서, 아침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열심히 안으로 한마음 공덕이 되게끔 관하면서 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음에서 그냥 하면 되지, 주인공만 찾으면 됐지, 이러고선 법당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불을 모신다는 것은, 스님들이 마음을 내면 온 누리에 일체 보이는 생명이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나 한마음이 돼서 운집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삼세의 뜻을 한마음으로 쥐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도 한마음이요, 여길 와도 한마음이요, 집에 가도 한마음이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한마음을 내서 할 때는 같이 기울여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백지장도 마주 들어야 가볍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창호지 하나를 들어도 그렇고, 창호지 한 장으로 도배를 해도 그렇고, 혼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바르는 사람이 있으면 붙이는 사람이 있고,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바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모시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신심이 돋궈지고 스님들의 마음도, '이렇게 멀어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같이 오신 저분들….' 하고 신심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님들은 그러거나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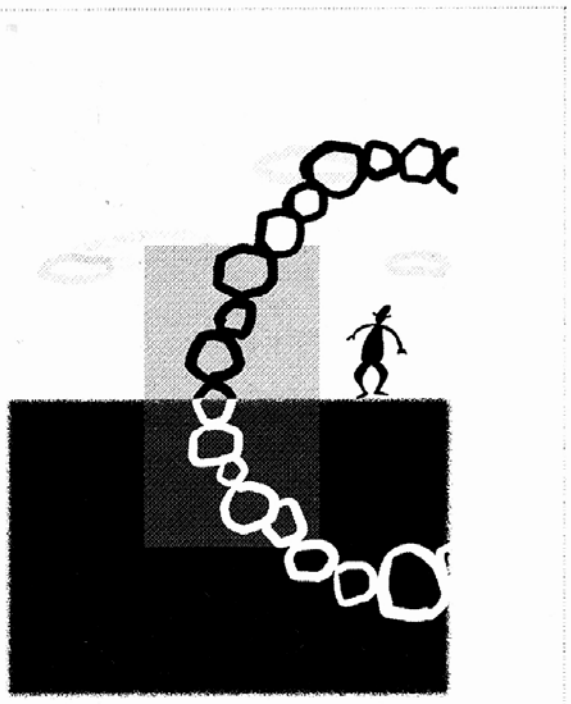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비 베풀고 욕심없이 행하면
부모자식 업보 모두 녹아

한 생각 잘하면 生·死 없어

가족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17면에서 계속

말거나 나는 그저 주인공만 찾으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개별적인 마음이지 포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는 부처님도 내 한마음 속에 계시니까, 삼정례를 깍듯이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뜻과 법과 행에 같이 한마음이 된다는 뜻에서 삼정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는 것은 우리 산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향을 사르는 것은 영령들의 양식을 말하고, 또 공양미를 올리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한그릇을 놓고 중생들을 다 먹이는 태양과 같고, 다 먹이고도 되 남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뭐, 법당에 안 가도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부처님 형상도 자기요, 마음도 자기요, 생명도 자기요, 모두가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내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절에 왔으면 벌써 예를 지켜야 하겠기에 법당에 올라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법당에서는 누가 향을 먼저 꽂았느니 나중 꽂았느니 이런 거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촛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불과 그 촛불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의 불이 있고, 물질의 촛불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정성을 들이니까 그 불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성이라면, 남이 먼저 켰어도 또 다시 켜려고 싸우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음으로 흡집 가게, '내가 켜놔야지.' 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그 불이고, 그 불이 그 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은 바로 우리의 한마음이지.' 하고서 불을 켜놨다 한다면 전체 신도들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앞에 오는 거를 막지 말고, 앞에 오는 거를 싫다 하지말고, 가는 거를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지혜가 모두 탁 터져서, 사방이 툭 터지고 지붕이 없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대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싫다 저것은 좋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언짢다는 것을 떠나라 하는 것은, 항상 다가오는 거를 마다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바늘을 벽에다 꽂으면 꽂은 대로 빼면 빼는 대로, '이래서는 융통성이 없어서 살수가 없는 겁니다. 빼는 건 빼는 거고, 끼는 건 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有)의 물질 세계에서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무(無)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합쳐서 작용을 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법당에서 예불 모실 때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모아서 우리 마음들이 거기다가 한마음으로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의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어야 제대로 관 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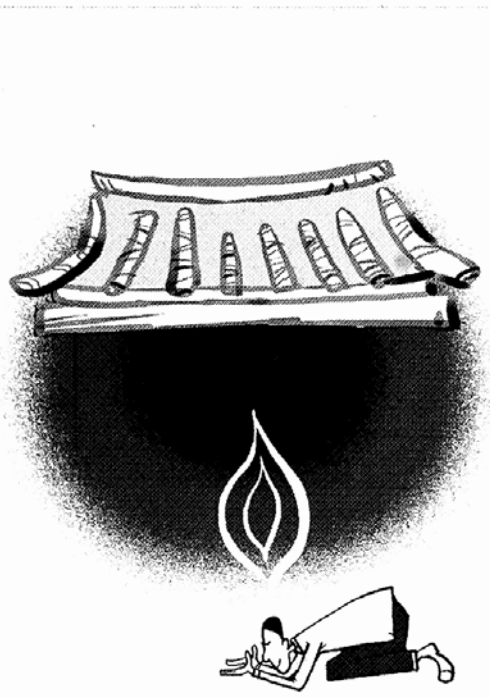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애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주인공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남자를 원해 가지고 남자애만을 태어나게 하는 게 나중에 그 애들이 커서 꼭 쓰일 데가 많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 중 남자 애들에 비해 여자 애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짝을 지워 함께 앉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된다면 결혼 배우자의 문제나 여성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예전에 어른들 말을 들어 보면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남자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자 애들을 낳으면 그냥 없애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없으니 그 고통이란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여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여자가 귀하다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난폭해지고 외려 망가지는 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자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다 소생시키고 키우는 땅이라고 봅니다. 따뜻하고…, 아버지는 태양을 주고, 물도 주고, 바람도 주지마는, 본래 땅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도 역시 하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죠. 흙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위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태양의 근본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등불이 있어서 우리는 아래 · 위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소생시키고 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불 모실 때 일체 모아서

한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해야…

가만히 세상의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애들을 기를 때는 주접이 들지 않게 기르는데,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기를 때는 애들이 망가지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딴 어머니를 얻어도 올바르게 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멍이 가슴에 남아 있기가 쉽죠. 그걸 감수하고 다 자라가지고선 어느 때에 가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풀고 살게 되기도 하지만 자라기 이전에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앞으로 여자가 아주 적다면 큰 군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여자의 위력이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남자가 구걸을 하러 다녀도 툭툭 튕겨야 할 지경일 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천대받듯이 말입니다. 똑똑해도 여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여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양면이 똑같이 다 갖추어야 됩니다. 너무 이쪽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저쪽이 적어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뭐든지 양면을 고루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오색찬란한 빛을 느낄 때

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예불을 드릴 때 잠시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오색찬란한 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빛을 보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뜻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오온의 진리가 그대로, 색색가지의 차원이 여러 가지로 주어져서 오색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죠.

가르치느라고 그런 거니까 밖으로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 올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중도에 두면서, 고정되게 두는 게 아니라 중도에 두는 겁니다. 그것도 내 주인공 속에서 전자의, 나오기 이전 과거는 쫓기고 쫓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나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오기 이전 전자의 아비가 지금 현재의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바깥으로 끄달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놔야죠.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으라는 말입니다. 아는 건 아는 대로 놓고, 터득을 하는 건 터득을 하는 대로 놓고, 터득은 했을망정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깨달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용어는 좀더 귀중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꼈다, 또 과정에서 좀더 터득을 했다는 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단계 없는 세 단계가 있다고요. 첫째, 나를 비우기 위해서, 습을 놓기 위해서 보임을 하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했는데, 놨더니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으니깐 내가 세파를 헤치고, 비바람을 헤치고 모든 걸 맞아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놔야 됩니다, 다시.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깨달았다면 나만 깨달은 거지 너와 내가 같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폭을 넓힌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면벽을 한다고 표현을 합시다. 면벽이라고 하는 뜻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숙달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면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다 또 다시 놔 가면서 그것을 숙달을 시키죠. 숙달을 시키는 것은, 나는 내가 죽어서 알았는데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죽어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또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숙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너와 나와 같이 더불어 죽었는데, 너와 나와 같이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같이 내가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그 도리를, 즉 나툼을 모른다면 그거는 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한 세 가지의 도랑 없는 도랑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무 사유를 한데 합친 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알아서 자재력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분이라야 열반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배꼽놀이를 할 때 배를 탁 한 번 치면 천하가 울고, 배꼽 한 번 탁 치면 또 천하를 받칠 수도 있고, 한 번 탁 치면 굴릴 수 있고, 또 디딜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것이 모두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한두 가지의 견에 의해서 쓰는 법이 아니니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나온 자리에다가 놓아 가시다 보면 내면의 스승이 참 가르침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귄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오.

(주) 대창종합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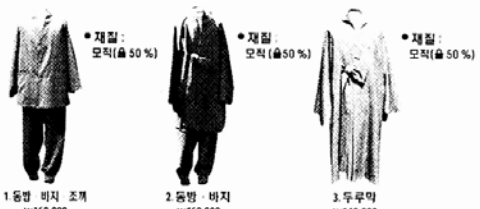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붕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 동방 · 바지 · 조끼 w160,000
2. 동방 · 바지 w160,000
3. 두루마 w140,000
재질 : 모직(울 50 %)

누 비



4. 동방 · 바지 · 조끼 w200,000 / w60,000
5. 동방 · 바지 w220,000
6. 두루막 w16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 솜

잔누비 조끼·동베



7. 서츠 w60,000 / 바지 w70,000
8. 조끼+동베 w6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 솜으로 튼튼하게 누빔
재질 : 면마고 활동적인 고급 재질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옆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헤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산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멸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제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수강생 모집
범음 범패 및 각종의식 바라춤, 나비춤, 사물 배우실 분 연락바랍니다
017)550-6581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017)859-1389

수산스님의 기체험 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www.bulljichon.com
한국 불교 지도자 연합회

포교사, 법사 자격시험
▷ 전형일자 : 원서 접수 후 개별통지
▷ 접수일자 : 매월 30일까지(우편가능)
▷ 응시자격 : 포교사 분야, 법사 분야
▷ 시험장소 : 현대 교육대학원 법회실
▷ 검정방법 : 서류전형, 논술과 면접
▷ 특전 : (1) 본회의 원장자격 부여
(2) 불교문화 신문사 포교
(3) 현대 교육 대학원 포교
법사검정에 관심하여 수료증 받을 수 있음
▷ 접수처 : 서울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대표전화 011) 412-8040
한국 불교 지도자 연합회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동
02)2234-3310

주방에서 일하실 **공양주**와 **종무보살님**을 모십니다
011)244-0265
031)286-026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정릉)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특별대우해드림
▷서울
02)962-618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관음사
02)359-7317
011)216-7317

경리보살 구함
▶ 나이 : 30~45세
▶ 컴퓨터 사용가능한자
▶ 숙식 가능한 분
경주시 강동면 왕룡사원
054)762-4269
(야) 762-8137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악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세~50세
서울 금호동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세 이상
[하늘과 산만보이는 사찰입니다]
상운사
033)482-3382~4

50세의 비구승입니다.
서울근교에 있는 사찰의 관리와 운영 및 포교활동을 맡겨줄 창건주를 찾습니다.
011)665-0104

비구니 부전스님과 사찰을 연결합니다
019)357-50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40세~60세의 공양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구례 화엄사
061)782-0016

스 님
신용카드가 필요하십니까?
부다피아하나카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대상 스님, 종무원
• 문의전화 : 02)6678-1115~6
현대불교 부다피아 카드 사업단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명식 : 10폭 날개 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문답집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취모검과 같이 예리한 지혜검의 휘두름, 근기에 응하여 모자람이 없는 자재한 답변에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통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전강, 경봉, 송산, 묵산 선사님들과의 명쾌한 문답이 실려 있으며 중앙일보의 〈한국불교의 큰스님 선문답〉 열 분의 기사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답을 함께 실었습니다.
☞ www.zenparadise.com
값 5,000원
☎ 02-522-0122 도서출판

사찰 사무원 구함
신심있는 여성불자
041)673-3222
041)673-188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칠호 광장부근)
• 법당 : 4층 건물 중 4층 (70평)
• 특징 : 석가모니불, 호신불 120불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는 현장 답사 후 조정 (별도)]
018)535-700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범어사 전철역 30m
• 평수 : 76평
• 가액 : 1억 천오백 (전세)
011)845-392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평수 : 242평
• 건물 : 4동 (요사채 2동, 산신각, 대웅전)
• 가액 : 1억
055)391-5369
016)772-5369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Sky Life)
환상적인 화면
월18,000원 시청료로
난시청지역 완전해결
전화로 가입가능
02)424-9427
미국 1분 통화 70원
(전화기 무료 보급중)
시외 44%, 핸드폰 20% D/C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북한산 내의의 고찰터로서 뛰어난 명당으로 기도처와 포교지로 최고의 도량 임
• 구교지 사용 중
• 법당 1동, 산신각 1동 외 3동 및 부서암자 1동
• 고려시대 유물 소장하고 있으며 유물활용하여 불사 가능함
• 양도가 : 12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남원시내 광화루 1000m 지점
• 부지 : 대지 161평 건물 25평
• 현시세 평당 40만원 절충가능 불사 할 수있는 도량
063)634-1592
011)9646-1592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서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보증금 : 1천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2)543-7557
515-5687

무 효 공 고
• 소재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07-26 대 여래사
2002년 1월 31일부터 상기 사찰명의의 사인 및 주지명의의 모든행위 일체가 무효임을 공고 함
2002. 2. 5
공고인 서영길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 위치 : 오산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요사 : 75평
• 법당 : 30평 • 부지 : 548평
(기와,단허필) • 가액 : 8억 5천
대출 3억 가능, 시내에 있으며 경내노송이 어우러져 산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운치있는 사찰임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정사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대지 밭 합 600평 이상
• 신축한옥 30평 큰창고 2동
• 사철 맑은 계곡과 좋은 교통 및 경관
• 가액 : 8500만원
054)337-5156
011)9857-5156
박청산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 700평
• 가액 : 4,500만원
061)755-0963
019)605-407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토송동
• 대지 : 30여평
• 건물 : 요사 20여평
법당 10여평(2층)
가액 : 1억 7천
지하철역 300M 교통편리
도심지역 사찰운영 할 분 적합
016)417-4744

토굴급안내
• 위치 : 대관령 근처
• 평수 : 1200평(건물 2동)
• 대지 : 200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8)538-262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50평
• 법당 : 23평 • 요사 : 23평 • 가액 : 2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백양산 산하
• 대지 : 46평
• 3층건물 : 1층(방2, 주방)
2층(방3, 주방,욕실,화장실)
3층(법당, 주지실)
• 특징 : (아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 봉안
후불탱, 지장탱, 약사탱, 신중탱화, 지장 56불, 석종, 불기, 에어콘 2, 생활용품일체
• 가액 : 1억 1천만원(농협대출, 3500만원포함)
051)343-6737
016)582-9580
017)372-896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분당구 구미동
• 평수 : 교통편리(3호선 오리역부근)
• 법당 100평, 방 4개
• 입주 즉지 법회 가능
• 특징 : 주차장 50대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 월 200만원
017)707-5552

신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지리산)
• 부지 605평, 황토 한옥 32평, 요사 9평 자연석 탑 돌레 25m, 연못, 남향 뒷산 5200평 매입 가능
• 가액 : 대출 5000만원에 현금 9천만원 공사비용 1억 9천만원
• 토굴터 2583평 중 대지 100평
• 가액 2천만원
055)963-4965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백두대간 산간오지(700고지) 양지전망 좋은
• 상태 : 전기 전화 없음 사륜 구동차 진입 가능 집지을 통나무 많이 있음
• 평수 : 밭 2630평 • 대지 : 104평
• 가액 : 3300만원
054)637-8354/011)9542-2537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트여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부지 : 863평
• 주택으로 지목변경 완료
• 차량진입 가능
• 전원주택지로도 가능
• 가액 : 평당 5만원
011)564-90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대지 : 88평
• 연혁 및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
055)852-4130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좌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 불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 안내면
• 대지 : 등기상 135평 실평수 155평
• 건물 : 32평 1동 (방4개, 거실1개, 임식부엌1개, 임식화장실1개)
23평 1동(방3개, 거실, 부엌, 다용도실, 임식수세식화장실1개)
• 시내버스 집앞에서 하차, 도로변에 위치
• 스님의 공부관계로 매도
• 가액 : 6천 오백만원(기름보일러) 만약, 걸망풀어놓고 다니실 선방스님일 경우 가격인하 가능
043)732-7861/011)485-4661

사찰 안내
• 부천시 고강동 소사찰 위치 최상급
• 대지 : 43평
• 건물 : 1층 22평, 2층 9평
• 건축 4년, 적벽돌, 슬러브
• 융자 : 8천 300백만원
합 1억 8천 3백만원
017)291-4125/032)671-904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근교
100년 된 영험있는 신선기도 도량으로 즈금한 계곡이 흐르는 조용한 산속 기도터
• 부지 : 사용평수 2,000평 등기평수 400평(종교용지)
• 법당 10평 요사 36평(방4개,주방,거실,욕실)
• 선방 15평(불사 중 60%) • 가액 7,500만원
017)433-5078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 부지 : 임야 7만평 (절터사용 1만평)
• 가액 : 평당 3천원 (절충가능)
• 특징 : 산수 수려하고, 냇가가 있어 전망좋은곳 임
011)9370-2629
(실 소유자 연락처임)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시내소재)
• 건물 3층 법당 (46평)
• 기존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 문수원불 52불 관세음보살원불 30불, 대형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주방포함)
• 가액 : 보증금 1천오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가액조정)
016)875-0934

사찰안내 (사정상급안내)
• 대지 86평 건평 170평 3층 건물
• 지하 48평 봉제공장
1층 상가 - 방룸 2개
2층 요사채 48평
3층 법당 26평
• 전세 5,000만원 월 75만원
은행융자 9,500만원
• 매매가격 2억 3천만원 (융자, 전세포함)
• 포교원 최적지
비구니스님 환영
019)682-7475/042)583-9839

사찰 터 안내
경남 산청에 임야 4만평안에 축사 600평 주택 22평 명당터에 주위경관 너무 좋음. 사찰로서 최적지 주인직접 가격 절충
055)972-0045
011)835-5622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 1동
• 건물 : 4층 건물 중 2층 지장사
• 평수 : 85평
• 법당, 주지실, 종무실, 선방, 주방, 창고 1개(배란다 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108불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에어콘 , 주지실, 법당, 주방용품 일체 보시함
•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500만원 월 75만원 권리금 4,500만원 절충가능함
017)737-4517

포교원 양도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사거리에서 5분 도심 포교의 중심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 집기물 : 부처님탱화,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TV, 경장, 시설일체 제공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1)9937-0108

토굴 급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바다가 보이는 산골마을)
• 부지 : 대지 200평 임야 500평 합 700평
• 슬레이트 목조 한옥집 2채(보존상태 양호) 돌, 나무, 자연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조경, 정설이 있는 신비한 약수
• 독립된 포장도로 미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3,500만원(절충 불가)
011)9036-5828

포교원 안내(급)
• 위치 : 김해 동상동
• 법당 : 삼존불,지장,산신,용왕,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3개,주방,샤워실,주차장완비)
• 전세 : 3,000만원 월세 47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7)550-6581

토굴안내
• 위치 : 언양 인보리
• 대지 : 250평
• 일반주택 개조한 법당 요사채
• 국도에서 1Km, 7,500만원

절 안내
• 위치 : 부산에서 50분 표충사 부근
• 정각산 골짜기 4,000평
• 인법당, 토굴, 석굴 전기유
• 도보로 10분, 1억

영남지방 전문 사찰컨설팅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 00명
- 사집반 ····· 0명

준 비 물

① 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 8매
② 입학금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②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 2부
③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 2부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 2부
⑤ 주민등록초본 ····· 2부
⑥ 호적등본 ····· 2부
⑦ 건강진단서 ····· 2부
⑧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전형방법

● 1차 입방
♦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2월 9일(양력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2월 15일(양력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 입방일 불기 2546년 2월 16일(양력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 2차 입방
♦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3월 5일(양력 2002년 4월 17일) 수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3월 6일(양력 2002년 4월 18일) 목요일
♦ 입방일 불기 2546년 3월 7일 (양력 2004년 4월 19일) 금요일

문 의 처 ● 전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 인 사 승 가 대 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정혜 지오

바른불교 • 쉬운불교 • 생활불교

정 토 불 교 대 학

부처님의 바른불교를 현실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 가정 생활과 나의 삶 속에서 정토를 이뤄가고자 하는

생활의 길잡이, 지혜의 등불

교 과 과 정

- **불교사상의 핵심** : 실천적 불교사상
- **불보론**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
- **교학①**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교학②** : 실천불교의 꽃, 대승불교
- **불교변천사①** : 인도불교, 중국불교
- **불교변천사②** : 한국불교, 세계불교
- **경전론**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수행론** : 참 나를 찾아서
- **신앙론** : 예불, 발우공양,
- **불교와 사회①** : 불교와 환경
- **불교와 사회②** : 불교와 복지
- **불교와 사회③** : 불교와 평화
- **불교와 사회④** : 불교와 통일
- **특별과정** : 특강, 수행수련

모집대상 및 입학금

- **참가 대상** : 바른불교를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 **접수 기간** : **2002. 3. 15**까지
- **참 가 비** : 6만원(한 학기)
-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정토법당, 각 지역 대학 사무국 www.jungto.org
- **본대학은 4학기 2년 과정입니다.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문제없도록 진행됩니다.**

지 역	교육기간	요일	시간	접수및연락처	지 역	교육기간	요일	시간	접수및연락처
서 울	3.12~6.25	매주 火	주/야	02)587-8993	대 전	3. 8~6.28	매주 金	주간	042)253-8990
부 산	3.11~6.24	매주 月	주/야	051)557-2746	청 주	3. 8~6.28	매주 金	야간	043)284-5951
대 구	3.13~6.26	매주 水	주/야	053)744-3025	마 산	3.12~6.25	매주 火	주간	055)247-8991

◀ 제17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

저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시는 스님, 법사님선생님 그리고 각 분야의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 · 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17기 강좌는 어린이, 청소년 교화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기 간** : 불기 2546년 3월 11일 ~ 6월 2일 (특강 · 종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토요특강 2회)
-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 건너편)
- ▣ **대 상** :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자
- ▣ **강좌내용** : 이 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스피치법, 모임의 진행, 프로그램작성
  교리부문 – 불교지도자론, 레크리에이션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댄스, 스포츠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 율동 지도법, 찬불가
  생활부문 – 만들기, 종이접기, 풍선데코레이션
  게임부문 – 실내 · 실외게임, 불가전통놀이, 세계민속놀이
  야외활동 – 캠프, 오리엔티어링, 야외장비사용법
- ▣ **참 가 비** :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 **문 의** : ☎ 02-738-7860 (daum cafe – http://cafe.daum.net/burec)

※ **특 전**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계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 (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감로사 불교대학
제1기 신인생 모집

— 기초교리과정 —

감로사 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 생활화 진정한 불법홍포를 통행 '참나'를 찾을 **제1기 기초교리과정 신입생을 모집** 합니다.

본 기초교리 강좌는 불교에 입문하였으나 아직 기본 교리를 배우지 않으신분, 이미 배웠으나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 및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불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불자佛子로서의 신행信行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감로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초교리수업

■ 수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첫수업-2002년 3월12일 2시)

■ 교육내용
사찰예의, 예불문, 부처님생애, 계율 수행
기본교리, 육법공양, 찬불가

※ 철우(영산율원 원장), 석성우(파계사 주지) 관일, 혜총(감로사 주지) 큰스님의 계율과 태교 등 특강이 있습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1일~3월 10일까지
■ 접수내역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입학하실수 있습니다
기초교리반은 선착순 모집합니다.
■ 학비 및 준비물
입학금3만원(교재비,졸업,성저순례비포함)
기초교리반 매월20,000원 사진 2매(반명함판)
■ 입 학 식
2002년 3월12일 화요일 오후2시
불교대학과정은 4개월후 졸업합니다.
■ 문의 및 접수 (051)803-0188, 809-8943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 로 불 교 대 학**

우 614-8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전화 (051)803-0188 http://gamrosa.or.kr

---

방 생 대 법 회

호국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용왕 성지 문무대왕 수중릉앞에서 호국의 이념을 담아 방생대법회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특히 금년 임오년에는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해로서 국태민안과 남북평화통일 및 한 · 일 월드컵 개최 성공을 기원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대승적 포교차원에서 국민대화합의 장을 여는데 일조를 담당하고자 함입니다.

초청합니다
각 사암 대덕큰스님과 불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장수 거북 방생 대법회에 동참하신 이 인연공덕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소원이 원만성취 되시길 기원합니다.

증 명 : · 고불총림백양사 방장 서옹대종사 · 칠보사 조실 강석주대종사
· 태고종 종정예하 덕암대종사 · 원효종 종정예하 법홍대종사
대법주 : 원융종종정예하 일공대종사
대회장 : 태고종 전 총무원장 혜초큰스님

■**일 시** : 2002년 (양) 2월 23일~3월 21일까지(매일 오전 10시부터)
(음) 1월 12일~2월 8일까지
■**장 소** : 경주 감포해변(용왕성지 문무대왕수중왕릉앞)

▷ 모든 편의시설(사용무료) 완비하였음
(용왕단장엄, 비바람막이 법회장 무대설치, 주차장, 화장실 등)
▷ 동참 문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02)832-2441 ※각종 상행위 일체 근절

불기 2546년 정월

방 생 대 법 회 봉 행 위 원 회

주 최 : 방생대법회 봉행위원회
후 원 :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대한불교종정협의회(36개 종단)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불교 이래서 좋다

김기연 서울 옥수동 연꽃어린이집 교사

"불교는 공기와 같은 존재"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나에게 있어 불교는 바로 공기와 같은 존재다. 어린시절 어거니 손을 잡고 절에 간 것이 인연이 되어 어린이회를 비롯해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고, 대학에서도 불교아동학을 전공했다. 살아오면서 불교는 나도 모르게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조주스님이 말씀하신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불교가 왜 좋으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특히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나 번뇌의 때가 끼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는 생각은 나를 겸허하게 만든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기에 하루종일 어린이들을 돌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다. 그때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일 말 안 듣고 장난끼 많은 아이의 웃는 얼굴만 보아도 깨끗하고 순진한 천진불로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가정이나 직장 등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부처님들만이 존재하기에 항상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불교가 나의 생활이 되어 버렸기에 가능한 것 같다.

절에 가면 기분이 좋고 바람에 흔들려 울리는 법당의 풍경, 스님의 독경소리 모두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 세상에 팔만 사천 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실감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집 가까운 절에 들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서원한다. 어린이집 선재동자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성법우를 '여왕'으로 모셔요

조계사 청년회 '세계여성의 날' 이색법회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교계 안팎에서 여성들을 위한 이색법회와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사 청년회(회장 정우식)는 9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엄마법우를 위한 특별 법회'를 마련한다. 법회에 참석하는 여성 법우들은 이날 완전히 여왕(?) 대접을 받으며 신행생활에 열중할 수 있다. 우선 법회장으로 들어가는 여법우들을 위해 입구에서 남성 법우들이 꽃을 달아주는가 하면, 유아들이 있는 엄마 법우들을 위해 '일일 놀이방'도 설치한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조계사 설법전에서 여는 '일일 놀이방'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출신법우들이 어린이들에게 풍선만들기, 율동배우기 등을 가르치며 놀아줘 엄마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해줄 예정.



그림 · 김영민

엄마위해 어린이 '일일놀이방' 마련
여학생 축구쇼 · 스포츠 댄스도 진행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회원들의 주례를 50쌍 이상 맡아본 덕신스님(장경사 주지)이 초청돼 '가정의 중요성과 다변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주례 형식의 법문을 한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찬불가 동아리 회원들의 음성공양도 함께 준비된다.(02)735-3724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은 "가정과 아이들 틈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잃고 살아가는 여성법우들을 위해 하루 정도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며 "이번 법회가 호응이 좋으면 월 1회씩 정기법회로 정례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낮 12시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문화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시민난장'을 펼친다. 이번 문화마당에서는 사진전과 전통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시민들이 여성노래를 배우는 시간, 여학생 축구쇼, 엄마들의 댄스스포츠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 시부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탤런트 권해효씨의 사회로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과 예술단 '오름'의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이어 대학로에서 종묘공원까지 이어질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대형터널로 구성된 성차별터널을 통과한 후 여성해방을 상징하는 보랏빛 깃발을 흔드는 행진을 한다. 아울러 94인이 참여하는 '해방 향해 함께 달리기' 퍼포먼스, 2002인의 '평등의 탑쌓기'도 흥미진진한 볼거리다.(02) 2273-9535

여성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 TV가 봄철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간다라불교' 특강에서 민희식 교수가 강의 하고 있다.

'간다라 불교와 …' 특강

불교TV 봄 프로그램 새단장

불교TV(사장 이수덕)가 4일부터 봄철을 맞아 생활 · 교리 · 문화 특강과 다큐멘터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 새단장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프로는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매주 목 오전 9시20분~ 오전 10시). 간다라 불교연구가인 민희식 교수(한양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는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간다라 역사에서부터 불상 탄생의 배경 등에 이르기까지 간다라 불교의 총체를 6개월간 집중 분석한다. 특히 이 프로에서는 딱딱한 스튜디오 녹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풍부한 자료 화면을 자주 활용할 계획이어서 시청자들이 간다라미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상 탄생 배경 등 6개월간 강의
매일 오전엔 '정경스님 참선요가'

해인사 부산 포교원에서 참선요가를 지도하는 정경 스님이 진행하는 '참선요가'(월~토, 오전 11시45분~55분)프로를 보며 하루에 한 동작씩이라도 따라하면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질병에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 프로에서는 '양팔 벌리고 비틀기' '발목잡고 가슴젖히기' '두손짚고 등오르내리기' 등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시범과 함께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외에도 유식학의 체계와 핵심사상을 쉽게 설명해 주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의 '유식삼십송 강의'(금 · 토, 오전 8시50분~오전 9시20분), 대만불교에서 추앙받고 있는 성운 스님의 '아함경 강좌'(토, 오전 10시20분~오전 11시), 사르나트와 쉬라바스티 등 불교유적을 순례하고 그 유적들에 얽힌 부처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금, 오전 9시20분~오전 10시) 등도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담배를 끊읍시다

금단증상 예습

1. 신경과민
갑자기 흡연을 중단하면 신경질적이 되기 쉽고 예민하게 된다. 이 증상은 수일 ~ 수주간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대처방법〉
▷휴식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치며 산책한다.
▷심호흡을 자주한다.

2. 우울증
이런 증상은 수일간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한다면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더 우울해질 수 있다.
〈대처방법〉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물이나 과일주스를 자주 마신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3. 두통
혈액순환 속도가 더뎌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수주일 내에 사라진다.
〈대처방법〉
▷물을 마시고, 커피를 줄인다.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4. 갈증, 목 · 잇몸 · 혀의 통증
구강의 조직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수주일간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대처방법〉
▷물을 한 모금씩 마신다.
▷양치질을 하거나 껌을 씹는다.

두통땐 물 많이 마시고 커피 줄여야

만해백일장 대상 김희용 양

시 · 시조부문 장원 백승은 등 3명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제23회 만해 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백일장에는 '언덕' '꿈' '3.1절' 등을 시제로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만해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은 '언덕'을 주제로 산문을 쓴 김희용(안양예고 3) 양이 받았다. 또 시 · 시조 부문 장원에는 백승은(숭례초등 6), 이태정(중대부중 2), 홍문기(강원고 3), 손하라(이화여대 3) 등이 차지했다. 산문 장원부문에는 최예진(의정부 민락초등 4), 이하나(태릉중 3), 박보영(유성여고 3) 등이, 단체상은 한마음선원과 혜명보육원이 수상했다.



◇1일 열린 23회 만해백일장에는 중고등 및 대학생과 일반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심사를 맡은 민영(시인)씨는 "문체와 내용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며 "특히 대상 수상작은 고교생 작품 답지 않게 자신의 가정사를 절제된 감정속에 사실적이고 편안한 문체로 표현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쓴 수작"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감동주는 소설 많이 쓰고 싶어"

대상 수상자 김희용 양

"외할아버지의 외도로 별거에 들어갔던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을 공트형식을 빌어 표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설날때 가족이 모두 모여 정답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정제된 글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제23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희용(안양예고 3)양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신라대 주최 백일장에서 우수상, 2000년 천안대 백일장에서는 최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재원이다. 김양은 "앞으로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줄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혈,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충남지사 041-942-9599 / 017-409-959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마산 · 창원지사 055-232-8820 / 017-552-5281
목포지국 061-276-0701 / 019-644-070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포천지국 031-534-7972 / 011-704-7979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알림

탄허 문도회
탄허 불교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

www.tanheo.com (탄허닷컴)
www.tanheo.org (탄허닷오알지)
www.tanheo.net (탄허닷넷)
www.tanheo.or.kr (탄허닷오알닷케이알)
www.tanheo.co.kr (탄허닷씨오닷케이알)

탄허스님 홈페이지가 2002년 7월에 문을 엽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도움이 될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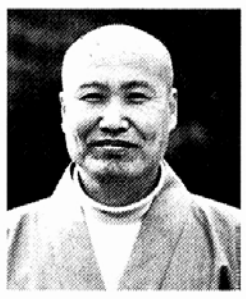
탄 허 문 도 회 : 033)642-3555, 02)459-6270
탄허불교문화재단 : 02)2271-0917, 595-7800

범불교적 참회로 참된 개혁을

혜봉스님 '3·1절' 83돌 특별기고

발표 친일명단에 불교계 5명 포함

협력사례 공개 역사 엄정 평가해야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회선)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친일 행적을 공개했다. 광복 이후 57년만의 일이다.

이날 발표된 708명의 명단 중 692명은 '광복회'에서 국회에 청원 형태로 제출한 인물들이고, 추가된 16명은 의원모임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발표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추가된 집중 심의 대상에 포함된 불교계 인사로는 권상로(1879~1965)가 들어 있고, 이미 선정된 692명 중 불교계 인사는 이회광(1862~1933)·이종욱(1884~1969)·김태흡(대은, 1899~1989)·허영호(1900~1950년 납북) 등 네 명이다.

그럼 여기서 이들 5명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자. 집중 심의 대상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권상로는 일제하 최고의 학승이었고 동국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면서 초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1937년 8월 6일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선각자로서'라는 제목으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역설했고, '승려 지원병에 대하야'라는 글(불교시보 제57호, 1940. 4. 1)을 통해 승려들의 지원병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불상의 장행'(신불교 제48집, 1943. 5)이라는 글에서는 "전승을 위하여 교주의 성상(聖像)까지 내어 바치는 것은 불교가 아니면 없을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범해가 편찬한 〈동사열전〉에 기록된 조선왕조 마지막 대강백이었던 이회광 스님 또한 그 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불교계의 이완용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한일합방조약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1910년 10월6일 조선의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을 획책함으로써 증단을 팔고 조상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건국국민훈장을 추서(1977년) 받기도 한 이종욱. 1919년의 3·1단세 운동에 참가한 뒤 매국 역적을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훗날 31본산 주지회의의 의장이 되는 등 골수 친일파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엘리트 승려였던 김태흡(대은). 일본유학 중 맞은 관동대지진 때의 경험으로 한때 반일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1935년 8월 '불교시보'를 창간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친일파로 전락해 갔다.

3·1운동에 참가하여 징역형을 받기도 한 허영호도 '신불교'지의 편집겸 발행인이 되면서부터 '황실의 번영을 축함'이라는 등의 친일 시사문을 발표했고 1941년 새로 출범한 조선불교 조계종의 종정 사서가 됨으로써 본격적인 친일파로 전락했다.

이상과 같이 708명의 명단에 포함된 5명 이외에 박윤진(대우)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대정대학에서 유학했다. 일본 유학 시절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위원장을 역임했고 귀국 후에는 황군위문단의 단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중인 일본군을 위문하기도 했다.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수 등을 지내면서 친일 시국 강연을 행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불교계 친일 인사는 박윤진을 포함하여 모두 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중 불교계 친일 인물은 6명뿐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31본사 주지를 역임한 승려와 중앙교무원 그리고 '불교시보'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은 친일 인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불교계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일제하 불교계의 친일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공개하여 엄정한 역사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둘째, 범불교계 차원에서 친일 행적에 대한 참회를 하여야 한다. 셋째, 총독부 관료와 친일 승려들의 야합으로 1941년에 만들어진 '조선불교 조계종'에 대한 연구·검증이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불교계에서 진정으로 참회의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을 행할 때 한국 불교는 진정한 개혁과 중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족암 주지, <친일불교론>저자



중랑서 경승실 월드컵성공기원법회

서울 중랑경찰서 경승실(실장 범만)과 불경협의회는 2002 한일월드컵을 100일 앞두고 2월25일 중랑경찰서 대강당에서 월드컵 성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중랑구 사암연합회와 중랑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중랑경찰서 법우회가 후원한 이번 법회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도봉경찰서 경승실장 자우스님과 경찰불자 및 가족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이·취임식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2월 2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 결산 심의와 2002년 예산 심의에 이어 류진수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스님들, 음주운전 근절 홍보

부산 연산경찰서 경승 원광스님 등



◇부산 연산경찰서 경승 원광스님(오른쪽)등 스님들이 경찰들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의 유혹이 급증하는 봄나들이 철, 스님들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시민홍보에 나섰다.

22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교통량이 많은 연산로타리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합장하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없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몽 활동을 벌였다.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개최도시에 걸맞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부산 연산 경찰서가 실시한 음주단속에 연산경찰서 경승인 정수사 주지 원광스님 황정사 주지 황정스님을 비롯 지역의 의사, 변호사, 학생들이 참석한 것. 원광 스님은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교통문화 정착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2002 한일 평화

도보 대장정

단장 원공스님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환경보호를 위한 '2002 한일 평화 도보 대장정'이 28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9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출범식을 가진 원공스님(천축사), 화가 강찬모씨 등 10명의 순례단은 총 4천㎞에 달하는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경기장 20곳을 6월30일까지 1백23일간 하루에 40㎞씩 걷게 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일 월드컵경기장 도보순례에 나선 원공스님.



◇2월27일 상량식을 가진 조계종 인천 전법도량은 대지 213평,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내년 6월 개관된다.

인천불교회관 상량

인천불교회관 상량식이 2월 27일 인천 남동구 갈월동 현지에서 열렸다.

인천 전법도량 건립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일지, 마하연포교원 주지) 주최로 열린 상량식에는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연, 인천사암연합회장 지철, 보각사 주지 송산, 총무원 총무국장 덕신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천지역 80만 불자들의 숙원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032)523-9910~1

인천=권형진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목탁소리 '세계여성의 날'과 불자

여수령 (취재2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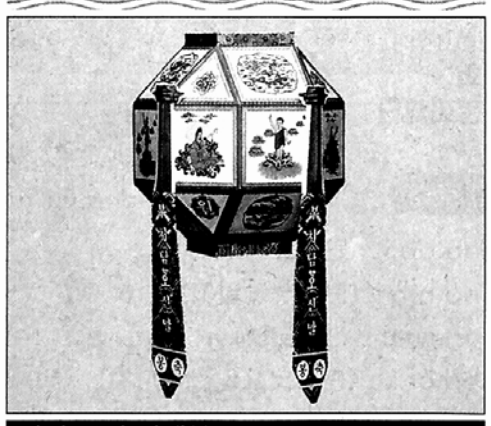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시위를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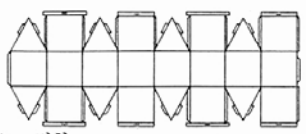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87년부터 매년 '한국여성대회'를 열어 여성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마당으로 활용해 왔다. 올해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거리 퍼레이드와 여성운동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성노동계는 전국 9개 대도시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연다.

이 같은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불교여성개발원이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등 불교여성단체들이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준비한 행사는 없다. '기독여민회'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등 다른 종교 여성단체들이 수년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여성의 날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불교계 여성단체들의 창립 취지인 '불자 여성의 권익을 도모'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조계사청년회가 마련한 '엄마 법우를 위한 특별 법회'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행사 자체는 일회성 이지만 그동안 '여성 불자들에게 절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상 일상적이어야 할 일이 '특별'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고 있는 것이다.

이 행사의 본 뜻이 남성들의 선심이나 생색내기 혹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표현하는 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의미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다. 절에 가는 일이 여성들에게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불교계가 여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天蠶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4-3733

경주남산 폐탑 '복원아닌 신축(?)'

원형과 다른 재료 사용 이질감·축대 쌓아 조망 방해

3월중순 탑주변 정리·안내판 설치

신라불교의 숨결을 되살리기 위해 경주 남산 폐탑 4기가 복원됐으나 원형과 동떨어진 재료사용, 잔존 유구 정리 미흡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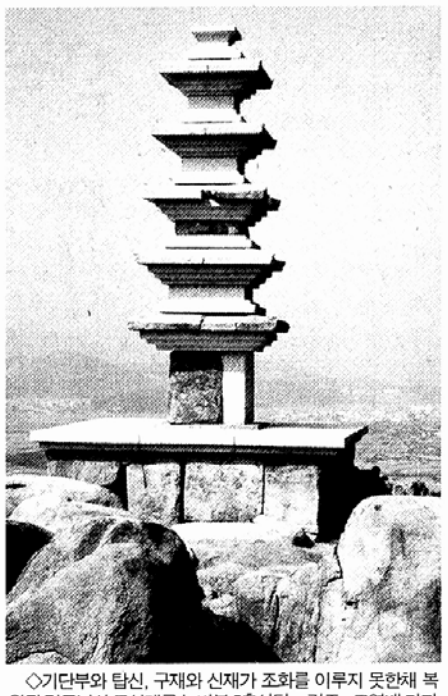
경주시에 의해 복원된 폐탑은 경주 남산 내 포석계곡 늠비봉 5층 석탑과 국사골 3층 석탑, 용장계곡 17사지 3층 석탑, 비타골 3층 석탑 등 폐탑 4기로, 2000년 12월부터 15개월에 걸쳐 복원이 진행됐다.

경즈시문화재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사업비 6억4천여만원을 투입한 폐탑 복원 사업은 2000년 3월부터 실시된 경주시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와 문화재자문위원들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늠비봉 5층 석탑의 경우 기단부를 제외한 옥개석과 탑신 대부분이 원래 폐탑지에 있던 구재(舊材)가 아닌 신재로 교체돼 이질감을 줄 뿐 아니라 복원 후 주변 정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탑 주변에는 당초 원자재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기단석과 옥개석 등 석재 수십여 개가 흩어져 있어 원자재 사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신재 사용으로 인한 이질감과 전체적인 부조화는 이 탑의 특징으로 꼽혔던 자연적인 바위산과 조화를 살리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비파골 3층 석탑은 탑의 보호를 위해 쌓아 올린 축대가 지나치게 높아 탑의 조망각도를 제한하고 있어 산을 오르면서 탑을 볼 경우 기단부를 볼 수 없게 복원됐다. 남산을 찾는 일반인들까지 제한된 조망각도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놓자 경주시는 자문회의를 거쳐 빠르면 3월 중순경 탑의 조망각도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다시 석축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문화예술과 최병윤씨와 자문 기관이었던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백오건 학예연구원은 "구재의 심한 파손과 결실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논의를 거친 후 신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3월 중순경 주변 정비와 함께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기단부와 탑신, 구재와 신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채 복원된 경주남산 포석계곡 늠비봉 5층석탑. 경주=고영배 기자

함양에 녹색대학 세운다

4년제 정규대학과정…2003년 개교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에 환경운동연합과 범시민연대 등 전국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안대학인 녹색대학 설립된다.

녹색대학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일상, 전국야생동물보호협회 부회장)는 2월 16일 백전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갖고, 폐교된 백전중 대평초등 백운초등 등 3개교 부지를 매입,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의 녹색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오는 2003년 3월 개교 목표로 전국에서 2천3명의 회원을 모집,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아 2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준비위가 밝힌 녹색대학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생명농업학과 생태건축학과 전통기술학과 생태교육학과 대안교육학과 등 10~12개 학과에 100~15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대학과정의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또 백전면 대안리 일대 10만㎡에 생태마을을 조성, 15가구를 입주시켜 유기농법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대학부설 대체의학연구센터와 생태농업연구소 등도 설립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금정산 고속철관통반대 범시민대책위가 결성식을 마친뒤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금정산 고속철통과 저지운동 본격화

부산대불청 등 50여 단체 참여

범어사(주지 성오)를 중심으로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단체들이 고속철 금정산 관통 반대에 적극 나섰다.

2월 28일 부산역 광장호텔에서 결성된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청정화합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인권센터,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맑고푸른시민연대, 범어사지킴이단, 천성산고속철관통저지공동대책위 등 50여 개의 불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석해 금정산에 수호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는 성오스님, 이종석 경실련 고문, 허탁 금정산 지킴이단 단장 등을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의 구자상 사무처장과 범어사 총무국장 도관스님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범시민대책위는 금정산 수호 시민결의문을 통해 "부산의 허파이자 휴식처인 금정산과 범어사의 환경을 파괴하는 고속철 건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금정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결성식에 이어 부산역에서 남포동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대 시민 홍보를 벌였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올해에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불교문화예술 테마열차가 운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월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반시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봉축기간을 전후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교문화예술 테마열차를 운행키로 했다.

도시철도공사소속 5호선 열차 4량(외부설치는 8량)에 설치되는 불교문화예술 테마열차는 1일 4~6회 운행되며, 연인원 5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제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예비회의를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한중일대회 일정과 행사내용, 국제학술강연회 주제 등을 논의한다. 김원우 기자

불교문화예술 테마열차 운행

부처님오신날 전후, 1일 4~6회

21세기 포교 변해야 산다

유승무교수 불교포럼서 주장

21세기 사회 변화의 핵심인 정보화에 초점을 맞춰 불교계가 포교여건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포럼(대표 박승원 김연규)이 2월 27일 서울 동산불교회관에서 연 '21세기 포교, 변해야 산다' 주제 포럼에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21세기는 전자정보공간의 등장으로 기존의 시공간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서 "이런 변화 속에서는 종교적 귀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포교의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 교수는 불교의 포교역량이 다른 종교에 비해 열악했던 원인을 종단내부의 고질적인 갈등, 세속에 대한 관심을 단절한 채 수행만 열심히 하면 포교가 된다는 낙관론, 그리고 물적 기반이 풍부한 곳과 열악한 곳에 나타나는 종단내 불평등 구조 등으로 규정했다. 김재경 기자

경찰청 경승실 참선회 구성

매주 화요일 오전 8시20분 '잠간선방'

경찰청 경승실은 2월 27일 경찰청 내 불자들의 수행지도를 담당할 참선회를 구성했다. 참선회는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을 조실로, 현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을 선원장으로, 파주 약천사 허정스님과 남양주 무량사 홍선스님을 상임지도법사로 추대했다.

참선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20~50분 정기 참선모임 '잠간선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만납시다'라는 표어를 내건 참선회는 5~8일 참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원로스님 초청법회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첫 법문은 10일 '화두'를 주제로 조실 정일스님에게 듣는다.

선원장 자우스님은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등 고된 일과를 보내는 직원들의 정신적 안정과 심신수양을 위해 선방을 개원하게 됐다"며 "직장 내 포교와 불심잡기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제주불교방송 준비위 발족

위원장 중원스님, 빠르면 내년 1월 설립

제주도에도 빠르면 내년 1월에 불교방송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 관음사 주지 중원 스님을 비롯해 지역내 불교계 인사 10여명은 2월9일 한라불교신문사 회의실에서 제주불교방송설립추진준비위를 결성하고 방송국 설립준비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준비모임은 제주불교방송 설립 준비위원장에 제주불교총연합회장인 중원 스님을, 상임위원에 조맹수한라불교신문사장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역 인사들은 도내 불자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로 전하기 위해 제주에도 불교방송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 불교방송이 내년에 개국될 경우 불교방송은 전국을 가청권으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현재 불교방송은 서울 등 5곳에서 방송 전파를 내보내고 있으며, 12월 춘천 불교방송이 개국하면 방송국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주일 기자

국제포교사 연수생 모집

3월21일까지 원서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제7기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모집한다.

조계종 소속 스님 및 재가신도(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는 3월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응시원서, 이력서 2통, 반명합판 사진 5매, 전형료 3만원, 졸업증명서, 승려증 사본 또는 신도증 사본), 2차 필기시험(불교교리와 불교상식 등을 해당 언어로 출제), 3차 면접실시(해당 언어 회화 및 불교 이해도)로 진행된다. (02)732-5292 김재경 기자

템플스테이 자원봉사 합격자 120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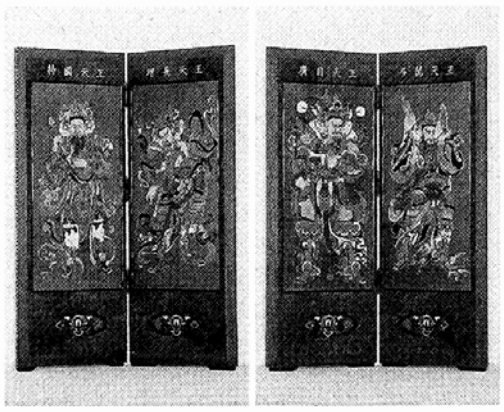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월 26일 외국인 한국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 외국어 자원봉사자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는 영어 86명, 일어 27명, 중국어 7명 등 모두 120명이다.

이들은 네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은 후 5월20일부터 해당사찰에 배치된다. 김재경 기자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영험이 일어나고 있는"

사천왕 병풍의 신비(神秘)한 위신력!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2,500,000~~ → ₩2,000,000

※ 현재 본회에서는 전국사찰을 계속적으로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부담느끼지 마시고 연락만주시면 날짜를 정하여 직접 찾아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조성방법

먼저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병풍 전체를 고급무늬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해서 색채도 화려하고 장엄하게 조성 하였습니다. 직접보시면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실 정도이며 일차로 이번에 300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풍 뒷면에는 법기(法氣)와 생기(生氣)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본회의 비법(秘法)인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황동판 팔괘불탑다라니를 4폭 모두 부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천왕 병풍 자체에서 나오는 법기와 합일(合一)되어 사찰 내 사방 50m 이내에는 강한 법기와 법력으로 충만되어 주위의 사악한 기운이 소멸되어지고 있으며, 사찰 내를 신령스러운 법력이 항상 감싸고 있게 되므로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위신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위신력의 현상

(1) 매 법회때 마다 신도들이 50여명 정도 밖에 안나오는 사찰의 경우에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고 난뒤부터 신기하게도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법회에 80여명 이상의 신도가 나오고 있고 어느 때는 100여명 이상씩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2)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보시금을 내는 신도가 생기는가 하면 불전함의 보시금도 배로 늘어나 사찰의 어려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스님들께서 볼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우연히 마련되어지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순순이 풀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기 사례는 그동안 사천왕 병풍을 모신 사찰의 스님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알게 된 현상들을 종합해 본것 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천왕 병풍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위신력의 작용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제 그 위력이 하나둘씩 알게 모르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불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사천왕 병풍을 본인들이 다니시는 사찰에 시주(施主) 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공덕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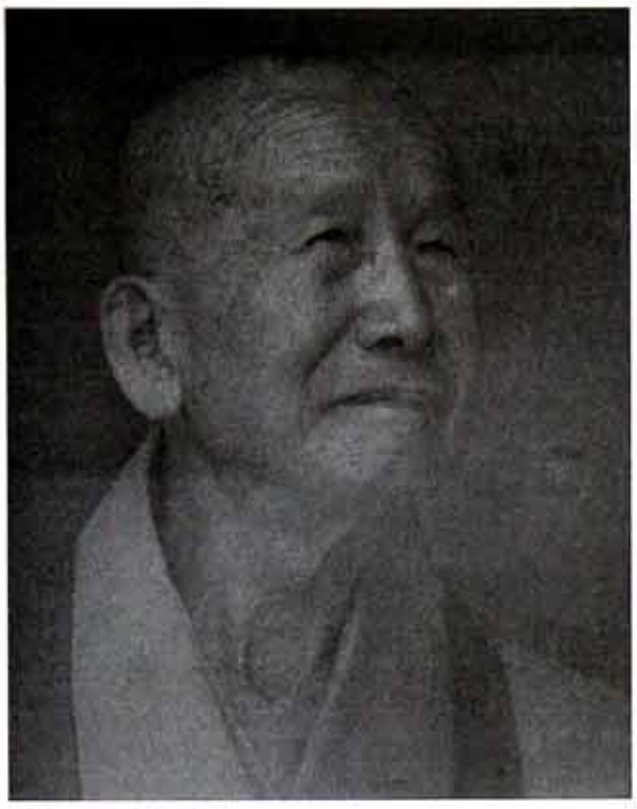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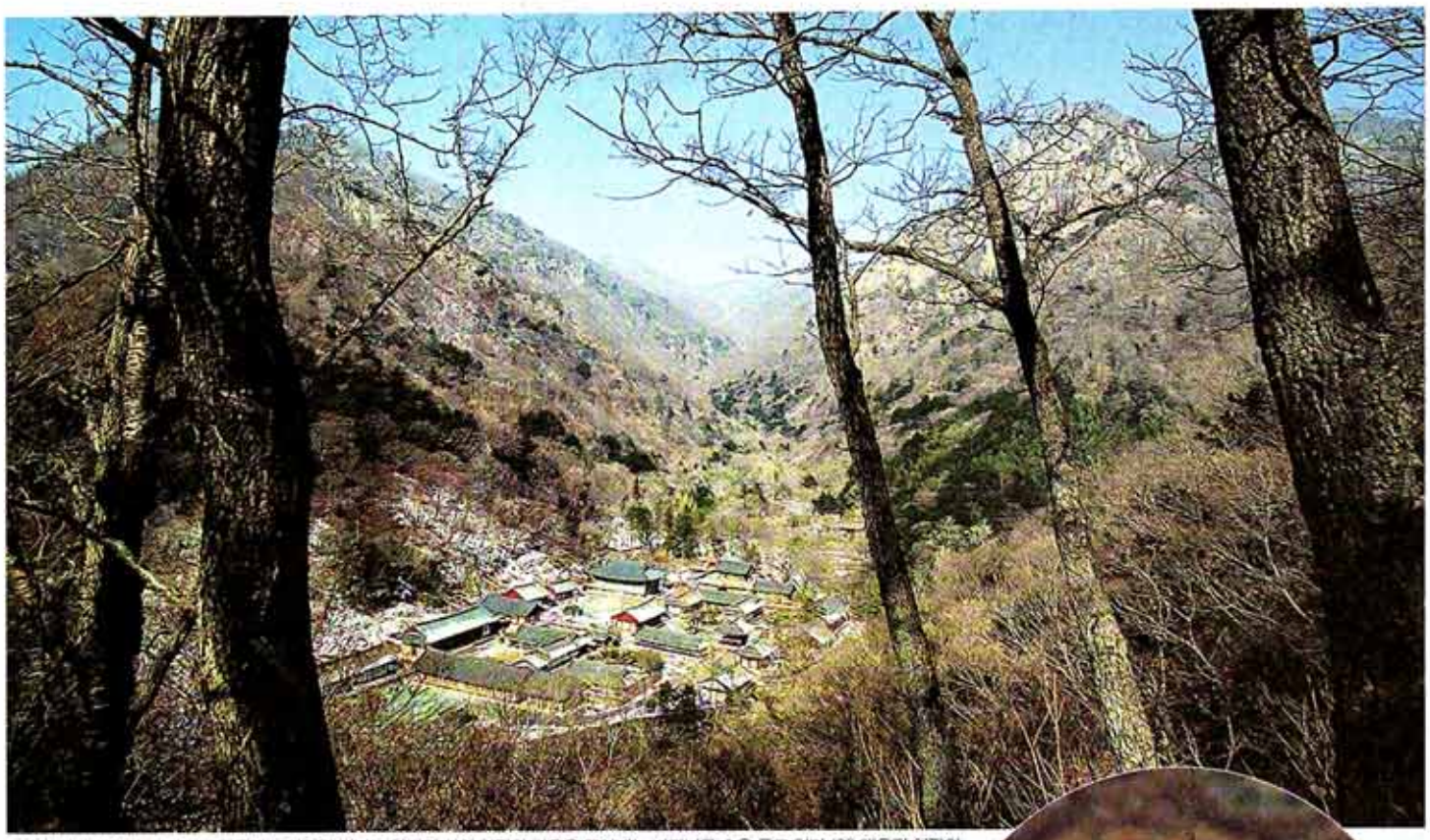
백암산의 얼굴 서옹스님

91세 노구불구 '참사람 결사운동' 펴

고불(古佛)이 다시 나와 짓는 표정이 이러할까? 미소 지은 서옹(西翁) 큰스님을 뵈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

1912년에 나셨고, 1932년에 만암 스님의 문하에서 불문에 귀의하셨다. 조계종의 5대 종정을 역임하셨고, 1996년부터 고불총림 백양사의 방장으로 계신다. 세수 9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두가 '차별없는 참사람(無位眞人)'이 되게 하고자 '참사람 결사운동'을 펼치시고 있다.

삼매에 든 백학봉의 무진설법



◇백암산 백양사. 산기슭에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는 암자와 사철 청량한 기운을 뿜어내는 비자나무 숲을 품고 있다.(위) 대웅전 천장의 목조각 장식(아래).



그 절에 가면 — 백암산 백양사

1400년 古刹…천진 · 홍련 · 청류암 · 청량원 보석처럼 빛나

아직 단청을 하지 않은 백양사 일주문 너머로 백암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백학봉'을 마주하는 순간, '그래, 절은 언제 와도 좋은 곳이지' 하는 말이 혀끝에 맴돕니다. 거기 백학봉이 있어서 절이 자리를 잡았는지, 절집이 들어섬으로써 백학봉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양사의 선풍(禪風)과 백암산의 진면모가 '백학봉' 하나에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한 생명만 깨쳐도 만 생명이 깨친다'는 선가(禪家)의 금언이 생각납니다. 낱낱 생명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음을, 모든 개인은 인류를 대표함을 이르는 말로 새겨도 좋을 듯합니다. '산천초목이 다 부처'라는 불가의 가르침이 결코 헛말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헌헌장부의 기상으로 삼매에 든 백학봉의 무진 설법입니다. 따라서 백양사에서는 먼저 백학봉의 품이 안겨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참배의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백양사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부도 밭' 앞에는 '쌍계루'라는 편액을 단 누각이 있습니다. 운문암 쪽에서 흘러내린 계곡과 천진암 쪽에서 내려온 지곡 물이 만나 잠시 머물면서 이루는 연못을 완상하기에 딱 좋은 누각입니다. 바람을 메고 먼 길을 걸어온 수행자는 이제 곧 시작될 고행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한나절 저잣거리의 피로를 씻으러 온 세간 사람들에게는 감춰두었던 시름 한 보따리 풀고 가라는 배려일 테지요. 그 의도가 무엇이든, 절집은 이렇게 멋드러지게 여유를 부립니다.

사잇말이 길었습니다. 하고픈 말인즉, 물의 흐름을 누그러뜨리는 듯 위로 놓인 징검다리에 몸을 올려 세워, 낮달처럼 연못에 떠오른 쌍계루와 백학봉의 품에 안겨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백양사는 새봄이나 늦은 가을에 찾으려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춘(春) 백양, 추(秋) 내장'이라는 말의 유명세에 길들여진 탓도 있었지만, 어느 가을 우연한 걸음에 이끌려 바라본 단풍의 아찔한 붉은 빛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쾌한 기억도 때론 거추장스럽습니다. 기차에 몸을 부려 놓고도 백양사 가을 단풍에 대한 아쉬움이 쉬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들여진 감성이 빚어내는 어설픈 수작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기도 합니다. 백제 무왕 33년(632) 여환 스님이 창건한 1400여년 고찰입니다. 이러한 내력의 무거움과 달리 백양사는 소박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서둘러 둘러보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 뒤섞여버리는 큰 절과 달리 느긋하게 둘러보아도 시간에 쫓길 일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넉넉하다면 백암산 자락 곳곳에 보석처럼 박힌 암자를 둘러볼 일입니다.

고려 때 각진 스님이 창건한 운문암은 백양사 암자 중 최고의 전망을 안겨 줍니다. 안거 중이 아니라면 오는 발길을 막지 않습니다. 큰 절을 감싸듯 흘러내리는 좌우룡의 산줄기를 바라보는 즐거움만으로도 산길을 오른 수고의 몇 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암으로 발길을 옮기면 천연기념물 제153호인 비자나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철 푸른 그 청량한 기운에 속진을 씻어보는 것도 산사를 찾는 각별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밖에 천진암, 홍련암, 청류암, 청량원과 같은 암자들도 야단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산사의 진경을 열어보입니다.

자연과, 그것을 닮으려는 인간의 매개체로 철만한 공간은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절집에서 선인들의 자취를 더듬어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건주 여환 스님이나 고려시대의 각진 국사, 조선시대의 편양, 진묵, 연담 스님을 비롯하여 근·현세의 백파, 학명, 용성, 인곡, 석전, 만암 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이 이곳 백양사에서 도업을 이루었음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백양사를 있게 한 스님은 만암(1875~1957) 스님입니다. 1917년 폐허가 되다시피한 절을 중창하여 총림의 터전을 다졌습니다. 청류암에 민족교육의 산실인 광성의숙을 설립했고 1930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를 설립하는 등 쇠잔해가는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운이 푸르게 살아있으니, 백양사 진입로에서 단풍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노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암 스님께서 손수 심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이후 6·25의 전화에 또 한 번 시련을 겪었으나 1980년 이래 복원을 시작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서옹 큰스님의 회상에서 수많은 납자들이 청정 수행 가풍을 잇고 있습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이즈음의 산색은 잿빛 승복 빛깔을 닮아 있습니다. 앙극단을 물리친, 흑과 백의 어름에서 만들어지는 빛발의 내밀한 스펙트럼, 화들짝 놀랄 만큼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죽은 듯이 살아 있는 혹은 살아 있되 죽은 듯한 생명의 근원적인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겨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해풍에 스며든 포말이 볼에 안길 때의 느낌이 그러할까요. 봄마중의 설렘보다 한 발 앞선 매화꽃 몽우리, 겨울과 봄 사이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포말입니다.



•실용신안 20-2001-0029858 •의 장 30-2001-14622호 •상 표 40-2001-19831호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 (담마차크라)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윤장대)을 한국불교 정서에 맞게 제작하여 사찰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법륜장을 돌려도 팔만대장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효과를 내는 법륜장을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륜장은 티벳이나 몽골에서는 라마승과 목수가 택일을 하여 나무를 베고 기도와 주문을 외면서 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윤장대라고 하여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2개가 봉안되어있으며, 고려 충렬왕 때 국태민안을 위해 법륜장(윤장대)를 돌린 의식을 봉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령 1백년이 넘는 인도네시아산 알마시카 木으로서 둘레가 5M 지름이 2m가 넘는 원목을 사용하여 문화재 목공장이 제작하였습니다.

신비의 영험있는 티벳 대장경 깐쥬르 108권을 티벳 라싸에서 직접 이운하여 법륜장에 모셨습니다.

※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 장
정 병 욱(선암)


대표이사
정 광 무(법륜)
(문화재 기능보유자 149호)


담마차크라(법륜장 봉안법회)

(株)正因
본 사 : 대구광역시 검사동 990-198 청운빌딩 5층
전화 : 053-986-9200~2, 팩스 : 053-986-9202
야간 011-553-3004
서울지사 : 서울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602호(해동불교대학내)
전화 (02)741-5210 핸드폰 011-506-0040
http://www.담마차크라.com
www.법륜장.com
www.윤장대.com
e-mail:dharmachakra@hanmail.net

법륜장각(法輪藏閣)



법륜장(法輪藏, Dharma Chakra Tripitaka)란 무엇인가?

법륜장, 경륜통 또는 윤장대(輪藏臺)는 인도나 티벳 몽골 불교에서 널리 경전신앙과 업장(業障)소멸 학업성취 그리고 조상천도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일종의 불교의식 도구이다. 불교의식 도구와 경전신앙이 합쳐져 실천되고 있는 신앙행위 그 자체이다. 법륜장과 경전신앙은 어디까지나 일반신도들을 위하여 생겨난 매우 실용적인 신앙도구라고 하겠다.

특히 티벳 불교와 몽골불교에서 이 법륜장은 일반신도들에게 인기가있으며, 절에가면 누구나 이 법륜장을 열리므로서 신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티벳대장경 깐주르 108권을 법륜장안에 봉안합니다.